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긴 머리소녀 라퐁젤과
허당 왕자 벤자민

(Twice Upon A Time, Rapunzel,
The One with All the Hair·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김 지 은

2017年 2月



긴 머리소녀 라푼젤과 허당 왕자 벤자민

(Twice Upon A Time, Rapunzel,
The One with All the Hair·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김 지 은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2月

김지은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年 2月



Twice Upon A Time, Rapunzel,
The One with All the Hair
긴 머리소녀 라퐁젤과 허당 왕자 벤자민

Ji-Eu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1장

8월5일

-라퐁젤의 이야기-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진짜 믿을 수 없다. 내가 침대(!)로 쓰고 있는 애꽃은 지푸라기더미에다 화풀이를 하고 있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은 내가 숲속 한 가운데 있는 탑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혹여나 내가 여기서 구조되지 못하면 검은 새들이 탑 창문으로 들어와 내 뼈까지 다 먹어 치워버릴 수도 있다. 내 열 두 번째 생일날 새벽에 들이닥친 이 비극적인 일이 역사에서 잊혀 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절망감 속에서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보지만 아무소용도 없다. 그 때문에 몸만 아파올 뿐이었다.

촛불이 내뿜는 불빛에 벽에 비친 이상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이 보인다. 이 캄캄한 어둠속에서도 험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오직 그 마녀, 머리카락도 등성등성하고 사마귀에 털이 그 마녀가 나보고 최소한의 짐만 꾸리라고 했었는데 가방 안에 몇 개의 양초를 가져온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은 시작이 좋았다. 엄마는 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리고 있었고 나는 나중에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 쓸 의자와 가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열두 살이 되어 처음으로 머리를 자를 수 있다니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일단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위에 묶고 다니는 대신 드디어 머리를 풀고 다닐 수 있겠지. 지금까지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깔고 앉을 수 있을 정도였다!

부엌 창문으로, 아빠가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다른 집에서는 자라지 않고 우리 집 텃밭에서만 자라는 도라지를 기르시는 걸로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다. 한창 뜨거운 여름이면 도라지 주문이 밀려들고, 그 덕에 우린 매년 가을 추수 때까지 꽤 풍족하게 산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나는 아빠를 도와 도라지 줄기를 캐고 아빠는 2주간에 걸쳐 도라지 약초를 그레이트 숲¹⁾ 건너편에 있는 강기슭까지 배달도 간다.

1) 그레이트 숲: Great Forest, 숲의 이름

몇몇 아줌마들은 그것을 끓여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볼에 바른다. 물론, 대개는 양상추와 시금치를 섞어 샐러드로 만들어 먹지만. 사람들이 속닥이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집 도라지는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몸이 허약한 아저씨도 다시 힘이 세지고 마늘을 먹어도 입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엄마는 특별 아침 식사로 등장할 아몬드 파이에 꿀을 바르는 것을 마무리 하시면서, 아빠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 텃밭의 큰 나무 대문을 힘겹게 여는 순간, 나는 아빠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열두 해 동안, 아빠 텃밭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밖에 엄청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자달린 검정 망토를 입고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보다 별로 키도 크지 않았다.

아빠와 그 사람은 열띤 논쟁 중인 듯 했다. 나는 내 허리띠에 달린 방울 때문에 인기척을 느낄까봐 나는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곧 내 뒤에 문이 광하고 열리면서 엄마가 나왔다. 엄마는 나에게 왜 이렇게 꼬물 대냐고 야단을 치려다가 순간 그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엄마가 놀라서 혁하는 소리에 두 사람은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사람이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아보는 순간 나는 그녀가 반짝거리고 예리한 눈매와 검정 눈동자, 흰 머리카락, 긴 코를 가진 늙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큰 파리들이 웅웅 거리며 그녀의 머리위에 돌아다녀도 그것들을 쫓아 버리지 않았다. 등 꼴이 다 오싹해 졌다.

엄마는 내가 특별히 생일날 입은 노란원피스 소매를 잡아끌며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엄마와 내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울기 시작했다. 아빠는 손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놀라웠다. 나는 닳을 잃고 그 아줌마만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슬금슬금 나에게 다가왔다. “네가 라폰젤 이로우나?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널 오랫동안 기다려 왔단다.”

아빠는 우리 사이를 가로 막았다. “우리 딸을 데려갈 수 없어,” 라며 단호히 말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린 거래를 했지. 이젠 어떻게 할 수

없어.”

엄마는 울음을 그치고 아빠한테 소리치기 시작했다. “우리라니!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그 거래를 했잖아요!”

아빠도 소리치며 “당신이 저 마녀의 도라지 말고는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었잖아! 우리가 이 아이를 갖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곧 출산하려면 힘을 내야 하는데 당신을 굶기게 둘 수는 없었어!”

나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엄마는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못했다. 마녀라고?! 출산? 그렇다면 이게 다 내 얘기라는 거야? 나는 힘겹게 입을 열어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았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제게 말 좀 해 주세요.”

그 늙은 여자가 큰소리로 킁킁거리며 소리를 냈다. 웃음소리 같았다.

“멍청한 인간 같으니라고,” 거친 목소리로 아빠에게 속삭였다. “마녀와 약속을 해놓고 내가 잊어버렸기를 바라다니. 우리 거래는 확실해! 네 자유대신 네 딸을 내어주기로 약속했어. 넌 내 텃밭에서 도라지를 훔쳐갔고, 난 네게 벌을 주지 않았지. 여태껏 부유하게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 이 아이도 다 컸으니 데리고 가야겠다.”

그녀가 말 하는 아이가 바로 나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늙은 여자는 입술 옆에 있는 사마귀가 도드라지도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치아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나마 별로 남지도 않은 치아마저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으니. 자기 외모도 못 가꾸다니, 가난한 마녀임이 틀림없어. 진짜 심지어 저 사마귀는 약제 상도 없앨 수 있는 거라고.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 됐다. 아빠는 양팔로 나를 들어 올려(난 더 이상 한손으로 들을 만큼 덩치가 작지가 않다) 도망가려 했다. 그런데, 그의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녀가 획 하고 손짓을 하자, 마당의 푸른 도라지 줄기들이 땅에 떨어져 온데 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그녀가 위협적인 힘을 보여준 다음, 나를 아빠 품에서 빼앗아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엄마의 비명소리도 잊따랐다. 그 마녀는 내 방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왜냐하면 내 방으로 끌고 와 나무상자 안에 대충 필요한 짐만 싸라고 했기 때문이다. 방에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방문을 막았다. 나는 어쩔

수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나는 그 마녀가 가방 문을 잠그기 직전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싼다.

잠깐사이에 마녀가 내 눈을 가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움직이는 마차 위에 누워있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쉬어 버렸다. 마을길들은 잘 알고 있기에, 머릿속으로 어느 길에서 어디로 돌았는지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다. 이윽고 잠이 몰려왔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려 부단히 노력했다.

그다음 기억나는 건, 지푸라기 더미 위에서 눈을 뜬 것이다. 어느새 내가 썼던 눈가리개는 벗겨져 있었고, 돌바닥으로 된 동그란 방안에 올이 나간 낡은 파란 양탄자가 깔려있었다. 석양이 지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노을이 지니 바닥의 양탄자색만 눈에 띄었다. 벽은 직사각형모양의 회색벽돌들로 이루어 졌고 한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주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은 축축했다. 올라가도 내 몸만 겨우 넘어갈 수 있을 법한 크기의 창문이 열려있어 시선이 갔다. 아! 지지리 복도 없지! 위로 올라가서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밑에 뭐가 있는지 보니 나무 꼭대기다! 끔찍했다. 난 태어나서 나무 꼭대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윽고 우리 마을 교회 탑보다 높은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머리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니 어지럽기만 하다. 내려가는 길에는 돌맹이들만 가득한 채, 다른 창문도, 문도 심지어 사다리조차도 없었다. 내가 또래아이들보다 키는 좀 크다고 해도 이 탑은 내 키의 한 20배 정도 되는 듯했다. 검은 새들은 탑 위를 천천히 돌며 간간히 울어댔다. 그것들은 내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저 녀석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죽으면 쪼아먹는 새들 아냐? 아! 개네들 이름이 까마귀였던가? 알고 싶지도 않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벽 쪽에서 좀 험거운 돌이나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 나는 양탄자아래 바닥에도 그 어떤 비밀의 문은 없었다. 방안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침대대신 지푸라기더미와 내 짐 가방 그리고 페인트칠 되어있는 흐린 회색의 의자와 테이블이 전부다. 방한 가운데 서있을 때마다 맹세컨대 주기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분명 난 혼자

인데.

오늘 하루 일과에 완전히 지쳐서, 지금 바닥에 누워 생각해 본다. 도대체 문도 없는 이곳에 나는 어떻게 들어 온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나처럼 집이나, 부모님들로부터 끌려온 다른 여자 아이들, 아니면 귀신들이 있을까?

이 모든 스트레스들로 인해 내 얼굴에 처음으로 여드름이 났다.

제2장

8월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흥미롭지 않은 않다. 아직까지 나는 그 어떤 큰 모험도 해 본적도 없다. 심지어 음악가들이 나에게 대해 노래할만한 이야기 거리도 없다. 이를테면 오늘아침 나는 궁전 안 연못에서 배영을 하면서 근처에서 창 시합을 하고 있는 기사들을 부러운 눈으로 구경만 했다. 그날 밤, 나는 기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내 운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나는 왕이 되겠지...그게 바로 내 운명이다.

수영을 마친 후에,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고 있었다. 우리 엄마, 아니 여왕님은 내가 안경을 못 찾을 때마다 짜증을 내신다. 엄마는 혹시 내가 말총으로 목걸이로 만들어 안경을 목에 걸어줬는데도 잃어버려서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엉덩이에 혹여나 못이라도 박힐까 늘 노심초사 하신다. 사실 난 안경이 없이는 장님이나 다름없으니까.

엄마는 매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신다. 이 궁전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는 열세살이나 먹은 아들을 애 취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엄마에게 핀잔을 주신다. 물론 나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심지어 시골길에서 사람들이 연습하는 바이올린 연주도 내 마음대로 듣지 못하게 하시니...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요일마다 음악가들이 와서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는 무어라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엄마는 나 같은 위치에 있는 남자

가 음악에 빠져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하신다. 그래서 인지 내가 아홉 살 때 류트²⁾를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내 곧 빼앗아 가 버리셨다. 차라리 나가서 원반던지기나 활쏘기를 연습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 활쏘기 솜씨는 통제 불능이라 가끔 너무 가까이 쏘서 정원에 산책 나온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칠 뿐이다.

오로지 수영만이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남들에게도 민폐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체스도 곧 잘 두곤 하는데, 항상 체스 말을 집어 움직여야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간혹 체스 판이 꽤 커서 더 멀리 손을 뻗어 말을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니까 더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볼 수 있겠지. 아 그리고 체스는 꼭 일요일만 허락해 주신다.

다행히도 우리들 중에 엄마가 아이처럼 대하는 진짜 아이도 있다. 바로 세 살 난 내 여동생 애나벨이다. 애나벨은 불일을 보고 난 후, 아직 엉덩이 닦는 법을 터득하지 못해, 냄새가 꽤 고약하지만 그래도 명랑하고 사랑스럽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동생이 참 좋다.

내 시종이자 성안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인 앤드류가 그레이트 회장³⁾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날 데리러 왔다. 그곳에 가면 난 엘킨 왕자 옆에 앉아야 한다. 엘킨은 여름 방학동안 놀러온 사촌인데, 완전 성가시고 개구쟁이다. 항상 나는 그의 이에 낀 호밀 씨나 딱부리처럼 이상하게 생긴 눈을 못 본채 해야만 한다. 심지어 나보다 한 살 형인데 키가 너무 작아서 자꾸 형인 것을 까먹는다. 오늘도 난 멋진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게 대부분의 왕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저녁

아버지께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을 내리셨다. 아무래도 난, 다른 귀족들과 어릿광대이 춤, 농담, 은공 세 개로 저글링 하는 것들을 그들과 같이 감상하기에는 아직 어린가보다. 그들은 맥주나 독한 술을 마시며 큰 모자를 쓴 어

2) 류트(Lute): 류트(연주법이 기타와 비슷한 초기 현악기)

3) 그레이트 회장: Great Hall, 성 안에 있는 대 연회장 이름

릿광대를 보고 웃겠지.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다 큰 성인남자가 은색, 보라색과 같은 알록달록한 실크 옷을 걸치고 다니는 그들이 더 웃긴다.

그래도 한번 구경은 해보고 싶다. 더 최악인 것은 (이에 아직도 호밀 씨와 파슬리가 낀) 엘킨이 내 방에 같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똥한 표정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그를 계속 무시할 생각이다. 진짜 열 받는다. 내 나이가 되면 다른 왕자들은 벌써 결혼도 하고, 언제든 원할 때마다 음악가들의 연주나 어릿광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뭐랄까, 내 나이또래 여자아이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 달까...작년 겨울 무도회 때는 춤을 추면서 어떤 공주의 발을 하도 밟아서 피가 나는 바람에 무도회장에서 쫓겨났다. 나름 변명을 하자면, 최근에 나는 갑자기 키만 멀쭉하게 자란 탓에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조만간 내가 어릴 적에 갖고 있던 균형 감각이 어서 다시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항상 선반 한 편에 고이 모셔두는 '훌륭한 기사 롤란드의 모험'이란 책을 꺼내들자마자 엘킨 내 팔을 잡으며 “그만해, 뭐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 난 롤란드가 어떻게 공주를 구해냈는지 알고 싶어.”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고 만약 내가 언젠가 왕이 돼야 할 운명만 아니었다면, 난 아마도 책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채색 자가 됐을 거야. 만약 기사도 못하게 된다면 말이다.

“밑에. 어릿광대가. 있...어...” 엘킨이 느리게 말했다. 물론 뭐라 했는지 나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말이다.

“그래. 엘킨,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갇혀 있는 거잖아.” 진짜 바보 인가봐.

“그럼 뭘 꾸물거리려?” 내 팔을 잡고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방에 이려고 앉아있지 말자!”

정말이지 이 녀석의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그렇고 그도 말 한 것처럼 내 안에 모험하고 싶은 마음이 하도 커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려갈 수는 없어. 아버지가 싫어하실 테니까. 형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왕이잖아. 약한 모습이든 뭐든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보이기 싫어하시

니까.”

“그럼 소파 뒤에라도 숨어있자. 아무도 모를 거야. 빨리 와, 벤자민. 나 한 번도 어릿광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흥분에 가득 차, 볼이 빨갭게 되어서 인지 당근처럼 빨간 머리색이 더 짙어 보였다.

물론 솔깃하긴 했다. “근데 우리가 소파 뒤에 숨으면 광대는 볼 수 없잖아.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 엘킨이 애원하는 듯 말했다. “지금이야, 빨리 와!”

엘킨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막무가내였다. *롤랜드의 모험*은 좀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문을 열고 엘킨을 따라 용단이 짝 깔린 복도를 따라갔다. 벽에 걸린 액자의 기사들과 부인들이 우리가 하는 짓을 못 마땅히 여기는 듯이 쳐다보는 것 같았다.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거실에 들어갔다. 이쪽저쪽에서 하인들과 하녀들이 돌아다니는데도 안 걸리다니, 이건 진짜 기적이다. 나는 엘킨을 쫓아서 거실에서 가장 큰 벨벳 색의 소파 뒤에 숨어, 어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겨를이 없다. 우리는 최대한 웅크려 발을 안보이게 숨겼고 거실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엄마는 애나벨을 무릎에 앉힌 채, 내 앞쪽에 앉아 계셨다. 애나벨은 광대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듯하다. 참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어릿광대가 등장했고, 큰 거실에 있는 관객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8월초가 아니었다면, 바닥이 서늘해, 훨씬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광대가 저글링을 하기 시작했나보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와..아...하고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 했는데 광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내 “이 어여쁜 은사과는, 우리 어여쁜 꼬마 숙녀님께.”라며 그것을 내 동생에게 건네 준 것 같다. 내 여동생이 까악 소리를 지르며 “와야! 사과야...다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엔, 동생이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지, 엄마가 “안 돼, 아가. 이건 후식이 아니란다.”라고 하셨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귀족아저씨가 “우리 꼬마아가씨가 지금처럼 쭉 어여쁘게 자랐으면 좋겠구나...빨리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주님의 결혼식 날이 되

있으면 좋겠네요.”라며 장단을 맞췄다.

엄마는 초조하게 웃으며, “네 그럼요. 엘브릭 경.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요.”

뭐라고? 엄마가 뭐라는 거지? 10년이라면, 내 동생이, 지금 내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한다는 거야? 세 살 난, 내 여동생이 약혼을 했다고? 엘킨이 나를 억지로 잡아끌고 내려온 게 심지어 원망스러웠다. 내 안경도 거의 날아갈 뻔 했고.

"이건, 제 걱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깐깐해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직 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벌써 여성들이 머리를 제대로 안 빗었다거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잡아낼 정도라니까요."라며 엘브릭 경이 말했다.

내 안에서 피가 들끓는듯했다. 아버지가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 딸, 아니 우리 공주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다.

애나벨이 하필 이 타이밍에 "아빠! 밑에, 아빠 응가!"라고 소리쳤다.

엘킨과 나는 웃음이 나올 뻔 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쉽게도 엘브릭 경의 아들은 미래의 자기 신부가 한 말을 못 들었군! 엄마는 동생 입을 틀어막았다. 이내 광대는, 기사가 아름다운 여자를 구해내는 내용의 짤막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바보 같은 구닥다리 전통 같으니라고! 두 가족의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 재산을 합친 다음, 서로 지위나 높이려는 속셈이겠지!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엘브릭 경의 부동산을 탐내 합쳐보려 부단히 노력하셨다. 결국 해결방법을 찾아 내신계, 내 사랑스런 여동생과 그 건방진 녀석이 결혼하도록 약속하는 거라니!

일단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광대의 노래나 들어야겠다. 그는, 어느 멋진 기사가 새벽에 듬직한 말을 타고 나가 사라진 공주를 찾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갑자기, 공주들은 왜들 그렇게 자주 사라지는지 궁금해졌다. 그러자 내 친구이자 시종인 앤드류가 거실에 별꿀 술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가 엄마에게 한 잔 건네려다가, 우리를 발견했

다. (엘킨의 머리색이 너무 밝아서 눈에 더 잘 띠는 것 같다.) 나는 손으로 췌! 조용하라고 몸짓을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앤드류가 너무 놀라 그만 술잔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술이 엄마 무릎에 (그리고 애나벨의 무릎에도) 쏟아졌고 술잔은 바닥에 부딪혀 깨져버렸다. 광대는 노래를 멈췄고, 노래 속 기사도 공주를 구하러 가다 말았고, 결국 빨강머리 엘킨과 나는 걸리고 말았다.

우리는 죄책감에 일어서 자백했고 앤드류와 다른 하녀들은 재빨리 엄마와 애나벨 옷에 묻은 술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다. 엄마는 하인과 하녀 셋이 엄마를 닦아 주는 것에 영 내키지 않아 보였다. 불쌍한 앤드류. 항상 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의도치 않게 우리를 듣기 게 해서 속도 좀 상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 실수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좀 맘은 편하지 않을까. 물론 내가 덤벼거리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정도면 됐다." 엄마가 손을 보이며 말했다. "이제 오늘은 이만 방으로 들어가 쉬어야겠어. 밤이 너무 깊었어." 엄마는 엘킨과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얼굴로 머리를 내저었다. 우리는 벽 쪽으로 뒷걸음을 쳤다. 엄마는 한손으로 애나벨을, 다른 한손으로는 치맛자락을 잡아 들고는 '획' 하고 거실에서 나가셨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았다. 심지어 광대도 우릴 찌려보는 것 같았다. 솔직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와인을 쏟은 장본인은 아닌데.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이다.

워낙 말이 별로 없는 왕이라, "어디한번 이유를 들어보자,"라고 아버지께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엘킨과 나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마 엘킨은 이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내가 열 살 때, 요리사의 점심 도시락에 살아있는 장어를 넣다가 걸렸을 때도 그랬다. 엘킨은 그게 다 내 머리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말했다. 절대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나는 일주일 동안 식당 바닥을 닦는 벌을 받았다. 요리사가 그 장어를 저녁 식탁에 요리로 내놓아, 별 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 물론 그 장어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번엔 엘킨이 나를 놀래 췌다. "이모부,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예요. 벤자민은 왕의 말씀을 거역할 맘이 조금도 없었어요."라고 했다.

아마 내가 기사가 될 수 있다고 허락을 받는 것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이만큼이나 나를 놀래 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로, 우리 둘을 쳐다보셨다.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지도자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나는 내 방으로 (또 다시) 갔었다. 이번엔 혼자서 말이다. 아버지는 엘킨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

평소 같으면 '훌륭한 기사 롤란드의 모험' 책을 편안히 읽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마저도 별로 빼앗겼다. 애나벨은 그 짧은 다리로 내방으로 달려와서 침대에 날아 올라가 놀다가 침대 아래로 점프를 하곤 달아났다. 아무런 말도 없이.

나도 저렇게 천진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3장

8월6일

-라퐁젤의 이야기-

하루 종일 울었다. 굳이 부인 하고 싶지 않다. 나를 그 냄새나는 도라지와 맞바꾼 부모님이여도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도라지는 냄새는 고약하다. 심지어 옷을 빨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이 좁디좁은 곳에서 웅크려 잠을 청하려니 온몸이 다 쭈신다. 정신을 차려야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나무 상자

1 '침대' 지푸라기 옆에 놓인 가실-가실 한 울 담요

3 핑크색 머리 리본

4 양초와 나무 성냥 20개

1 종이 6개 달린 양 가죽 벨트

5 원피스

3 유서와 증거자료를 쓸, 송아지 가죽

1 깃펜과 문혀서 쓸 잉크

다행히도 오는 길에 쏟아지지 않았다.

2 창문너머로 들어온 흰 깃털

1 가죽장화

1 손거울 (두 번째 난 여드름을 볼 수 있었다)

1 금속 빗

1 엄마가 작년 재배 때 도라지를 짜서 만들어 주신 연고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려다 말았다)

1 내가 얘기했을 때, 엄마가 이불로 쓰려고 만들어 주신 솔

내 물건들은 이게 전부다. 더욱 눈물이 났다. 눈물을 훔치고 보니 양탄자위에 음식이 가득한 은 접시가 있었다. 오늘 아침 내내 저기 있었던 거야? 그것을 가져다 작은 테이블에 옮겨 올려놓기까지 나는 주위를 몇 번이고 빙빙 돌며 확인해 보았다. 갈아서 만든 양고기요리와 양파가 있었다. 평소에 내가 먹던 아침메뉴는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평소와 같은 것이 뭔들 있겠는가?

그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오늘쯤이면,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이 날 데리러 오실 거야. 마녀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언제까지고 감옥수인 것 마냥 갇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빠는 마을에서 꽤 위상이 높은 사람이다. 아마 마녀도 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납치해 놓지는 못할 거야. 확실해!

저녁

더 이상 그 무엇도 확신 가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 여긴 너무 어둡고 답답하다. 난 혼자다. (내가 아무리 씩씩하게 이겨내 보려고 해도 혼자다. 자꾸만 들리는 귀신 숨소리 같은 것만 빼고) 양초를 또 켜다. 그렇지만,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도 빨리 타 사라진다. 머리카락이 아프다. 머리카

락도 아플 수 있나 싶겠지만 정말 아픔이 느껴진다. 곧 그게 두통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면, 엄마는 내 머리의 머리핀을 빼고 저녁을 먹은 후, 내 머리 카락을 빗어 주셨다. 만약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긴 머리도 없었을 텐데. 아마 어깨까지 가볍게 내려오는 적당한 길이로 변했을 것이다.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 이제 그만 울어야겠다.

그날 저녁시간 이후

손톱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린다. 공처럼 몸을 구부려서 내 솔로 머리를 덮었다. 어렴풋이 엄마 냄새가 난다. 그리고... 아... 그 도라지 냄새도...

제4장

8월6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스디어 별착이 끝났다. 엄마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그녀의 외아들이자, 왕의 후계자란 사실이다. 오늘이 이렇게 짜증스러울 줄 알았다면 그냥 침대에서 더 누워있을 걸 그랬다. 내가 오늘 무슨 일들을 했다면,

1. 엘킨과 연못에서 장어를 잡고 있었는데, 엘킨을 빠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파 뒤에 있다가 결국 들켰을 때, 본인이 조장한 일이라고 다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이다.
2. 강둑에서 산토끼를 쫓다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내가 소심해 졌다는 생각이 들어, 더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3. 이마에 새로운 여드름을 발견했다. 그래서 앞머리로 샴포시 가렸었는데

엄마가 길쭉한 갈색 대걸레 같은 소리에 다시 원래대로 머리를 뒤로 넘겼다. 엘킨은 내 빨간 여드름을 가리키며, 어제야 찾은 정신 줄을 또 놔버린 듯, 웃어댔다.

저녁을 먹은 후, 여드름이 없어질까 하여 민트와 약초를 씹어 먹었다. 약초가 상했나?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니면 산토끼를 너무 괴롭혀서 벌을 만나보다. 내일 그 산토끼를 찾아 사과라도 해야겠다. 오늘은 이쯤하고 어서 ‘롤란드의 모험’ 이나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제5장

8월7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엘킨이 집에 일찍 가다니! 오늘 이모가 그를 데리러 온다고 한다. 여름 내내 있다가 간다고 했었는데, 이웃왕국 공주와 약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아침식사 때 발표하셨다. 엘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그 때문인지 주근깨가 더 돋보였다. 나는 놀라 먹던 빵이 목에 걸려 뒤에 있던 하인이 등을 쳐주었다. 빵을 간신히 넘기고는 물었다. “그 약혼녀 나이가 설마 세살인가요?”

엄마는 탐탁지 않은 듯 나를 쏘아보셨다. “그 아가씨는 결혼하기 적합한 나이란다. 그건 내가 보장하마.”

엘킨의 게슴츠레했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진지하게, “이 결혼은 언제 거행 되나요?”라고 물었다.

엄마는 웃어 보이며 말했다. “얘야, 몇 년 안에 곧 하지는 않을 거야. 네가 말썽부릴 날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다.”

엘킨은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침식사가 끝난 후, 엘킨은 침실로 올라가 짐을 쌌고 나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난 사실 주위에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

면, 전혀 허당 같지 않다)

지금은 밖에 벤치에 앉아 그레이트 잔디⁴⁾에서 매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그 전에는 돌길 위를 달리는 말발굽 소리도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왕국의 심부름꾼이 이모의 금마차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이모네 왕국은 우리만큼 크지 않다. 이모는, 비록 조금 낮은 직위의 왕비일 지라도, 항상 멋들어지게 기사와 궁수를 마차에 동행한다.

엘킨은 정문으로 와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도 새하얗게 질려있었고, 식은땀을 흘린 듯했다. 심지어 아파보이기 까지 했다. 만약 내가 엘킨이었다면, 아마 우리엄마는 의사를 불러 침대에서 쉬게 했을 텐데 이모는 마차에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단지 인사로 손만 흔들 뿐. 기사가 엘킨의 가방을 마차에 넣는 사이 엘킨은 나를 향해 다시 손을 흔들며 마차 문을 살포시 닫았다. 나도 손을 흔들어 보이며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들었다. 부디 미래의 부인과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며 그를 닮은 빨강머리 아이들을 많이 낳길 빈다. 그들의 머리위에 축복이 가득하길.

난 이제 산토끼나 찾으러 가야겠다.

제6장

8월7일

-라퐁젤의 이야기-

갓난아이처럼 영영 울 나이는 아니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나는 더 이상 이 깔끄러운 지푸라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보다. 오늘 아침에도 마술처럼 나타난 죽과 치즈가 가득한 접시를 봤는데도 입맛이 없다. 사마귀 난 얼굴의 그 마녀는 나를 이곳에 가둬놓고도 아직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아, 이게 모두 그냥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정말! 그냥 단순히 지나칠 악몽일 뿐이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다정하고 상냥한 우리 부모님이, 저 마녀에게 도라지 따위를 받고, 나를 팔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 말도

4) 그레이트 잔디: Great Lawn, 성 안에 있는 잔디 밭

안 되는 소리지! 잠깐 낮잠만 자고 일어나면, 우리 고양이 ‘호박이’가 내 발 위에 자고 있고, 부드러운 닭털 매트리스가 깔린 내 침대위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잘 자!

저녁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헐사리 뜰 수가 없었다. 그래! 내 발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르랑 거리고 있잖아! 집이구나! 재빨리 눈을 떴는데 결국 집이 아니었다. 신기한 것은, 내 발등에 진짜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을 해봤다. 작은 오렌지 빛깔의 내 발 크기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어젯밤, 박박 긁고, 후다닥 소리도 내고, 숨을 내몰아쉬며 돌아다니던 주범인가보다. 이름을 ‘키티 아가씨’이라고 지었다.

이 녀석이 온 뒤로, 난 좀 신이 났다. 여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디에 숨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지가 생기게 되어 기쁘다. 여기에 나 말고 생물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저 조그만 창문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보니, 하루가 또 다 가버렸다. 아직도 부모님은 모시지 않았다. 아침에 건들지도 않았던 음식접시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 그냥 먹어둘걸, 배가 꼬르륵 거린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는 엄마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내일 아침을 먹을 때까지 시간을 때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먼저, 삼발이 된 머리를 풀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마녀처럼 보일 것 같았다!

머리에 있는 모든 핀들을 빼고 나니 거의 삼십분 정도 지난 것 같다. 내 소유물들을 목록에 써놓고 가방에 잘 넣어뒀다. 머리를 드디어 풀고, 흔들며 빗어대기 시작했다. 아니, 빗으로 찌르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영킨 머리를 다 풀어내니 해가 졌다. 양초를 켜 밑에 부분을 약간 그을려 저 작은 나무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다. 내 머리카락이 거의 발까지 닿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티 아가씨가 신나서 울며 내 머리를 타고 올라오려 했다.

“어머! 그만해 키티 아가씨! 아프단 말이야!”

“지금도 아파?” 하며 신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네가 불편한건 싫어.”

주위를 둘러보니 방안 양탄자 가운데 마녀가 서 있었다.

“어디서...아니 어떻게...어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키티 아가씨는 바닥을 파는 시늉을 하며 내 옆에서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네겐 중요하지 않잖아,”라며 나에게 한걸음 다가왔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려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테이블의 초 옆에 따뜻한 음식이 담긴 접시를 올려놓았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기 싫었지만, 돼지고기 구이와 콩, 당근이 담긴 음식에 눈이 갔다. 심지어 머그잔에 담긴 차도 바삭하고 신선해 보였다. 그렇지만 헤이 해지면 안 돼! 손을 엉덩이 위에 놓고 사나운 표정을 해 보였다.

“여길 봐, 마녀,” 최대한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현실을 직시해보면, 전혀 위풍당당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날 지금 당장 여기서 빼내어 주는 게 좋을 거야...그렇지 않으면...올가미에 교수형을 받는 꼴이 될 테니까! 더 무섭게 보이려고 발을 내딛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냥 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가 한 짓이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내가 겁준 후에야 깨달은 모양이다. 집에 가면 뭐부터 할까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다. 음, 먼저 목욕을 하고, 물론, 내가 맛볼 수 없었던 내 생일 아몬드파이를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갑자기 마녀가 웃기 시작했다. 배를 부여잡으며 진짜 크게 웃었다. 머리를 젖히면서 깔깔거리고는, 우락부락한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야, 이 바보 같은 애야. 바보 같은 라퐼젤, 내가 12년 전에 지어 준 이름이야. 네 부모님은 널 찾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꺼다. 우리는 마을에서, 길가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든. 아주 외딴 곳이지. 아마 널 찾아오는 것들이라곤 새와 파리들 뿐 일걸. 물론, 나를 엄마 호텔이라고 불러도 된다. 우리는 아마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다시 웃었고 나는 움찔했다. 그녀가 내 이름을 지어줬다니 무슨 말이지? 엄마는 대모가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따서 나에게 라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잠깐! 교장선생님이 도라지의 다른 이름이 라퐼젤 이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난 그 도라지에게서 절대 벗어

날 수 없는 거야? 이제야 엄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엄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게 저 마녀가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하는 순간, 그녀는 오히려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의 예상대로 겁먹은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아 참았다. 그녀는 내 머리를 차분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애야, 머리를 풀어 내렸구나. 태어난 이후부터 쪽 길렀겠지, 그렇지?” 머리카락을 주먹사이로 돌돌 말다가 손가락사이로 늘어뜨렸다.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제 생일날 잘라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러기도 전에 저는 비참하고 참혹하게 유괴되고 말았죠.”

마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입을 삐죽거렸다. 그 다음, 신나고도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나보고 창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라고 했다. 반항을 해보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져서는 키티 아가씨를 집어 들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마녀가 아주 유심히 나를 지켜봤다.

“그 고양이는 어디서 났니?” 라며 비아냥거렸다.

등을 돌려 내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는 소리를 감추고 싶었다. 키티 아가씨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녀아줌마.” 손으로 키티를 감쌌다.

“내가 엄마 고텔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당장 창문 쪽으로 가! 네 머리카락을 다 땅을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마라. 걸레처럼 머리를 질질 끌고 다닐 나이는 지나지 않았니?”

“저도 알거든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원래 자르려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창문 쪽 가리켰다. 대화의 맥이 끊겼다. 게다가 아직 머리카락을 한 번도 혼자 땅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항상 엄마가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직접 땅아 준다고 할까봐 두려웠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밧줄로 땅아본 적은 있으니 비슷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엄마가 하시 던 대로 내 두꺼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

다. 두 손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머리카락을 잡고 엄마가 따주신 대로 따라 해 봤는데 한 이십분 정도가 걸린 것 같다. 다 땀고 나니 팔이 너무 아팠다. 창틀에 손을 올려놓고 기대어 쉬며 나무들 틈 사이로 바람을 느꼈다. 하늘에 낮게 뜬 달이 숲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 빛이 이 탑 안까지 미치지 못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하나 뿐인 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찾아 다니시겠지. 난 아직도 부모님이 날 찾으러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어떤 바위 하나, 탑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거야. 마녀가 분명 나보고 머리를 다 땀으면 뒤돌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느니 차라리 이 밤하늘을 보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오독오독 뭔가를 씹으며 굼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 마녀가 뭐하고 있는 거지? 슬그머니 어깨 넘어 고개를 돌려보았다. 다행히도, 마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키티 아가씨가 내 돼지고기 구이를 신나게 뜯어먹고 있었다.

제7장

8월7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보통 때 내가 같으면,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 엄마는 이모가 엘킨을 데리러 와서 자기 얼굴도 보고가지 않았다고 빠져있었다. 엄마는 당신이 더 잘난 왕과 결혼해서 동생이 질투를 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계셨다. 그녀는 재봉과 자수를 하며 하루를 다 보냈다. 새로운 옷을 만드실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 항상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하셨다.

나는 여기 내 일기장에 전에 괴롭혔던 그 산토끼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번 써 보았다.

1. 일단 모든 산토끼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2. 내가 만약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엉덩이가 갈색 점박이고 몸을 숙여 대화를 시도하자 눈을 깜빡이며 다시 달아나 버린다면 내

가 쫓던 산토끼가 맞을 것이다. 아마 성 주변의 시골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겠지.

3. 시골아이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볼 때, 마주 보다가 혀를 쑥 내밀면 웃으며 도망갈 것이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랑 내가 잘 지낸다는 증거다.

4. 그 아이들은 성에 있는 우리 집과 조금 다르게 산다.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가족들처럼 호화로운 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의 집에 가본 적은 없다. 성문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친구라고 부를만한 아이는 단 한명도 없다. 심지어 앤드류와 나는 계층이 다르다 보니 우린 비밀 친구 같은 존재이다. 서로 책도 빌려보고 자정만 되면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남겨진 자두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다. 그는 책을 최대한 많이 읽는다. 조만간 그는 대지주가 될 것이고, 나중엔 언젠가 기사가 될 몸이라 앞으로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관대한 왕이라, 왕국 안에서는 그 누구도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본 집에는 그런 안락함은 없었다. 벨벳소파도, 여러 명의 하인들도 없었다. 돼지와 닭들이 익숙한 듯이 집 안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 산토끼가 도망갔을 때 (어느 순간 내 산토끼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주 바라보다 혀를 내밀었을 때, 왠지 내가 좀 지나치게 열심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기뻐 날뛰다가 내 안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말총목걸이에 달린 그 안경은 아니다. 사실 그것도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시간문제이다. 사실, 그 어떤 안경도 오래 갖고 있어 본적이 없다. 이번 것은 상인이 내년 겨울에 성에 오기 전 까지 남은 마지막 안경이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더듬거리며 안경을 찾다가, 안경 콧등이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 한쪽씩 안경알을 끼고 보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유일하게 혼자서 온 것 중 가장 멀리 나왔다.

나는 이 물골을 해서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가는 길에 수확 때가 다된 귀리와 보리 같은 여름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는 농부들을 보았다. 모르는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없어진 나를 찾으라고 엄마가 보낸 왕실 근위대가 아니기 만을 바라고 있었다. 다행히도 열한 두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긴 갈색 옷옷에 샌들을 신고 있었다. 어깨에는 막 따온 포도가 가득 든 자루를 메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왕자님?”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곧 굽어 서툴게 인사를 하였다. “한 번도 성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조금 놀랐고, 바로 대답을 해줄 수도 없었다. 내 직위 정도면 이상하게도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알고 있다. 내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경이죠? 부러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부러진 안경과 먼지투성인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전혀 왕자처럼 보이지 않았을 터이다.

“우리 아빠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왕자님만 괜찮으시다 면요.”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든 고칠 수 있거든요.” 아빠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대신 질문을 했다. “저희 집에 가실래요? 여기 마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요.”

망설였다. 아이가 너무 진심어린 말투이기도 했고 사실 집 구경도 가보고 싶기도 했다. 게다가 분명 밤이 될 때까지 비틀거릴 것이 분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벌써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나를 찾으러 왕실 근위대를 풀었을 것도 같고.

“고마워, 그렇게.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내가 말했다.

그 소년은 어색한 인사를 다시 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숲길을 지나 같이 거닐며 말했다. 팔에 약간 압박이 느껴졌다. 그가 나를 인도해 주었다. 마을입구에 다다르자 내가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벤자민 이에요, 왕자님.”

그를 향해 활짝 웃어보였다, “나랑 같은 이름이네!”

그는 당황스러웠다. “네, 맞아요. 왕자님, 왕자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왕자님이 태어나신 후, 3년간은 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벤자민 이거든요.”

나는 가던 길을 멈춰 서 얼음이 되었다. “장난이 아니라?”

“네...아...아니 예요. 모르셨나 봐요?”

“응 몰랐어.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든.” 성에 돌아가면 아버지와 좀 대화를 해보아야 하겠다. “혹시 벤자민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숨을 죽이며 물어봤다.

다른 벤자민이 말하길, “제가 알기론 한, 이 마을만 해도 50명은 넘을 걸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뻔 했다! 내 이름을 딴 아이들이 50명이라고? 와, 이 부담감을 어찌지! 만약 내가 역사에 길이 남길만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도 창피해 할 거야.

“어, 괜찮으세요? 벤자민 왕자님? 얼굴이 새 하에 지셨어요.”

몇 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가던 길을 걸었다. 아이들이 사방팔방에서 웃고 엄마를 피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생선가게에서부터 퍼져오는 생선비린내를 참아보려 무단이 노력했다. 정육점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옆에 있는 다른 벤자민은 이 풍경이 익숙한 모양이었다. 대장간에서 싸우던 두 아저씨가 우리가 지나가자 하던 일을 멈춰서고 “안녕하세요, 왕자님,” 하며 멋쩍게 말했다. 아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겠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내가 마을로 이끌려오던 모습에 의아해 했을 것 같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귀통이를 돌아 다른 벤자민이(그냥 그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그냥 흠과 지푸라기, 돌멩이로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아주 작은 원형모양의 집으로 안내했다. 초가지붕 한 가운데 있는 구멍사이로 그의 어머니가 불을 지피면서 나오는 연기를 빼내고 있었다. 안경알을 치켜 올려보니 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같이 온 것을 눈치 채고 허둥지둥하며 일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옷에 먼지를 털어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다. 그는 둥글둥글하고 자상하게 생겼다. 남동생은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냥

내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빠, 제가 벤자민 왕자님께 아빠가 그의 부러진 안경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색함을 깰만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부러진 안경을 확인하라고 내어주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며 윙크를 하는 듯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벤자민의 어머니가 건포도 케이크와 마실 차를 주셨다. 아주 맛있었다. 집이 작아도 아주 아늑하였다.

십 여분이 지나고, 실과 무슨 작은 병에 든 접착제를 몇 번 칠하고 나니 안경이 기적처럼 말끔히 고쳐졌다. 언제 부러졌었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했다.

안경을 써보았다. 이 전보다 훨씬 잘 맞았다.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이시네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장인이라고요?” 그의 남동생이 소리쳤다. “똥 더미나 치우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른 벤자민의 어머니가 “숫, 조용히 해!” 라고 말했다.

다른 벤자민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조금 더 경직된 모습으로 말했다. “안경을 만드는 일은 뭔가 불안정한 일이지요. 몇 명이나 안경이 필요한지 모르니, 대부분 똥 더미나 치우고 삽니다. 그게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이거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한 번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직업이 좋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많은 것을 잇고 살아온 것 같았다. 손을 내밀어 최대한 왕자 같은 목소리로,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그와 다정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나와 이름이 같은 아이에게도 “다른 벤자민, 너에게도 고맙다.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다니 말이야.”

다른 벤자민은 얼굴이 빨게 지며 어설픈 인사를 해보였다.

마을길을 걸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의깊이 관찰했다. 대장장은 계속 청광을 두들겼고, 통 만드는 사람들은 통을 만들기 위해 금속덩어리 가장자리를 구부려 트리고 있었고, 농부들은 밀이 담긴 들통을 방앗간으로

끌어 나르고 있었다. 갑자기 내 옆으로 몇 명의 벤자민들이 지나갔는지 궁금해 졌다.

자신의 꿈을 좇아 사는 사람들 보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똥 더미도 마다않고 치우며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존경심이 들었다. 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해. 이제 내가 바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앤드류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그는 그가 받고 있는 기사훈련도, 귀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줄 테니까 말이다. 분명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제8장

8월7일

-라퐁젤의 이야기-

이곳에 온 이후, 여태 먹고 마신 것을, 뭐랄까 몸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저 마녀가 내 음식에도 마법을 걸어 내가 볼일도 못 보도록 하지 않았나 싶다. 이 방에는 요강도 없으니 차라리 잘되었다. 그렇다고 절대 창문 밖으로 볼일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9장

8월7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앤드류와 나는 야밤에 자두 케이크를 먹었다. 옆에 보니 부엌 모퉁이에 저녁담당 요리사가 맥주 여섯 잔을 마신 채, 간의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의자에서 잠이 들면서도 넘어지지도 않는지 그것이 항상 신기했었다. 심지어 그 오래된 나무의자가 흔들리지도 않다니. 이제야 알게

된 이야기인데, 만약 성안에 있는 가구들이 너무 낡아 오래되면, 하인들 있는 구역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이 오래된 의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엉덩이들이 거쳐 간 나머지 닳은 자국 때문에 누구 엉덩이든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레이트 회장에 있는 의자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항상 새것으로 바뀐다. 근데 그게 더 나은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50명?” 앤드류가 놀라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50명이나 되는 작은 벤자민들이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야, 그건 진짜 섬뜩하다.”

“아주 어린 애들도 아니야,” 그에게 말했다. “몇 명은 우리보다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하지 않는걸.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앤드류는 케이크를 한입 더 베어 물고는, 음식이 가득 찬 채로 말했다. “진짜 놀랄 법도 하지, 정말로.” 이번엔 내가 고개를 저을 차례인가. “그렇게 음식이 가득 찬 채로 말을 하다가는 대지주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 거야. 그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 ‘대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기사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그래, 나도 알아,” 무릎위에 있는 케이크 부스러기를 치우며 말했다. “그 속담은 애기 때부터 쪽 들어왔어. 걱정 말게나 친구. 설마 내가 칼 솜씨를 뽐내면서 자두 케이크를 훔쳐 먹지는 않겠지.”

“그건 두고 봐야 알지,” 하며 웃어보였다. 조용히 내 케이크를 먹으며, 창문 너머로 마치 새까맣게 잉크 칠을 한 것 같은 어두운 하늘을 내다보았다. “앤드류, 넌 정말 행운아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기사를 우러러 보잖아. 그 50명 넘는 벤자민들도 너의 능력과 기품에 감탄할거야.”

“왕도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 라고 앤드류가 맞장구 쳤다. “왕자도 마찬가지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왕이든 왕자든 존경심이나 충성심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지, 보며 감탄하진 않잖아. 그건 엄연히 다르단 말이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없어 똥을 치우면서 안경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물론 내 도움을 받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겠지. 그에게 모욕감을 주고

싶지는 않아. 그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해. 그가 늘 꿈만 꾸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떻게? 성에서 뚝 통로를 더 만들어 그가 더 많은 뚝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나?”

앤드류는 코를 찡긋거렸다.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요리사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직도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의자를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레이트 숲에 있는 비밀의 동굴에 그 답이 있지. 강도들이 붙잡히기 전에 늘 보물을 숨겨놓는 그 곳 말이야. 그런 다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벤자민을 그곳으로 불러. 그렇게 되면 그 보물에 반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지. 동정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거고.”

“무슨 동굴이요? 그리고 강도? 보물? 너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앤드류가 웃으며 말했다. “숲에 숨겨진 강도 동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걸음마를 때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인생에서 모르고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

내 절망적인 기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앤드류가 케이크 마지막 한 입을 나에게 주며, “죄송하옵니다. 왕자님. 놀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야. 동굴이야기는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뚝 통로를 넓히는 것 보다는 확실히 괜찮아. 성 밖에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보물 동굴에 있는 보물들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거야. 지금쯤이면 누가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아,” 의자를 뒤로 기대며 말했다. “그건 도둑질이야. 그리고 곧 잡힐 거고.”

“잡힌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대한 털 복숭이 거인, 트롤⁵⁾이 그 동굴 입구를 지키

5) 트롤: (북유럽신화) 트롤 ((지하나 동굴에 사는 초자연적 괴물로 거인 또는 난쟁이로 묘사됨))

고 있어. 아무도 근처에 갈 생각도 없지. 심지어 기사들도 말이야.”

“거인?” 믿기지가 않아 덩달아 말했다. “장난치지 마.”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앤드류가 답했다. “장난이 아니야. 네 긴 다리만큼이나 진심이라고.”

이래서 내가 앤드류 같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아무도 감히 왕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6년 전, 앤드류가 이곳에 처음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키가 똑같았다. 몇 년이 지난 후, 갑자기 내 다리가 길어지면서, 거의 발 하나 정도 길이로 키가 쑥 자랐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네 말은 숲 어딘가에 거대한 털 복숭이 거인이 지키고 서있는 강도들이 숨기고 간 보물이 가득 한 동굴이 있다는 거지. 맞지?”

“그렇지,” 앤드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등불의 어둑어둑한 빛에 그의 하얀 치아가 더 반짝였다. 기억해 났다가 다음에 치아를 어떻게 닦는지 꼭 물어봐야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거인은 무시무시해서 왕국에 있는 그 어떤 기사도 그와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 맞아.”

“그렇다면 가장 용감한 기사도 이 거인 앞에서는 별별 떠나는 이야기고, 그럼 나, 벤자민 왕자는 숲에 가본적도 없는 내가, 이 거인을 무찌르고 보물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야?”

“응!” 하고 앤드류가 열광했다. “그렇게 되면, 넌 영웅이 되는 거야.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감탄하겠지. 순회 음악가들은 정말이지 너의 위대함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다닐 것이고.”

“정말이지 당신은 위대 하군요, 노래해!” 요리사가 잠꼬대하며 중얼거렸다. 눈꺼풀이 떨렸지만 감겨있었다.

“숫, 이리와,” 앤드류에게 속삭였다. 의자를 빼며 바닥에 끌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등불로 길을 안내했고 침실이 있는 이층으로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내 침실 문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 내 생각엔 거인과 싸우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렇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어 고마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모퉁이 옆 그의 방으로 향해 들어가기 전에

말했다. “곧 당신을 찬미할 것입니다!” 어둠속으로 사라지며 휘파람을 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나와 엘킨이 붙잡혔던 그날 밤 어릿광대가 불렀던 노래였다. 진짜 큰 거인들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하는 벤자민 왕자의 노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내가 여지껏 용감한 일을 해본 것이라고는 오리를 쓰다듬으려다 연못에 빠진 애나벨을 구하러 뛰어든 것 밖에 없다. 겁에 질린 엄마의 팔에 애나벨을 빠르게 넘겨주고는, 연못 울타리에 다리가 굽혔다. 왕실 의사가 반창고를 붙이는 대신 내 허벅지에 거머리들을 붙였다. 피가 계속 나고 있는데 왜 피를 더 뽑아내려고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연못냄새를 지우는데 거의 2주가 걸렸다.

아버지는 그날 밤 저녁식사 시간에 나에게 경의를 표하며 건배를 제안했고, 나에게 무 파이 한 조각이 더 제공 되었다. 그때도 나에게 대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다.

제10장

8월8일

-라퐁젤의 이야기-

어제 저녁을 많이 먹은 탓에 속이 더부룩한 채 잠에서 깬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처음으로, 아침식사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저녁식사는 마지막 콩 한쪽까지도 너무 맛있었다. 엄마가 싱싱한 텃밭식물과 마술 도라지로 요리해 주신 밥보다 더 맛있었다. 여기 창밖에서는 텃밭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나무꼭대기와 새들만 보일 뿐. 그럼, 이 채소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돼지고기! 숲에서 돼지가 뛰어다닐 리는 없을 텐데.

키티 아가씨는 밤새 내 팔을 베게삼아 잤다. 난 오히려 그녀의 온기가 너무 고마웠다. 새벽에 자주 깨는데 일어 날 때마다 뭔가 반복적인 숨소리가 들렸다...그런데 고양이의 소리는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바짝 일어나서 미친 듯이 촛불을 켜서 방안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일에 초를 다 써

버리다니 참 바보 같다. 초가 5개나 있었는데 삼일 만에 다 써버렸다. 곧 해가 질 터인데 전혀 기쁘지 않다. 희미한 달빛 말고는 껌껌한 어두움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구름이 꺼서 달빛도 안 비추는데 또 그 숨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밤이 오려면 한참 먼 것 같긴 하다. 나의 하루는 종일 텅 빈 공허함만 느껴진다. 만약 지금 집이었다면 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부엌에서 엄마의 가사 일을 도와주거나, 하모니카를 연습하거나, 옷을 수선하거나, 왕자와 공주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여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거나, 동네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거나, 아빠와 텃밭손질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내년 학교를 대비해서 선행을 한다든지 했을 것이다. 그래, 솔직히 마지막 것은 아니었을 거야. 어쨌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바로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여자이다. 그 어떤 여자도 나만큼 도움이 필요할 수는 없지 않겠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머리를 쥐어 짜 생각해 보았다. 아마 그 여자가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여기에 이려고 앉아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진 않겠지. 탈출할 방법 따위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벌써 모든 돌 벽들을 밀어 보았지만 움직이는 벽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창문밖에 들어왔다고 해도 나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 뿐 이겠지. 창문으로 나가서 이 탑의 벽을 타고 내려가는 수밖에. 아빠는 가끔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최선책이라고 말씀하곤 하셨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오히려 무서워 질 것 같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내 옷 속 안주머니 안에 키티 아가씨를 넣고 내려 갈 준비를 했다. 창틀 선반에 올라타기 전에, 탄 머리를 핀으로 꼼꼼 묶어 고정시켰다. 물론 불가능 한 일이겠지만, 어제이후로 머리가 한발 만큼이나 더 자란 것 같다. 이제는 걸어 다닐 때 바닥에 머리카락이 끌린다!

예정대로 땀은 머리카락을 창문 밖으로 먼저 빼 놓고, 창문으로 기대서 난간에 걸터앉을 수 있을 때 까지 올라갔다. 그런 다음 몸을 획 돌려 밖에 다리로 매달려 있었다. 양손으로는 창문 벽 안쪽을 잡았다. 실수로 밑을 내려다

봤다가 결국 벽만 더 세계 붙잡았다.

절대 밑을 보지 마.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힘을 모으고 있었다. 이게 얼마 만인지, 바깥 세상에 다시 나오니 기분이 좋기는 하다. 내 폐에 맑은 공기를 다 넣어 가겠다는 다짐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양손으로 창문틀을 잡고 뒤 돌아 탑에 대롱대롱 매달려있었다. 키티 아가씨에게 자리가 비좁지 않도록 최대한 벽에서 멀리 앉았다. 발을 딛을 돌맹이를 미친 듯 찾으려 계속 미끄러졌다. 어떻게 발 디딜 틈도 없지? 정말 오래된 탑인가 보다; 그래서 발 디딤돌조차 바람에 다 닳고 없어졌겠지.

다음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왼쪽 신발이 발에서 미끄러져 버렸다. 신발이 이 탑, 이쪽저쪽에 부딪히며 땅에 푹! 소리를 내며 나무덤불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겁먹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설마 마녀가 이 소리를 들었을까? 여기 근처 어딘가 있는 것은 아냐? 움직이지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래, 움직이고 숨은 쉬어야지. 팔이 정지상태였다. 신발 한 짝 잃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넘어진 게 아니고 운 좋게도 신발만 넘어 진거니까. 맨발을 벽에 대니 벽에 금이 간 것이 느껴졌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아마 가장 간단히 생각 하는 게 최고일지도 모르겠다. 남은 힘을 다해 창문 안으로 다시 올라와 들어왔다. 내가 “침대”라고 부르는 자리에 키티 아가씨를 올려놓았다. 야속한 듯 쳐다보더니 고양이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 깔끔한 녀석이다.

이정도 일탈이면 충분하다. 어쨌든 시도는 해봤으니까. 혼자서는 이곳을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 그게 사냥꾼일 수도 있고, 기사, 또는 지나가는 상인일 수 있겠지. 그게 심지어 악덕 높은 강도여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 아마 내가 구출되기도 전에 마녀에게 들키고 말거야. - 양초가 좀 더 남아있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봉화로 착각할 만큼 연기를 만들 수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그만큼의 성냥도 없고. 방에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해보다 보니 빙빙 원을 그리며 방안을 돌고만 있었다. 계속 빙빙 돌았다. 점점 빨리 돌다보니, 내 치마가 내 무릎위로 소용돌이 쳤고, 머리도 어지러웠다. 머리가 너무 어지

러워 양탄자 더미 위에 쓰러질 때까지 미친 듯이 돌았다.

뭐, 좀 재미있네. 진짜 아주 재밌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나는 팔로 이마의 땀을 닦고 헐떡거리며 누웠다. 아무래도 시간 때우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짓인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몇 초 동안은 머리를 흔들며 놔서 그런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약간이라도 잊을 수 있는 시간 이었다. 다음에 또 해 봐야지. 일어서서 이 고약한 냄새가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것인지 찾기 시작했다. 음...냄새가 뭐랄까...썩은 달걀? 아침을 먹지도 않았고, 마녀가 엿저녁에 달걀반찬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달걀냄새가 난다. 빠르게 일어나 방안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 어디에도 달걀은 없었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네. 점점 냄새가 짙어지면서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다! 내 겨드랑이 냄새라니!

엄마는 항상 아침마다 내 옷들을 빨아 준다. 그렇게 안 하면, 아마 내 생일날 갈아 입을 원피스도 없었겠지. 너무 비참하구나! 엄마가 무슨 옷으로 갈아 입을지 말해줘야 하는데! 처음으로, 진짜 나는 혼자구나 하고 느껴졌다. 아마도 영원히 그럴지도. 키티 아가씨는 식탁에서 또다시 창밖 난간으로 올라갔다. 제발 이곳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실패하는 것을 못 봤나? 그 녀석을 데리고 와 가슴팍에 짹 끼안았다.

내가 고양이 머리에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

이 녀석이 내 품에서 좋다고 가르랑 거리는 동안, 나는 창밖에 새들이 나무와 창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바꼭질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저렇게도 자유로운데 알지 못하고 있겠지. 나도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몸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아마 그 누구도 납치를 당하기 전에는 모를 것이다. 이 상황에 한탄을 하니 몇 분이 흘렀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양이를 다시 작은 식탁위에 올려놓고 내 짐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절대, 이 악랄한 마녀가 나를 힘들게 만들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어. 물론 우리 가족들로부터 나와 좋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앗아가 버렸지만, 절대, 냄새까지 나에게 두지 않겠어!

내가 가지고 온 다섯 개의 원피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옷을 골랐다. 학교에 첫 입학 하던 날에 엄마가 사주신 옷이다. 엄마가 처음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상인에게서 사주신 것이다. 옷깃에 파란 주름이 가있는 반팔 상의에, 밑 부분은 무릎위로 주름이 가있는 흰색 치마이다. 생일 원피스는 벗어서 짐 가방에 벗어던지려 했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옷에 냄새가 다 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색 줄무늬는 이제 이 탑의 먼지로 회색빛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빨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엄마가 양의 살과 재를 섞어 그녀만의 특별한 세제를 만들어 빨아서 향기롭고 상쾌한 라벤더와 비슷한 향이 나는 새로운 원피스를 입었다. 가끔 아빠가 셔츠를 밖에 두어 바람에 냄새가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아마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싶기도 하다. 창문 왼쪽에 우리가 달려 있었는지 쇠붙이들이 달려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옷 장식으로 쇠붙이에 그 원피스를 잘 고정시켜 걸었다. 원피스의 밑 부분이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숲은 소나무와 삼나무 냄새가 난다. 나의 기발한 해결책이 참 마음에 드는 순간이다. 분명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원피스도 새것처럼 좋은 냄새가 나겠지.

내 뒤에서 푸덕 소리가 나 길래 키티 아가씨가 식탁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나 싶었다. 뒤 돌아 보니 아직도 식탁에 누워 햇바닥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럼 푸덕 소리는 어디서 난거지? 주위를 둘러보니 양탄자 한 가운데 달걀 모양의 물건이 올려 있었다. 몸을 구부려 잡으려 해 보았다. 구리와 유리로 만들어진 기름 등이었다. 그리고 기름이 가득 차 있다니! 아마 몇 주 동안은 충분히 쓰고 남은 정도의 양이었다. 생각보다 좋은 마녀인가? 근데 왜 나를 위해 이런 걸 갖다 놓았지? 저녁때만 꺼내 쓰려고 옆에 잘 치워 두었다. 내가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콩알만큼의 희망이 생겼고, 마녀가 더 일찍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약간 고맙기도 했다. 내가 창틀에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제11장

8월8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엘킨이 다시 돌아오다니! 믿을 수 없어! 이모와 이모부는 엘킨이 “나중에 공주와 결혼할 만한 가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려면 우리 집과 같은 궁전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엘킨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훈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다:

1. 엘킨 또래 남자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더 어린 아이들 (나와 애나벨과 같은)을 웃기기 위해서 방귀를 끼지 않는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엘킨이 방귀를 끼었을 때도 나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 구역질이 날까봐 참는다는 게 웃음소리 같았을 뿐이다. 애나벨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2. 점잖은 행동은 중요하다. 내가 열한 살이 되는 생일 바로 전에 정원사의 가위로 사촌동생(또 나다)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일은 가벼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초상화를 그리는 장인이 하루 종일 내 머리만 색칠하게 만들었다.

3. 절대 남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특히 그 아버지가 왕이라면 더 더욱) 사촌동생들까지 꺾 내어(또 나다) 소파 뒤에 몰래 숨어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목록들이 너무나 많다. 엄마말씀이 조금은 이해 간다. 엘킨은 좀 말썽꾸러기다. 엄마는 엘킨의 예의범절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 해주셨다. 아니지, 마치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하지만 엄마가 나한테 굳이 권하지 않았더라도 나도 그 수업을 들을 까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것은 모를 것이다. 이제 나만을 바라보는 다른 벤자민들이 50명이나 되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예비 왕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뭔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내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앤드류에게 내 손위에 있는 (상상속의)반지에 경의를 표하도록 연습을 해보였지만 내 행동에 그다지 호응해 주지 않았다. 아직도 나한테 약간 빠져있는 것 같다.

제12장

8월8일

-라퐁젤의 이야기-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너무나도 쉽다. 마녀가 내 다음 식사를 들고 왔을 때 잠자는 척 하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을. 원래 내 계획보다 훨씬 간단하잖아! 오늘 기름 등을 가져다 줄 때도 밥을 안두고 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 이니까, 밤이 깊기 전에는 나타나겠지. 나는 내 “침대”에 누워서 거의 실눈을 뜨고 있었다. 시간은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갔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야? 내 음식에 뭘 넣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게 무슨 냄새지? 청어인가? 따끈따끈한 빵?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 눈을 감고 있지도 않았는데 금세 마녀가 왔다 갔을 리가 없잖아. 곧 후루룩 소리가 들렸다. 재빠르게 키티 아가씨를 보니 삶은 청어와 먹물 빵이 올려있는 식판 옆 그릇에서 염소우유 할짝할짝 훤아 먹고 있다!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아서 음식을 계شم츠레 보고만 있어야 했다. 세상에 내가 깜빡 졸았다니! 최악의 스파이군!

재빨리 식탁으로 가서 키티 아가씨와 함께 저녁밥을 먹었다. 이 마녀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는 그렇게도 잔인하게 굴면서 고양이한테는 그릇에 우유를 줄 만큼이나 친절하단 말인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가 보다. 내가 꼭 뭐든 찾아내고야 말겠어.

결국엔, 난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8월9일 다음날,

다시 금세 잠에 들었다 그리고는 창문에서 빛이 새어 나와 잠에서 잠깐 깬는데 마녀가 한손에는 내 생일원피스와 다른 한손에는 내가 떨어뜨린 신발

한 짝을 들고 내 침대 옆에 서있었다.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게져있었다. 뭔가 불안해서 본능적으로 허둥지둥 뒷걸음 쳤다. 양고기와 우유에 대한 감사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가지고온 것들을 내 눈앞에서 흔들여 보였다.

“내가 왜 이것들을 덤불들 사이에서 찾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겠니?” 어금니를 짹 깨물며 말했다.

창문틀에 원피스를 걸어뒀었는데 바람이 불어날라 갔나 보다고 재빨리 설명을 했다. 신발은 좀 설명하기 어렵긴 했다. “음, 어젯밤 꿈속에 용이 나타나서 용한테 던졌던가?” 그래, 세상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 하지는 안으니까.

시커먼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을 회피하지는 않았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왕 거짓말을 할 거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바보 같은 계집애,” 조롱하는 듯 웃었다. “세상에 용 따위는 없어.”

“나도 세상에 마녀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창문을 아예 막아버릴까?”

“제발, 그것만은 안돼요!” 바깥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인데 그것마저 잃을까 봐 겁에 질려 빌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 약속 할게요.”

“그 약속 꼭 지킬 수 있길 바란다.” 내 짐 가방에 옷과 신발을 던지며 말했다. “나는 절대 두 번 경고 하지 않아. 창문 옆에 서서 너의 건방진 말버릇도 지켜볼 거야.”

창가 쪽으로 재빠르게 달려갔다. 주머니에 뭔가 묵직한 게 있었다. 내 거울! 어젯밤에 이곳에 쑤셔 넣었나보다. 머리를 굴려보았다. 허리를 좀 구부려, 원피스 주머니에 손을 뻗어 천천히 거울을 꺼내 허리춤에서 꺼내 보았다. 그리고는 뒤집어 내 뒤에 뭐가 있는지 보기위해 내려다보았다. 만약 심장이 너무 뛰어서 터지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 내 심장이 딱 그렇다.

됐다! 이제 침대와 식탁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마녀는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다. 구석에 뭔가 보여서 약간 위로 더 기울려 보았다. 천장에 뭔가 당길 수 있을 것 같은 밧줄 같은 것이 보인다! 거울을 더 기울려 보니 밧줄은 사라졌고 들창도 소리 없이 닫혔다. 천장에 들창이 있다니! 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지금당장 노래를 부르든 춤이든 추고 싶다. 웃고 또 웃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일만 남았어!

제13장

8월9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우리 수업이 이제 시작되었고, 아버지께서 선생님입니다. 손뼉을 한번 치시니, 하인 한명이 양옆에 베개 위에 금 왕관 두 개를 들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한 왕관은 나에게, 다른 왕관은 엘킨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위풍당당한 자세를 연습해 보겠다.” 뒤에 서서 우리 허리를 곧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엘킨과 나는 서로의 머리 위를 쳐다보았다. 여섯 살 때, 아버지의 왕관을 훔쳐서 쓰다가 너무 컸는지 목으로 미끄러져 어깨에 걸렸던 사건 이후로 처음이다. 그런데 또 만약 왕관이 내 목에도 맞지 않았다면 그 또한 웃겼겠지. 지금은 내 머리에 딱 잘 맞는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있긴 한가보다! 아니면 머리만 커지는 건가. 어쨌든 기분은 좋다.

“허리를 곧바로 펴고,” 아버지께서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머리는 정면을 보고, 살짝 턱도 들고 팔은 양쪽으로 바로 펴.”

등에서 푹푹 하고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난다. 도대체 내 자세가 좋지 않다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지? 늙은 할아버지 같잖아!

“이제 왕은 품위 있고 정중해야해. 만약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거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제 때 낸다면, 인정해 줘야해. 왕은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아 그래도 약간 고개는 끄덕여 줘야해, 이렇게 말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서 엘킨과 나는 그런 그를 따라했다. 엘킨이 훨씬 잘했지만. 내가 목이 길어서 그런지, 마치 닭 모가지 같았다.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엘킨이 속삭였다, 다행히 아버지는 듣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너무 크게 고개를 숙여 망신스럽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너무 열심히도 연습을 해서 그런지 목이 다 빠근하다. 목이 너무나도 걸려서 왼쪽

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원하셨다. 나는 차라리 왕실 안마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다. 향
상 의사들은 거머리들로 후딱 해결해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제14장

8월9일, 잠시 후

-라퐁젤의 이야기-

아직 출구를 못 찾았다. 왜냐하면 도대체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내가 그것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천장은 내 키보다 다섯
배나 높다. 뛰어도 손에 닿지도 않는다. 식탁 위에 올라가도 별로 도움이 달
지 않았다. 식탁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도 반쯤 닿을까, 그게
전부이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새롭게 갈아입은 내 월피스가 더러워져서 이제
갈아입어야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주말쯤 되면 더 이상 입을 옷들이 없
을지도 모른다! 이번 것은 창문에 걸지 말아야겠다. 밤에도 걸지 말아야지,
생일 월피스가 아빠의 오랜 양말냄새가 단다. 아직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아
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아무도 냄새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을 테니
까. 이렇게 탐에 갇힌 여자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

저렇게 손이 닿지 않아 애간장 타는 출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검
게 타버린 성냥으로 바닥만큼이나 큰 해 그림자를 따라 그리면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혼자 놀기라도 해야 한다. 키티 아가씨는 여기 내 옆에서
내가 그리는 선을 그으면 따라서 장난치고 있다. 하루 종일 바닥에 껌껌해
질 때까지 그림자 따라 선을 그었다. 자연과 소통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라고나 할까. 아빠가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아빠가 텃밭을 가꾸는 이
유는 물론 식물들을 자라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생명의 원천에 더
가까이 느끼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물론, 아빠가 기르고 가꾸던
그 식물들이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지만 말이다!) 그림을 바닥에 다 그리고

는 이제 벽에다 그리기 시작했다. 쓰고 남은 두 개의 성냥개비로, 태어나면서 부터 이번 주 까지만 해도 밤마다 머리를 뉘어 쉬던, 우리 집을 그렸다. 엄마의 바느질 하던 방의 창문도, 굴뚝에서 나오는 작은 연기도 그렸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유괴 당했던 텃밭을 그리자 성냥개비의 재를 다 써버렸다.

방문과 밧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거울을 분신처럼 갖고 다니기로 했다. 손에 쥐고 뒤쪽으로 돌려놓고 창문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숲속이 조용해 졌다. 항상 주위를 맴돌던 검정 새들도 밤이 되니 등지로 날아갔다. 갑자기 거울에 뭔가가 반사가 되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움직이는 걸 잡았다! 마녀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에 내려오자 양탄자에 허리를 굽혀 음식이 담긴 쟁반을 올려놓았다. 그때 바로 알았다;

마녀가 아니었구나!!!

거울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 했지만 다시 바로 잡았다. 그게 누구건 간에, 그는 마녀보다 키가 작았고, 대머리에다 창백한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초록색 피부라니! 겁먹은 탓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가 밧줄을 다시 타고 올라가기만을 기다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서는 문을 달아버렸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진행 되었다. 내 거친 숨소리만 귀에 들릴 뿐.

방의 가운데 달려가서 천장을 쳐다보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양탄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정체가 뭐지? 나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모르겠어서 음식만 바라보았다. 고기 파이, 삶은 달걀 두 개, 젤리 빵, 사이다 한잔, 그리고 우유 한잔이다. 아직까지는 음식이 훌륭해! 배가고파서 이 작은 흰 접시에 달려들려는 순간 흰 가방에 끈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들어서 보니 달콤한 향기가 났다.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그란 비누였다! 라벤더 향은 아니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소나무 향기가 났다.

갑자기 모든 그림이 딱 들어맞는다. 머릿속에 면사포 같았던 안개가 싹 개면서 이제야 확실히 보였다. 그 괴물이 나에게 선물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었

다. 우유 한 그릇, 기름 등, 그리고 이제는 비누까지. 마녀는 모르는 일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의 친절에 감사하다는 표현이 될까? 재빨리 내 가방으로 달려가 송아지 가죽과 깃 펜 그리고 잉크를 꺼냈다. 최대한 깔끔하게 쪽지를 썼다:

작은 녹색 괴물님께,

우유, 등, 그리고 비누까지 진짜 많이 감사드려요. 정말 제가 빛을 졌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는 재빨리 사라지시지 마시고 저랑 이야기도 나눠요. 말동무가 필요하기도 하고 직접 감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진심을 담아,

탑에 갇힌, 라퐁젤로부터

쪽지를 반으로 접어 접시 밑에 끼워두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여기에서는 식사 예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제15장

8월10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위엄 있는 왕이 되기 위해 받은 어제 수업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 되었다. 왕실 안마사에게 목 안마를 받기는 했다 그리고, 동네 약재상이 약초를 갈아 연고로 만들어서 나에게 매 시간마다 바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내가 목에 따듯한 형겅을 두르고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고집부리셨다. 엘킨은 분명 아버지한테 수업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다고 하면 나를 엄청 놀릴 것이다. 지금쯤 그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왕실 정치에 대해 배우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호금도 주며, 또 뭔가 더 배우고 있겠지. 그냥 불공평 그 자체다.

앤드류는 방에 고개를 삐죽 내밀고 물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어떠신가?”
나는 투덜거리며 대답했다. 한손엔 둥그렇게 말린 송아지 가죽, 다른 한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을 들고 들어왔다. 책을 침실 서랍장에 올려놓고 송아지 가죽을 흔들며 보였다.

“그게 뭐야?” 힘겹게 일어나 앉아 물었다.

“바로 그거예요, 왕자님,” 하며 감격스럽게 말했다. “너의 미래!” 끈을 풀며, 노란 종이를 침대 바닥에 펼쳐 보였다.

그쪽으로 몸을 기우렸다. “그레이트 숲의 지도 같은데.”

“맞아, 그레이트 숲의 지도!” 라고 그가 외쳤다. “이것을 가지고 X로 표시된 그 강도 동굴을 찾아야 해!” 그는 지도의 아래 구석진 곳을 가르쳤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 도로 누웠다. “아직도 그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 큰 기사들도 별별 떠나는 전설의 거인을 모른단 말이야?”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침대 서랍장의 책을 집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 왔어.”

“왜 그걸 보기 두려워 지지?”

그는 나에게 한 책을 전달 해 주었고 나는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 인건 아닌지 확인했다. 무늬가 있는 가죽에 오크 덮개에 가려졌지만 군대 군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실밥도 거의 뜯어져 있었다. 안경을 써서도 금박이로 된 제목이 희미해서 눈을 찌푸리며 읽어야 했다. ‘거인: 안과 밖- 사용자 설명서’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됐어.” 그에게 책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 책을 열어보고 싶지 않아.”

책을 건네받지 않았다. “그냥 한번 읽어봐. 그들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있어. 괴물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담겼어 그리고 저 밖의 다른 벤자민들을 위해서도 알아둬야지.”

“진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책에 손을 대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그래 바로 그런 정신이지!” 앤드류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제, 숲에 어떻게 가지? 강도들을 무찌르는 건 너희 아버지가 임명한 왕실 사냥꾼만이 들

어갈 수 있어.”

둘이 그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엘킨이 방에 사과를 베어 물며 들어왔다.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자, 앤드류가 재빨리 낚아 채 돌돌 말았다.

“뭐가 필요해서 왔어, 엘킨?” 자상하게 물었다. 적대감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

엘킨이 미심쩍은 눈으로 앤드류와 말아 올린 송아지 가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6일 뒤, 우리 둘 다 첫 사냥을 시키러 숲에 데리고 가신다고, 너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어.”

앤드류와 나는 서로 바라보며 심장이 조금 벌렁거렸다.

“물론, 네가 더 잘 할 수 있다면,” 엘킨이 덧붙였다.

“당연히 잘 하실 거예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앤드류가 말했다.

제16장

8월10일

-라퐁젤의 이야기-

오늘 일어나니, 내가 쓴 쪽지와 저녁식사 쟁반이 사라져 있었다. 새로운 친구가 읽었으면 좋겠다. 쪽지에 “작은 녹색 괴물”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이라도 알았다면, 그 이름으로 써 줬을 텐데. 그런데 마녀가 읽었으면 어찌지? 유일한 동지를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싶다. 그 작은 친구가 나에게 계속 선물들을 가져다 준 것을 알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위험해 지는 것은 아니겠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한 건가?

그러는 동안, 내 머리카락은 점점 더 길게 자라고 있었다.

제17장

8월11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사냥 날 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에 우리 계획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앤드류와 안뜰에서 만나기로 했다. 거인 책을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막 훑어 읽었고 동굴에서 무엇이든 맞설 각오가 되어있다. 내가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1. 거인들은 덩치가 거대하고, 무섭고, 털이 많고, 항상 배고프다는 것은 늘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것들이 작게는 열매에서부터 크면 말한 마리 까지, 무엇이든 먹어치울 것이 라는 것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책은 거인이 그것을 먹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몇 주 동안은 악몽에 시달릴 것 같다.
2. 거인들은 완전히, 엄청난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다. 그들의 몸에 토마토의 무슨 성분이라도 닿게 되면 독으로 변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먹지 않고도 피부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효력이 있다. 나는 최대한 많은 토마토를 말 안장주머니에 넣고 갈 것이다. 나의 대표적인 방어수단이다.

앤드류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벤치에서 지도를 펼쳐 석탄 조각으로 표시를 했다. “바로 여기가 사냥을 시작하는 지점이야,” 라고 말하며 숲 입구에 작은 X자를 표시해 보였다. “사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숲의 중심부로 향하는데 그게 개울이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 바로 거기에서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타나지.” 라며 강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선을 그렸다. “그런데 사냥꾼 무리들이 조금 멀리 떨어지면 몰래 서쪽으로 슬쩍 빠져, 그러면 거기에 동굴이 있을 거야.”

안 그래도 자신 없는데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진다. “숲에 혼자 가는 것이 괜찮기는 할까?” 라고 물었다. “만약에 동굴 안에 있는 거인이 밖에 지키고 있는 거인보다 더 센 놈이면 어찌지?”

“뭐가 거인보다 더 무서운 건데? 도깨비? 마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는 없잖아. 토마토로 거인을 무찌를 수 있어, 그리고 그것 외에는 역사에 기록 되어있다거나 보물을 찾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도 없다고 나와 있어.”

“네 말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 앤드류,” 하며 지도를 말아 가죽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사냥꾼들과 합류하지 않았는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몰라. 물론 그렇다고 어머니는 네 탓을 하지는 않을 거야.”

오늘아침 처음으로, 앤드류의 웃음은 어디가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차라리 거인을 내가 직접 처리하는 편이 낫겠어.” 라고 말했다.

제18장

8월11일

-라퐁젤의 이야기-

피곤하지 않아도 잠에 잘 드는 것이 왠지 마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이른 오후였고 비누는 짐들 틈에 잘 있었다. 또 눈을 떠보니 나는 “침대”에 뒹굴고 있었고, 탁 저편을 보니 해는 중천에 떠있고 양탄자 위에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재빨리 다가가 접시와 그릇을 들춰보며 내 쪽지에 대한 답장이 있나 확인해 보았다. 우유그릇도 있었고 작은 접시에 정어리도 놓여있었다. 아마도 키티 아가씨를 위한 것 인가보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벌써 고양이가 훔았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 없이 건네주었다. 어쨌든 내 쪽지에 대한 답장은 없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조그만 친구가 마녀에게 걸린 것 같지 않았으니, 사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한숨을 뒤로하고 나무 숟가락을 걸쭉한 야채스튜 안에 넣으려는 순간 위에 완두콩 7개를 발견했다. 두 개가 나란히 있었고, 가운데 한 개, 나머지 네 개가 U자 모양을 띄고 있었다. 작은 녹색 괴물이 나에게 웃는 모습을 그려주었다! 스투를 보며 미소를 띠었고 완두콩을 하나씩 입에 넣었다.

그릇을 훑아 먹은 것 마냥 다 비운 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오늘 밤에 다시 방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 거울로 훑쳐볼 일도 없었다. 해가 곧 지려 하는데도 숲은 아직 환했다. 숲에는 항상 회갈색 나무와 녹색 나뭇잎이 이렇게 두 가지 색밖에 없는 줄 알았다. 이 탑에서 보낸 시간 덕에 알게 되었는데 초록색 나뭇잎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무 아래쪽의 나뭇잎은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이었고, 익은 라임의 녹색; 해가 비취 노란색으로 보이는 녹색도 있었다. 녹색말고도, 무지개 색도 있지. 이 성 아래에 둘러싸고 있는 나무 덩굴은 보라와 빨간 열매들이 있는데 그림에 딱이겠지만 아주 동그랗고 과즙이 풍성해 보였다. 아빠는 아무 산딸기나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셨지만, 아빠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내 창문 서쪽으로 통통한 오렌지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다. 가끔 그것들은 해가 진 뒤에도 마치 초를 켜놓은 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 주말 시장에서 엄마가 집에 오렌지를 사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다. (물론 나와 같이 악랄한 마녀 때문에 탑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서 문제없이 따먹을 수 있겠지.)

등을 키기 전에 하늘에 처음 나타나는 별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 깜빡거리는 초의 심지가 천장에 신기한 그림자들을 만들어 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문에 달린 줄이 낮에 볼 때보다 쉽게 열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과연 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올까? 왠지 해결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벽으로 다가가 내가 그린 오두막집 선을 번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조심히 따라 그리며 걸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겠지. 이전에는 한 번도 혼자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나인데, 이제는 내게 이러한 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강해진 느낌이 다.

“거기 위에 누구 계세요?”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불러 보았다.

아무런 답이 없었다.

또 다시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저기 작은 녹색 친구? 아저씨?” 목소리가 울려 원래 내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답이 없었다. 짐을 뒤져서 천장에 뭐 던질 만 한 것이 없나 찾아보

았다. 최대한 작은 문 가운데로 맞춰 빛을 던졌지만 크게 회전을 하면서 떨어져 전혀 그 문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연고 통도 던져보았는데, 문은커녕 내 무릎에 세계 떨어지기만 했다. 이젠 명들지 말라고 발라야겠다! 이것의 주재료인 도라지 냄새가 난다,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냄새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래도 내 장화는 좀 괜찮았다. 최소한 떨어지기 전에 벽 윗부분에는 닿았으니. 이제는, 던진 물건들에 맞고 싶지 않아서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다. 짐 가방에 모든 것을 다시 집어넣는데, 키티 아가씨가 지푸라기 침대에서 발을 뺐더니 내 땀은 머리에 엉켜버렸다. 머리를 잡아 당겼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머리가 이제는 너무 길어져서 심지어 키티의 발에 엉킨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녀석이 발을 빼려는 순간, 새로운 계획이 번뜩 떠올랐다. 발을 빼주고 짐 가방에서 내 생일에 입었던 작은 은종이 달린 벨트를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는 평생, 내가 납치당하던 날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다.) 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빼서 땀은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고정시키고 있던 핑크(지금은 회색이지만) 리본이 달린 머리끝 부분에 벨트를 묶었다. 원래 땀았던 머리를 풀고, 손을 번갈아 가면서 머리를 다시 땀으려면 머리끝까지 손이 닿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 가운데 있던 테이블을 끌고 와, 위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몸을 테이블에서 던져 머리카락을 공중에 던졌다. 땀은 머리의 끝부분이 꽤 높이 올라갔지만 양탄자위에 거의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벨트의 종이가 울리면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집어 올려 다시 시도해 보았다. 만약 여기 사는 귀신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엄청 웃었을 것이다. 대단히 우스꽝스러워 보일 테니까. 한 여섯 번째 쯤이야, 벨트로 목표지점을 맞췄다. 탑 전체에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정도면 됐어! 만약 그 괴물이 저쪽에 있다면, 분명 들었겠지. 내 “침대”에 앉아 기다려 보기로 했다. 계속, 계속 기다렸다, 내 목이 뒤로 넘어가 더 이상 천장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키티 아가씨는 내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목이 너무 아파 누웠다.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해 보았다. 아마도 웃고 있던 그 완두콩은 나만의 착각이었으나보다.

제19장

8월11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오늘은 세금을 걷는 날이다. 아버지께서는 마을사람들이 세금을 내러 올 때, 옐킨과 내가 옆에 지켜보고 서 있기를 바라셨다. 왕실 세금 징수관이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엄청나게 큰 가죽으로 만들어진 책에 세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심지어 펜도 엄청나게 컸다. 그러나 그 세금 징수원만큼은 아니었다. 아니, 사실 그는 꽤 작다. 심지어 옐킨 보다도 키가 작아서 여태껏 모은 원장 서류들 위에 앉아야 겨우 책상에 팔이 닿을 정도였다. 마을사람들이 동전이 가득한 주머니를 건네주자 그가 그들 이름을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인사를 하니 아버지는 그 보답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옐킨과 나보고 그를 따라하라고 시키셨다. 목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목 다친 곳이 저려왔다. 한 세 번 정도 했을까, 아버지는 이제 목례는 그만하고 차라리 공손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온 마을 사람에게 아주 눈부시고 멋진 미소를 지어보이자, 그 분이 나에게 윙크를 하면서 “안경은 어떻게 잘 맞으십니까?”라고 말하였다. 바로, 다른 벤자민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주 신이 났다. 아버지나 옐킨이 듣지는 않았는지 슬쩍 확인해보았다. 만약 이분이 아버지께 마을에 다녀간 사실을 말해버리면, 사냥에 참여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착실하게 세금을 잘 내시는 좋은 분은, 평생 똥만 치우며 살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징수관과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지만, 옐킨은 꽤 동요되는 편이다. 다른 벤자민의 아버지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네, 아주 잘 맞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라고 하며 긴장한 듯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경코를 들어 보였다.

“제가 다 기쁘네요.”라고 하시며 줄에서 내려가셨다.

아저씨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가시고 나니, 옐킨이 물었다. “도대체 무

슨 이야기를 한 거야?”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 몰라. 내 안경이 맘에 드셨나봐.”

“왜 네 안경에 대해서 묻는 거지?”

“엘킨 조용히 좀 해.”

“쉬...잇,” 엘킨이 양초 만드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민감해질 수도 있어.”

제20장

8월12일

-라퐁젤의 이야기-

새벽 몇 시 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잠이 오지 않는다. 누어있는 내내 뒤척이며, 그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 훨씬 더 외로움이 느껴졌다. 직금 나보다 불쌍한 여자 아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작은 불을 켜다. 어둠 속에서는 원래 자신이 처량하게 생각되는 법이다. 주변의 우울한 이 기운 속에서, 갑자기 어디에선가 큰 소리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참 이상하다. 내가 울고 있지는 않은데, 도대체 누구지?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로 성냥을 으로 등을 켜다. 그러자, 내 눈앞에서 땀 뽕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동그란 얼굴이 보였다. 너무 놀라서 성냥을 떨어뜨렸는데, 그 바람에 내 “침대” 끝에 약간 불이 붙어 타버렸다! 오렌지 빛의 불씨가 슬금슬금 움직여 엄마가 짜주신 솔도 조금 태웠다. 키티 아가씨는 이를 감지하고는 테이블 밑으로 놀라 숨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늘 그런 것처럼 엄청 길게만 느껴졌다), 녹색친구가 그 불빛사이에서 나왔다. 다시 어두워 졌다. 둘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다시 성냥을 집어 별별 떨리는 손으로 등 심지에 불을 지폈다. 방안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 괴물이 사라졌을 것이라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벽에 바짝 붙어있었다. 아니, 반쯤 붙어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깨가 조금 굽어있었고, 고개를 땅에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봤으면 경악을 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흘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이든 남자가 우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조금 불안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지?

목을 가다듬고 “저, 괜찮아요, 녹색괴물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라고 말했다.

“스...스...스티븐,” 그가 숨 가쁘게 대답했다.

“스티븐요?”라고 따라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이라고요?”

숨을 깊이 내쉬며 고른 숨을 내뿜기 시작했다. “왜? 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며 물었다.

어깨를 으쓱대며 “뭔가 더 색다를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색다르다면 라퐁젤 같은 이름 말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라퐁젤은 도라지라는 뜻의 이름이지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를 악 물고 말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길 바랐지만요.”

“나도 좀 더 근사한 이름을 원했지. 아아, 스티븐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지었지. 내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그렇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또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재빨리 다가가 뼈밖에 안남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달래며 말했다. “다 괜찮아 질 거예요.”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손목에는 털이 엄청 많았고 코에서 뭐가 나오던 간에 다 흡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마도 팔에 털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는 털이 없나보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모든 게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거니?”

그의 말이 맞다. 내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음, 그래도 ‘계속 울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테니까요,’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지죠?”

한동안 말이 없다가, 흥분한 듯 웃음이 터뜨렸다. 약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빵을 먹다가 사래 걸린 아빠의 목소리의 중간쯤 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우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우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보니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다.

“우리 일단 앉아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은 어때요?” 라고 제 안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아직도 ‘웃음소리’를 내면서 그를 양탄자로 데려가 둘 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작은 문에 달린 줄이 슬쩍슬쩍 흔들렸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턱에 남은 눈물을 닦고는 말했다, “네 쪽지를 받았어. 내 선물들에 기분이 좋았다니 기뻐. 그리고 네 말처럼 마녀는 모르는 일이어야만 해.”

“역시 아저씨가 맞군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저씨도 마법을 쓸 수 있나요?” “마녀처럼 말 이에요.” 라고 물었다.

약간 슬픈 듯 고개를 다시 저었다. “나는 그냥 장사 수단만 좋을 뿐이야. 여기 수면제도 있고, 발모제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잘해.”

어쩐지 제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빨리 자란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친구할만한 사람은 아닌 듯 싶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재빨리 대답했다. “마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 엄마 고텔 말이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녀의 이름을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 침을 한번 뱉었다. 그리고는 다른 쪽으로 돌려 똑같이 했다.

그가 뱉은 침 덩어리가 내 양탄자에 스며드는 꼴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도 싫은데, 왜 그녀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나도 어쩔 수 없단다,” 그가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그녀가 내 아들을 살려준 대신이거든. 우리는 동굴에 살고 있었어.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지하에 - 그런데 우리 아들 스티비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야. 아무리 목을 움켜쥐며 숨을 쉬려고 해봐도 말이야. 그래서 소리쳤지, ‘도와주세요! 제발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원래는 오로지 무기질이 부족하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를 그냥 데리고 나왔어. 우리의 녹색 몸이 나무와 풀 색 때문에 눈에 띄진 않지만, 보다시피, 우리는 특이한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거든. 밖으로 나오니, 숲은 마치 비가 방금 그친 것처럼 고요했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나이든 여자 뿐이었어. 내 문제를 파악하고는, 무슨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니, 먼지를 좀 뿌리고 나니, 우리 아들 스티비의 목구멍에서 글썽 내 손만 한 벌레가 나오지 뭐야. 그 벌레는 다리가 50개나 달리고, 내 팔뚝만한 더듬이가 달려있고, 눈은 마치...”

손을 들어 멈춰달라고 했다. “아, 이해했어요. 엄청 크다고요.”

“완전히 크지!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이 빛을 갚을 수 있나 물어봤지. 누구든 네 목숨, 아니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면, 평생 빛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요리사와 보초 설 사람이 필요 하다 길래, 나는 사실 그 두 가지 모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내 음식솜씨로 상도 좀 타봤고, 여기 근처에서는 나만큼 큰 종족은 못 봤고, 그래서 자주 동굴 근처에서 보초 담당도 했었고 말이야. 근데 이제야 그 여자가 마녀인 걸 알게 된 거야. 물론, 좋은 마녀라고 생각했지. 어쨌든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두 일을 모두 시켰고 나는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와야 했어. 사실은 내가 정착하게 되면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지. 마녀가 어디 오두막집에 데려다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이 탑에 있는 컴컴하고 퀴퀴한 계단실로 데리고 왔어. 이 탑 다락방에는 매일 요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선반은 어떤 요리사도 탐낼 만한 식재료가 가득해. 며칠 동안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했고 오렌지 과수원에 서성거렸어. 근데 내 음식을 먹일 사람도, 내가 보초서서 지켜야 할 그 누구도 없더라고. 그래서 점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내가 나타났어.” 이쯤 여기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난, 아직도 마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말에 의하면, 네가 아주 심각한 절도죄로 벌을 받으러 이곳에 갇혀 있다는 말을 믿었거든, 그리고 들키지 않게 하루에 한 끼 씩 챙겨주라는 명을 받았어.

“어쨌든 이 수면제 덕에 잠을 좀 잘 수 있었던 걸 잊지 마.”

스티븐 아저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음,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어쨌든, 하루 이틀 지켜보니 네가 전혀 도둑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납치된 어린 여자 아이였어.”

그에게 기대어 그를 껴안아 줄 수밖에 없었다. 뼈 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힘이 세고 유연하고 저 밧줄 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틀림없지. 그에게 굳이 도망치려는 죄수라고 말하기는 싫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저를 풀어주실 건가요?”

“미안하지만, 애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고집을 부렸다. “저를 밧줄로 위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계단실로 내려가요.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마녀가 알아채기 전에 저랑 같이 멀리 가는 거죠!”

매정하게 머리를 내저었다. “마녀에게 내 빛을 갑을 때 까지, 여기 있어야 해. 내 계약을 끝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눈살을 찌푸렸다. 대답하기 전에 애꿎은 양탄자의 보풀만 때고 있었다. “내가 죽을 때 까지. 아니면 적어도 내 아들 스티비가 죽을 때까지는.”

말을 하려다 삼켰다. 이 마녀는 진짜 우리 왕국에서 아니 그 어디에서든 틀림없이 가장 지독한 괴물 같다.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걸 마녀에게 걸리면 분노를 살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조금 기분이 좋아진 듯 보였다. “마녀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네가 슬퍼하는 걸 더 이상 보기 싫기도 했고.”

용감한 스티븐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마다않고 하다니. 나도 아저씨처럼 저렇게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키티 아가씨가 다가와서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스티븐 아저씨의 다리에 가서 부비면서 큰소리로 가르랑 거렸다. 스티븐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들어 안았다.

“네가 이 고양이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참 보기 좋았어,” 라며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 녀석 때문에 네가 재채기 할 까봐 걱정된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키티 아가씨도 아저씨가 주신 선물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던 녀석인 줄 알았어요.”

스티븐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 탑 밑에 덩불속에서 녀석을 발견했는데 네가 동반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마녀가 봤어요! 아저씨가 들킬 뻔 했잖아요.”

“걱정 하지 마,” 라며, 키티 아가씨를 양탄자 위에 올려놓았다. “네 빠른 생각 덕에 난 살았어. 아마 마녀는 네 침대 지푸라기에 고양이가 달려 온 줄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 내가 쓴 방법이거든,” 웃으며 말했다. “스티븐 아저씨, 진짜 영클하시네요.”

“그만해,” 그가 말했다. “부끄러워서 내 얼굴이 다 빨개지네.”

강낭콩 색 얼굴을 한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무례하게 너무 자세히 보지는 않기로 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마녀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만 하나요?”

“그렇지만 나는 죄수가 아닌걸,” 그가 나를 다시 상기시켜줬다. “비록 내가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알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줄게. 네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도, 널 지키고 있어.”

“그렇지만,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갑자기 확인 할 것이 생각났다. “제가 자는 동안 숨소리가 들려서 좀 안심 했었거든요 - 아저씨 숨소리인 것 같은데.”

“내 숨소리가 들린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미소를 지어보였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케서린이 항상 내 숨소리가 좀 크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귀족부인이 부채 펄럭이는 소리보다 크다고, 항상 말하곤 했어.” 곧 얼굴에 미소가 거뒤틀리고 슬퍼보였다.

다시 울지나 앉으셨으면 좋겠다! 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게임을 하나 하자고 제안해 봤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체스를 잘할 자신이 있지만 체스 판이 없다.

“친절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어,” 양탄자에서 일어나며, 스티븐 아저씨가 말했다. 양손으로, 밧줄을 돌려 감았다.

정말로, 이 사람이 (이제 우린 친구니까 더 이상 괴물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옛날에 광장시장에서 한번 봤던 그 곡예사라도 된 듯이 움직였다.

스티븐 아저씨는 그 줄 끝에 다리를 돌려 감고는 말했다, “거의 아침이 밝았어, 마녀가 내 방문을 또 언제, 어떻게 어둡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럼 우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내가 예전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순식간에 하며 밧줄로 기어 올라가는 그를 뒤 쫓아가 말했다. 질문을 하고나니, 벌써 작은 문은 닫힌 상태였다.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라며 문을 닫으며 말했다. 저 문고리들은 다 마술 기름이라도 발린 듯, 아무런 소음도 안 들렸다. 순간 탑이 점점 작게 느껴졌다. 어쨌든,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한숨을 쉬며, 초를 끄고 “침대”위에 누웠다. 스티븐 아저씨의 한결같은 리듬을 타는 숨소리가 들릴 때 까지 귀를 잡아당겼다. 안에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일 만 큼이나 졸린 것 같긴 한데 막상 잠에 들지는 못했다. 뭔가 나를 계속 괴롭혔다. 마치 수수께끼의 답이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무슨 수수께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을 찾는 것이 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았다.

제21장

8월12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엘킨과 나를 거실에 불러 앉아 사냥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일러

주셨다. 여름밤치고는 좀 쌀쌀해서, 벽난로 앞 가죽으로 된 등받이 의자에 셋이 모여 앉아있었다. 엄마와 애나벨도 같이 있었다. 엄마는 새로운 원피스에 자수를 놓고 있느라 바빠 보였다. (물론 크나큰 옷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많은 하인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 바느질을 하는 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신다. 엄마와 나는 예술적인 창의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엄마도 인정할 것이다.) 애나벨은 모아둔 나무 인형들을 가지고 노는 척 하고 있다가, 엄마가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들을 벽난로에 하나씩 던지고 있었다. 나는 저 녀석이 정말 걱정이 된다.

아버지는 큰 활과 석궁의 장점들에 대해서, 또 큰 활로 일본 안에 얼마나 많은 화살을 던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목표물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대해 설교중이었다. 어떻게 짐승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려는 순간, 귀를 막아버렸다. 나는 화살을 던지지 않을 것이니까. 음, 만약 내 토마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거인을 활이나 화살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확실한건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앤드류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곱씹고 있었다. 생각에 먼저 길을 더 빠삭히 알고 있으면, 사냥꾼 무리들 사이에서 없어진지도 모른 채 동굴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벤자민,” 아버지께서 호통 치셨다, “내 얘길 듣고 있느냐?” 내 상상속의 숲은 어디로 가고 나는 다시 벽난로 앞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엘킨은 실실거리고 있었다. 평생 실실 거려서 미래의 부인이 그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쨌든 안 좋아하겠지만 말이다.) “아, 네, 아버지,” 엘킨을 찌려보며 말했다.

“지금, 네 머리가 다친 것 마냥 정신이 팔려 있으니……”

엘킨이 낄낄거리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아들 편도 들어주지 않다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후계자인데, 라고 말하려다 참았다. 아마 내가 거인을 무찌르지 못 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마 우리 아버지는 엘킨을 입양하려 들 거야. 끔찍하군!

“내가 말했듯이, 네가, 음, 그게 사고였다 할지라도, 이게 다 어제 네가 왕

실 활쏘기 연습을 빼 먹어서 인 게야. 엘킨은 목표물에 명중하는데 아주 훌륭했어. 너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낸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네가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거야. 그림자처럼 꼭 옆에 붙어 다니 거라. 나머지 사람들은 널 감시하기 바빠질 게야.”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하다.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냥 보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다. 나는 화가나 벌떡 일어났다. “제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아시다시피 저는 말을 잘 타잖아요. 엘킨 옆에 붙어 다니 필요 없어요. 걸리적거릴 뿐이죠.”

엘킨이 덧붙였다, “맞아요, 이모부. 안 그래도 저는 어서 저녁꺼리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혹여나 벤자민이 동물들을 다 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젊은이가 처음 사냥을 하게 되면, 친형이나 사촌형이 동생과 같이 말을 타는 게 전통이란다. 이런 경우에는, 엘킨, 네가 바로 형이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 같이 말을 타야해. 더 이상 이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거라.”

엄마에게 애원 하는듯한 눈빛을 보냈다. 너무 바느질에 열중하고 계셔서 우리의 대화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다. 나는 의자 뒤에 딱 붙어 앉아 벽난로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엘킨은 꼴 보기도 싫었다, 밑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입 꼬리를 내린 걸로 보아 빠진 게 틀림없다.

“타라 타, 활활 타!” 애나벨이 신이나 팡팡 소리 지르며 벽난로에 나머지 인형들을 던졌다. 엄마는 결국 애나벨이 거의 삼십분 동안 의자에서 뛰쳐나와 이제껏 뭘 하고 있었는지 눈치를 채셨다. 엄마가 갖고 있던 원피스가 미끄러져 무릎에 놓여있던 작은 보석들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바닥이 흰 돌이라 그런지 그것들이 매우 반짝였다. 엄마가 벽난로에서 바로 앞에서 타고 있던 인형을 손으로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두려움에 얼어있었다.

엄마의 코트의 소매에 불이 붙었다! 엄마는 험뎁이며 인형을 떨어뜨렸고, 안타깝게도 다시 불 속으로 떨어졌다. 애나벨은 울부짖으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아버지는 일단 엄마의 팔을 끌어, 방금 그의 책상에 하인이 올려놓고 간, 물 주전자에 집어넣었다. 팔을 빼자, 소매가 찢어졌고 엄마의 손

이 약간 붉어졌다.

아버지는 엄마를 안아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 애나벨이 울부짖으며 뒤를 따라갔다. 정적이 흐르고, 엘킨과 나는 옆드려 작은 바닥 틈에 끼이는 보석들을 주워 가운데 담겨있는 엄마의 바느질 바구니에 다시 주워 담았다. 마침내 엘킨은 나를 보며, “나도 너처럼 그런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 숲에서 나도 혼자 다니고 싶었다고.”라고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로야.”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만약 네 식사거리 사냥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타나서 네 실력을 인정받는다면,” 그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느끼실 거야.”

“별로”라는 말과 “잘 자”라는 말 사이에서 무엇을 말할까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앤드류를 찾기 시작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하니까.

그 후

“이런, 상황이 좋지 않군,” 앤드류가 내 침실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며 말했다. 대지주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며 힘을 키우도록, 20파운드짜리 모루를 치며 걸어 다녔다. 이미 팔뚝 근육이 꽤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꽤 까다롭다며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보물들은 내가 사냥할 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감시 따위가 필요 없을 때 찾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엘킨 말이 맞아. 일단 네 능력을 인정받아야 해. 작은 여우라도 잡으러 갈까? 아니면 산토끼는 어때?”

“절대 싫어! 그냥 나는 사냥이 싫은 거란 말이야.”

“아, 알았어, 애쓰지 마,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침대에 앉아 그가 서성거리는 동안, 지도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동굴로 가는 길을 외워두었다.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으니까.

마침내 바닥에 머루를 내려놓으며 발걸음을 멈췄다. 체념 어린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그냥 엘킨과 같이 가는 수밖에 없겠어.”라고 말했다.

“뭐라고? 너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본데? 엘킨이 어떤 애인지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모든 계획을 망쳐버릴지도 몰라. 보물을 혼자 다 차지하려 들 걸!”

“그렇게 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앤드류가 대답했다. “엘킨이 물론 심술궂고 예의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도둑심보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 게다가 넌 중요한 걸 하나 잊고 있어.”

“그게 뭔데?”

“거인 말이야! 엘킨이 그걸 보는 순간, 반대쪽으로 한걸음에 도망 갈 거야, 너는 물론이고 그 보물들도 뒤로 한 채, 그다음엔, 다른 벤자민도.”

“그런데 아마 나와 같이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사냥꾼 무리들과 붙어 있자고 조르겠지, 아니면 - 더 최악인 건 - 아버지께 일러바치는 거야.” 손을 움켜쥐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앤드류가 어깨를 으쓱였다.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야. 물론, 엘킨은 몇 주 후에는 떠날 것이고, 그렇지만 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냥하는데 데리고 가고 싶은 건 엘킨에게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거니까.”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다. “진짜로?”

앤드류가 눈살을 찌푸렸다. “몰랐어? 네가 받아야 할 훈련은 아마 아직 내년까지는 없을 거야. 사실 이번에 네가 숲에 갈 수 있는 것조차, 다 엘킨 덕분인걸.”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다. 그제야 머리가 돌아갔다. “그래. 엘킨에게 우리 계획을 말하고 잘 해결되길 기대해 보자.”

“잘 되길 기다려보고, 최악상황을 위해 대비해야지, “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그게 기사도 정신이지.”

“좋은 정신이야,” 중얼거렸다. “이런, 나 상처받았어.”

“미안 - 뭐라고 말해야할지 몰라서.”

아픈 어깨를 문질렀다. 이 모험에서 가장 최악인 부분은 바로 거인이다. 아니, 오히려 개구리를 닮은 내 사촌 형일지도 모르겠다. “

제22장

8월13일

-라퐁젤의 이야기-

마녀가 스티븐 아저씨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그리고 꼭 찾아내고 말겠어. 그때까지는 잠도 안자고 밥도 안 먹겠어. 머리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아침마다 점점 더 버거워 지고 있기는 하지만) 벽에 가까이 붙어, 방안을 서성였다. 처음에는 좀 어지러웠지만, 이제는 거의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익숙해 졌다. 내가 거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벽 쪽에 쪽 일자로 걸었기 때문이다. 콧등의 여드름은 까졌고 이번엔 턱에 있는 흉터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상처들을 거울에서 확인 해보니, 그래도 여드름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스티븐 아저씨가 내가 잘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 밥을 가져올 때 창문에서 기다리며 서 있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쟁반을 들고, 줄을 타고 급히 내려왔다. 한번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하고, 내 식탁에 쟁반을 올려 놓고는 밧줄을 타고 스르륵 사라졌다. 그를 알기 전엔, 뱀이 아니고서는 스르륵 기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은 목록에 이것도 포함시켜야 할까보다. 엄청 긴 목록이 될 것 같다.

오리고기와 감자스프가 군침 돌았지만, 등을 돌렸다. 우리가 자유가 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내 결심은 변함이 없다. 배고픔이 생각을 더 잘 할 수 있게 만든다.

정오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배고픔은, 사실 절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에서 꼬르륵 소리만 나게 할 뿐이고 감각을 무디게 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음식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내가 음식을 남기는 바람에, 키티 아가씨가 원래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고 그녀가 토하는 바람에 내 소중한 송아지 가족으로 그것들을 다 닦아야만 했

다. 그 이후엔, 더 이상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오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기로 한 것 이외에도, 창문 밖을 바라보지도, 비누를 쓰지도 않기로 했다. 결국, 서쪽으로 해가 질 때쯤, 기분이 멍하고, 지루하고, 덥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도, 해답을 찾기에 한참 멀게 느껴졌다.

“왜 밥을 안 먹니?” 하고 내 멍한 정신을 맑게 해 주듯, 스티븐 아저씨가 물었다. 진짜 옆에 있는지 눈치도 못 챘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걱정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니요,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스티븐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어.” 손목으로 쳐서 성냥불을 켜, 등 심지에 불이 붙을 때까지 들고 있었다. 아저씨가 내 쟁반을 들고 안녕 이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내 턱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더 자세히 보려고 등불로 비춰보았다.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다 긁히고 피도 나잖아. 이 고양이가 그런 거야?” 눈살을 찌푸리며 키티 아가씨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마치 발톱에 피가 묻었는지 확인해볼 기세였다.

“당연히 아니죠,” 라고 말했다. “그냥 벽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마음이 놓였는지 미소를 지을 듯이 입술을 찔룩였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진짜, 싫어요.”

“그렇다면, 알았다. 연고라도 바르자, 그래야 피가 멈추지.” 내가 연고를 건네주자 아저씨가 턱에 두껍게 발라주었다. 놀랍게도 손길이 아주 다정했다. 아주 잠시나마, 내 무릎과 팔꿈치에 반창고를 붙여주던 엄마와 아빠가 생각이거나 눈물이 났다, 잘 자라고 안아주고 침대에 밀어 넣어 좋은 꿈을 꾸라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셨는데 벌써 너무 오래 전 일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흐르기 전에 눈을 깜빡였다.

“기억해,” 아저씨가 연고 뚜껑을 닫기 전에 말했다, “일어 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운명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는, 줄을 타고 스르륵 사라졌다.

아저씨 말이 맞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겠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나는 운명 따위를 믿지 않으니까. 아빠는 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 계획들 중에는 내가 이 탑에 갇혀 나이만 먹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원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 하며 계속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계획 세우기를 거듭하였다. 그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든 것은, 스티븐 아저씨에게 내 음식에 수면제를 타게 해서 아저씨가 먹게 만들든 다음, 계단 밑으로 잠든 아저씨를 끌고 나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부분은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일단 저 다락방 위까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저 밧줄로는 고작 몇 피트밖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저씨를 내 어깨에 들춰 업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그래서 몇 분 동안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자마자, 어여쁜 데이지와 난을 하루 종일 하염없이 바라볼 것이다. 아몬드 파이와 젤리만 먹으면서 말이다.

너무 배가 고플 나머지 환각상태가 다 되었나, 방안을 몇 번 더 돌고 보니, 양탄자 한 가운데, 흰색 수건이 옆에 걸쳐 있는 나무 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걸으며 가까이 다가가서는 내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려 보았다. 진짜 나무 욕조다!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위로 손을 올려 아래로 뻗어 만져보았다. 진짜로!! 안에 따뜻한 물이 있는 게 아닌가! 스티븐 아저씨가 분명 하루 종일 이 물을 덥히고 있었을 거야!

천장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었다. 내 짐 가방을 찾아 안에 있던 비누를 꺼냈다. 자연스럽게 원피스를 벗어, 바닥에 내던지고, 비누를 갖고 욕조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아...등을 기대 눈을 감았다. 집에서, 모든 사람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서 후딱 씻으라고 엄마가 핀잔을 주셨다. 그런데 드디어 이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의 장점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았다- 욕조가 다 내 차지라는

점 말이다. 따뜻한 물속에 있으니 빠근했던 몸이 풀리면서, 하루의 수고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비누가 옆에서 뽀글뽀글 거품을 내고 있다. 하루 종일 걸으며 생각만 하던 내 머리가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심지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엄마와 같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절로 나왔다. 침뱉거리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장미 빛, 통통한 동그란 당신 얼굴을 한 당신,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남자들이 뒤 따라 갔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말했지,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결혼은 도대체
왜 하나고?

엄마는 할머니께서 다른 노래들과 같이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만큼 부유하게 살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던 간에, 노래하는 것은 항상 힘이 된다고 하셨다. 그중에 엄마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다. 비록, 주인공은 맥주병처럼 많은 남편을 원하는 여자였지만, 엄마는 한 남자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다.

한 번 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거품 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갇힌 이후로 한 번도 씻지 않아서 목은 때를 벗기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물이 점점 회색 빛깔에서, 검에 졌다. 엄마가 봤으면 기절했을 텐데, 다시 내 모습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조금 배고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 내 모습이다. 벗긴 때들이 다시 들러붙기 전에, 재빨리 일어나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내 머리카락은 희한하게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만 빼고는, 다행히도 계속 윤기가 흐르고 금발을 유지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다시 땅으려면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원피스에 목을 집어넣고 소매 구멍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재빠르게 단어들과 그림들이, 머리를 스쳤다. 원피스에 얼굴을 끼운 채, 잠시 멈춰섰다. 드디어 마녀한테서 스티븐 아저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물론 벌써 나는 열 두 살이고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지만, 기

빠서 펄쩍펄쩍 뛰었다. 물론, 대개는 얼굴을 원피스로 가린 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앞으로 뺨긋해서, 넘어져 검게 변한 물에 머리를 거의 빠뜨릴 뻔 했다.

제23장

8월14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사냥하러 가기 하루 전이다. 아버지께서 지푸라기 더미에 활쏘기 연습을 하라고 하셨다. 나는 의심 들지 않도록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지금까지, 지푸라기를 똑바로 겨냥하고 쏘는데, 연못에 천진난만하게 떠다니는 두 마리 오리, 대지주와 산책중인 시녀, 애나벨에게 첫 가죽밑창 신발을 만들어 주러 온 동네 신발 수선공 모두를 거의 맞출 뻔 했다.

난 정말이지 가망이 없다보다. 앤드류는 아마 사냥꾼 아저씨들 중 누가 가장 큰 수사슴 잡아왔을지 고민 하느라 그들이 나에게 대해 신경 쓰기에는 바쁠 것이 틀림을 것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맞는 말이다. 우리 모든 계획은 다 이것에 달렸다.

제24장

8월14일

-라폰젤의 이야기-

나의 새로운 계획을 말해주기 위해, 스티븐 아저씨가 욕조를 다시 가지러 올 때까지 밤새 눈을 뜨고 있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눈을 뜨려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고 있어만 했다. 아아, 수면제 없이도 잠에 굴복했나보다, 왜냐하면 새 소리에 방금 깬기 때문이다. 그새 욕조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의 새벽 쯤 된 것 같았고, 키티 아가씨는 내 턱에 있는 상처딱지를 갖고 놓고 있었다. 한

숨을 쉬며, 등불을 끄고 다시 짐 가방에 넣어두었다. 이곳에 갇히기 전에는, 아빠와 밭에 수확 하러 나갈 때만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 올해는 내가 없는데 누가 아빠를 도와주지? 하나씩 생각이 떠올랐다. 돌아 갈 거야. 꼭 돌아가야만 해!

배가 꼬르륵 거렸다, 키티 아가씨를 데리고 이슬 맺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날아오는 새들을 바라보러 창가로 갔다. 곧 동쪽으로 햇빛이 하늘의 분홍과 주홍빛 줄들이 타는 듯이 사라졌다. 나만큼 목이 말랐는지, 키티 아가씨가 창가 틀에서 이슬을 훔아 먹으려 했다. 그녀의 등을 톡하고 쳤더니, 털을 곤두세우며 귀를 쫓긋 세웠다. 그 이슬이 몸에 좋을 리 없으니 말이다.

“좀 바쁜 거 같은데,” 하며 내 등 뒤에서 킁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지? 내가 스티븐 아저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킨 건가? 키티 아가씨를 너무 짝 움켜쥐었는지 싫다고 울어 댔다. 천천히 몸을 돌려 마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벽에 그려놓은 오두막 집 앞에 서 있었다. 울퉁불퉁한 그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는 그 그림을 닦았기 때문에, 그림이 계속 번져갔다. 나는 움찔했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야 진짜 집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니 말이다. 키티 아가씨를 내려놓으니 울 담요 밑으로 쑥 도망갔다. 할 수만 있다면,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마녀가 식탁위에 올려놓고 간 냄비에 있는 고기 파이 냄새가 마치 벌을 유혹하는 꿀이 가득한 나무의 꽃 같았다. 입에 침이 고였다. 마늘과 겨자냄새가 거의 취해 쓰러질 정도로 방안에 가득 찼다.

마녀가 그렇게 내 그림을 망치고 난 뒤, 몸을 돌려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바짝 긴장 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심장이 튀어 나오지 않을까 막고 있었다. 아마 목욕을 하고 나니 좀 달라 보이냐보다.

“흠,”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치면 말했다. 아마 너무 겁에 질리지만 않았다면, 웃음이 나왔을 것이다. 왜냐면 내 그림에서 묻은 먼지가 가득한 손가락으로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너, 웬지 모르게 어딘가 좀 달라 진거 같은데. 뭘지 모르겠다.” 계속 나를 쳐다보며, 심지

어 나보고 빙 돌아보라고 했다. 돌면서, 눈길에 스티븐 아저씨가 밧줄을 타고 스르륵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고개를 돌릴 수 있다니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내 표정으로 그에게 눈치라도 줄 수 있어서였다. 왜 위험한 짓을 하려는 거지? 아주 잠시 동안, 그가 몰래 다가와 마녀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줄 알았다.

마녀가 자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나에게 호통 쳤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다, 스티븐 아저씨가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한손에는 내가 목욕하면서 몸을 닦았던 수건을 들고 있었다. 빨리, 스티븐 아저씨, 빨리 가요, 속으로 간절히 애원했다. 마녀가 보기 전에 밧줄을 당겨 위로 다시 올라갔다.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고 따지듯 말하며, 내 얼굴을 다시 돌아서 쳐다보았다.

“아니...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더듬었다, 재빨리 그녀를 쳐다봤다. “고양이가 놀래 커서요, 그게 다 예요.”

“집중하도록 해, 꼬마 라퐁젤. 그렇지 않으면 기꺼이 성가신 것들을 이 방에서 다 없애버릴 거야.”

“네, 마녀님,”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가 무섭게 노려보기 전에, “아니, 그럴게요, 엄마 고텔.”라고 다시 말했다.

“잠이나 자거라,” 라고 하며, 누가 봐도 기분이 좋아진 듯 경쾌한 말투로 말했다. “깊이 잔 모양이지?”

“네, 엄마 고텔.”

“음식은, 먹을 만 했니?”

“아, 네, 엄마 고텔. 아주 먹을 만 해요.”

“그래서 숙소가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되니?”

이제야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눈치 챘다. “음, 뭐라 구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부러지고 누런 치아 때문에 구역질 날 것 같았다. “네가 여기서 행복해 할 줄 알았어. 있잖아, 내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선택한 직업은, 뭐랄까, 외로워.” 농담 이었는지, 낄낄거리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초록빛 가래가 입에서 튀어나오더니 날아가 그녀의 검정 망토에 떨어졌고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단하군.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마녀에 관한 일이라면, 역시 침묵하는 것이 최고다.

계속 말을 했다. “조만간, 네 미래에 대해 우리 좋은 이야기를 나눠야겠어. 물론, 학교는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내 옷 단이나 여미고, 신발을 빨고,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 우리 의논해야 할 게 많다.”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이 불쑥 말을 꺼냈다, “학교를 더 이상 안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엄마 아빠가 교육받은 여자는 진기한 보물과 같다고 했어요.”

마녀가 고개를 젓혀 큰소리로 웃었다. 그녀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난 진짜 싫다. 팔짱을 끼고 그녀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내가 네 부모야,” 그녀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쿡쿡 찌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진기한 보물은, 내 목에 걸 수 있는 거여야 해. 네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 뿐이야, 그리고 그것도 내꺼야.”

입 꼬리가 일직선이 되어, 발을 쿵쿵거리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말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미래는 없을 거다. 열을 세고, 천천히 뒤를 돌아 마녀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고는, 식탁으로 달려갔다. 정어리와 우유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불속에서 키티 아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 조그만 다리로 “침대”에서 튀어나오려다 거의 넘어질 뻔 했다. 입안에 고기 파이를 넘기면서도 거의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했다. 물론 스티븐 아저씨가 특별히 신경을 썼겠지만, 먹으면서 약초냄새가 풀풀 났기 때문이었다. 쟁반에 냄비 뚜껑 빼고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웠다. 쟁반뚜껑을 들어 빈 냄비위에 올려놨다. 그러자마자, 뭔가 초록색이 내 눈에 들어왔다. 뚜껑이 있던 자리에 민트 색 젤리와 작은 은수저가 놓여있었다. 아마 스티븐 아저씨가 마녀한테 들키지 않도록 뚜껑 밑에 숨겨 놓 모양이다! 손가락을 들어보고 그 무게에 무척이나 놀랐다. 엄청 귀중한 것이 틀림이 없다. 좀 더 가까이 쳐다보니 손잡이에 조그만 S자가 보였고 문득 스티븐 아저씨가 혼자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이제는 나무 도구나 가시를 찾아다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서, 젤리와 손가락 중에, 뭐가 더 귀찮은 선물인지 잘 모르겠다. 한입을 먹을 때 마다 맛을 음미하려고 천천히

먹었다. 새로운 친구가 준 은수저로 밥을 먹으니 모든 게 더 맛있었다.

정오

탑에서 마녀가 사라지자마자 스티븐 아저씨가 단번에 나타날 것이라고 너무나 기대됐다. 그런데 민트 젤리를 다 먹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은수저를 위에 올려둔 채, 쟁반을 양탄자 한 가운데 올려놓았다. 어떻게든 아저씨가 눈치를 채기를 바라며 말이다. 작은 문을 가만히 쳐다보았지만, 꿈쩍도 안했다. 다시 의자위에 앉아, 식탁위에 손가락을 까닥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았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 시간이 그렇게나 느리게 갈 줄은 몰랐다. 이제는 더더욱, 가능한 빨리 이 곳을 나가야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구두담이가 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고.

저녁

해가 졌다. 얇은 조각의 달만 떠있을 뿐이고 탑 안의 방이 어두웠다. 아직도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다. 양탄자 위에 아직도 텅 빈 쟁반이 놓여있다. 왜 스티븐 아저씨가 내 계획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벌써 나를 저버렸는지 모르겠다.

그 날 늦은 저녁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의자위에서 잠이 들었고 매번 딱딱한 식탁위에 머리를 박았다. 이대로라면 의식 잃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어디 있을까? 의자를 뒤로 밀고 짐 가방을 열었다. 원피스들을 옆으로 밀고, 등, 성냥, 잉크, 깃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송아지 가죽을 들어 올렸다.

등에 불을 켜고 식탁위에 모두 올려놓았다. 깃펜을 잉크에 적셔서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쓸 준비를 했다.

스티븐 아저씨에게,

오늘 밤 아저씨에게 감사할 게 많아요.

1. 육조

2. 마녀가 눈치 채기 전에 수건을 다시 가져가신 것.
3. 은수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 아주 특별한 수저였어요.
또한 할 말이 많아요. 마녀와의 거래를 깨지 않고도 마녀의 노예
짓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녀의 손에서 우리 둘 다 벗
어 날 수 있어요. 제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내려와 주세
요.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그녀가 의심할까봐 무서워요.
진심과 감사를 담아,
탑에 갇힌(너무 오래 갇혀 있지 않길 바라며), 당신의 친구 라폰젤

아저씨가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쪽지를 보이게 쟁반위에 올려놨다. 정리
를 하고, 등불을 “침대” 가까이 가지고 와, 내려놓고 기다렸다. 또 다시.

제25장

8월1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세 명의 하인들이 사냥을 위해 나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왜 무기를
갖고 다니기에는 충분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옷을 입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수수께끼이다. 흘깃 살펴보니, 앤드류가 그레이트 잔디에
서 뛰어 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가 할 일은 토마토가 가득 찬 가방을 숲속의
말 타는 길,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숨기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고 왼손을
올려 그의 할 일이 끝났다는 표시를 해 보였다. 이제 지금부터, 모든게 나에
게 달렸다.

“우리아들 잘생겼네,”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자 하인들이
인사를 하며 나갔다. 눈가가 축축이 젖어 나를 훑어 보셨다, “다 컸구나.”

안과 밖으로; 얇은 면 내복, 작은 쇠사슬로 만든 옷웃, 두꺼운 양모로 만든
튜닉⁶⁾이라고 불리는 옷웃, 빨간 승마바지, 검정 장화, 활이 튕겨지는 것에서

6) 튜닉: (tunic)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이 입던,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

내 팔뚝을 보호하기 위한 가죽 완장, 머리위로 약 4인치쯤 올라오는 작은 깡통헬멧을 입고 있다. 그 위로 승마용 망토가 조여 있다. 쇠사슬로 만든 옷옷에 있는 작은 쇠고리들 때문에 상체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작은 사슬 무게가 나보다 20파운드나 더 나갈 수 있는지. 쇠사슬과 완전 두꺼운 옷옷은 내가 활을 쏠 때 동물들이 내가 먹이인줄 알고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상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불편하긴 해도, 이 옷을 입고 거인을 맞설 생각하면 훨씬 안심이 된다.

아직 눈가가 촉촉한 엄마는 손을 뺀어 내 모자를 바르게 씌워줬다. 왼손에 마로 된 반창고를 감고, 그 손으로 아무것도 건들지 않도록 조심했다.

“엄마,” 내 옷의 각 부분을 툭툭 털고 당기면서, 둘러보는데 내가 물었다, “왜 불에 그렇게 손을 뺐었어요? 애나벨은 항상 인형을 더 살 수 있는데.”

잠시 답이 없으셨다, 그리고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엄마는 간혹 꽤 예민할 때가 있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 생각엔, 본능이야. 생각을 하지 않았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인형들은...” 잠시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지다가 더 부드럽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인형들은 원래 내 것이었던단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셨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셨던 거야. 언젠가 애나벨이 크면 딸에게 물려줬으면 했던 것들이었어.” 내 망토를 마지막으로 잡아당기면서 괜찮은지 뒤탄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정네들과 함께 갈 준비가 된 것 같네. 그들은 지금 마구간에서 전략을 짜고 있어.”

와. 엄마가 나에게 남정네라고 불렀어. 나머지 남정네들이라고, 엄마가 말했다. 마구간까지 왕처럼 성큼성큼 걸기를 연습했다, 내 마부가 나의 믿음직스런 흰 종마에게 안장을 채우고 갈 채비를 했다. (그래, 믿음직스런 내 말이 종마 같지는 않지- 더 이상 완전히 자라지 않을 조랑말에 더 가깝지. 그래도, 우린 오래된 사이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이제는 거의 키도 비슷하지만 말이야. 그의 이름은, 부끄럽지만, 눈송이다. 아버지가 그를 샀을 때부터 그 이름을 갖고 있었다. 수년 동안 사무엘, 제우스, 아니면 몬테페르와 같은, 괜히 더 남자 같은 이름을 다시 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눈송이라는

옷

이름에만 이 녀석이 반응을 했다. 무리 중에 그 누구도 못 들었으면 좋겠다.)

도착했을 때 엘킨은 벌써 말위에 타 있었다. 재단사가 그에게는 특별한 승마복을 만들어 준 것 같다, 아주 완벽히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말위에 타니 꽤 제왕 같아 보인다, 그의 말은 더스티 로즈라는 이름의 적갈색 암말이다. 말 위에서는, 정말 개구리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말안장 옆 등자에 발을 올리다가 미끄러지면서, 내가 눈송이의 등위에 다리를 올리자 나를 쳐다보았다. 마부가 내 활을 안장에 메고, 화살 통을 넘겨주었다. 내 어깨에 손을 닿을 때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등에 화살 통을 묶었다. 다른 남자들 - 몇몇은 내가 알기로 아버지의 친구들이거나 왕궁 궁수들은 - 그들의 말위에 올라타 있었고, 원을 그리며 모여 이야기 중이었다. 사냥개들은 말들의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고, 곧 떠나는 것에 아주 신이나 보였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고는 손을 흔들며 보이셨다.

앤드류와 나는 엘킨이 방해공작을 펼칠 시간이 없도록, 사냥 바로 직전에 엘킨에게 내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들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엘킨은 내 쪽으로 돌아볼 틈도 없이 꾸준히 앞장서 가고 있었다. 나는 눈송이가 그를 따라잡도록 고삐를 들고 흔들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엘킨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나 두 개 정도는 내 던졌어야 하는데. 심지어 아직 눈송이가 이번 봄 무도회에 초대가 되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다. 말의 남자다움을 모욕하는데 쓰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이다. 오히려, 그는 앞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 무리들과 가까워지면서, 그가 약혼 소식을 들은 후,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약간 아파 보인다는 것을 눈치 챘다.

눈송이를 그 옆에 세워 물었다, “너 괜찮아?”

그가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난 괜찮아.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둬.”

“정말이야,” 내가 중얼거렸다,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랬겠지.”

우리는 무리에 가까워 졌다, 그리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무리 틈에 끼워줬다. 아버지께서 웅장하게 연설을 하셨다. 그러나 사실 엘킨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느라 별로 신경 쓰지 못했다. 사냥이 남자를 만드는 것

이지, 남자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지배해야 한다; 천천히 끈질기게; 포획물에게만 시선을 뒤라. 라는 구절만 들었다. 결국 말을 멈추고 사냥 대장이 나팔을 불고는 멈춰서 서, 과장되게 둘러보았다. 마침내 짧게 나팔을 불고는, 길게 한 번 더 불었다. 남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여정을 떠나려고 하자 말들이 크게 울었다, 그 뒤로 개들이 요란하게 짖으며 뒤를 쫓았다. 나는 뒤처지고 있었다, 나는 질주라기보다 총총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엘킨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을 꺼낼 겨를이 없었다. 이제 남자들은 숲속으로 우르르 들어갔다. 이렇게 죽은 영혼들도 다시 불러일으킬 만큼이나 큰 소리를 내며 가는데 어떻게 그 어떤 사냥감도 의심하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가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엘킨은 드디어 더스티 로즈의 고삐를 당겨 완전히 멈춰서 숲으로 몇 피트 정도만 갔다. 다행히, 나도 따라갔다. “저기,” 내가 말했다. “더 멀리가기 전에 네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눈송이가 무도회장에 같이 갈만한 여자가 없데?” 그가 물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그의 말투가 농담인데도 스스로 재밌어 하지 않았다. 이건 완전 보통 때의 엘킨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내 말에 대한 농담은 나중에 하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드디어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렸다. “뭔데? 일행들을 잃게 생겼어.”

허겁지겁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냈다. 내가 다른 벤자민과 그의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강도와 보물, 그리고 마침내 거인 이야기와 그를 내가 어떻게 무찌를 건지 그리고 다른 벤자민과 그 보물을 나눠서 그의 아빠의 타고난 실력으로 그가 안경사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내 보물의 반도 기꺼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숨을 죽여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놀랍게도, 그의 안색이 다시 돌아오더니 웃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오늘 사냥하기 싫어서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거인일 줄이야!”

“그...그렇지만 숲에서 네 먹이거리를 잡아 자루에 넣기만 기대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냥 네 아버지에게 점수 따려고 한 말일 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내가 놀람을 금치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서 토마토나 찾으러 가자고!”

제26장

8월15일

-라퐁젤의 이야기-

또 다시, 잠을 잔 기억도 없는데 아침 해가 나를 반겼다. 마녀가 갑자기 다시 와 볼지도 몰라 서둘러 등을 숨겼다. 내 쟁반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소에게 다는 방울이 “종을 울려, 내가 갈게.” 라는 쪽지와 함께 놓여있었다. 종을 울렸다, 그리고 방안에서 광하는 소리가 울렸다. 작은 문이 열리고 밧줄이 떨어졌다. 식탁위에 종을 놓을 겨를도 없이 스티븐 아저씨가 내려왔다. 그가 양탄자 위에 앉았고 나도 함께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내가 물었다, 내가 마음 아파했던 것이 티가 나지 않게 말했다. “어제 하루 종일 밤까지 기다렸어요.”

“내 사랑스러운 라퐁젤, 네가 쪽지에 쓴 것처럼 마녀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하루 종일 마녀가 수면제랑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재료들을 더 모아놓으라고 해서, 옆에 붙어 있었거든. 네 계획을 들어볼게, 그렇지만 난 내 입장을 밝혔듯이, 돌이킬 수 없어.”

“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저씨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저씨는 미심쩍어 보였지만 나는 서둘러 말했다.

“먼저 이걸 대답 해봐요: 그 벌레를 전에도 본적이 있나요? 아저씨 아들이 삼켰다는 벌레요?”

그는 잠시 민머리를 긁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

“그렇다면 그레이트 숲이 비가 온 뒤에는 꽤 고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비가 왔나요?”

멈춰 생각을 하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질문을 계속했다. “다들 마녀가 무서워 도망가서 마녀밖에 눈에 안 보인 것은 아닐까요?”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스티븐 아저씨, 저도 전에 그 날아다니는 거대한 벌레를 본적이 있어요. 그녀가 나를 데려 가려고 우리 집에 왔을 때였지요. 마녀 머리위에 그 벌레 세 마리가 웅웅거렸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쫓아 버리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처음부터 그녀가 다 꾸민 일 일거예요. 아저씨의 능력 때문에 그녀가 선택한 거겠죠. 동굴에 아저씨와 아들만 있기를 기다렸다가 벌레 한 마리에게 그의 목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을 거예요. 아저씨가 입구로 뛰어 나올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도와줄 사람이 자기 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마녀에게 전혀 빛 진 게 없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숨을 죽였다. 그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불확실함, 고민, 받아들임, 그리고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녹색피부가 짙은 자주색으로 돌변했다.

“네 말이 맞아,” 분노에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난 빛 진 게 없는 거야.” 그는 부르르 떨며, 돌처럼 굳어 앉아있었다. 그가 조만간 터져서 작은 녹색 조각들로 변할까봐 약간 겁이 났다. 이렇게까지 화가 나면 그와 같은 종족들은 폭발할지 누가 알겠어?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만져보았다. “아저씨 괜찮겠어요?”

“이제까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헛된 시간만 보내다니,” 신중한 말투로 말했다.

“스티븐 아저씨, 오늘 집에 갈수 있어요. 우리 둘 다요.”

그는 폴짝 뛰어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내 생각엔 네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가 말했다.

“무슨 뜻이죠?”

“생각해봐, 라푼젤. 만약 마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면, 너도 당한 거

잠아.”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한 약속 때문이라 구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말했다. “갑자기, 네 엄마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도라지를 원했다지, 그렇지? 마녀의 텃밭에서만 그게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그곳은 금지구역인데. 아빠는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훔쳐오라고 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의 행복은 어찌되도 상관도 없이 말이야, 심지어 수년 동안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던 사람이... 자 말해봐: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야?”

그의 말을 머릿속에 되새기는 동안, 그를 잠시 쳐다보았다. 내가 처음으로 베개를 꿰매었을 때 치던 엄마의 박수소리, 내가 처음으로 요리를 했을 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구이에 너무나 많은 후추를 뿌려 그 다음날 동일 틀 때까지 아빠가 재채기를 해서 웃던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녀가 나를 끌고 갈 때, 괴로움에 울던 엄마가 보이는 것 같았다. 지금껏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안 돼!” 목소리가 커지며, 스티븐 아저씨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아빠나 나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사람이 아니에요. 마법에 걸렸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바보였네요!” 바닥에 쓰러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그들도 나처럼 속은 거였어.

“따라와, 라퐁젤,”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짐을 싸렴.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때야.”

멍한 상태로,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짐이 너무나 적어서 싸는데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내 원피스 주머니에 키티 아가씨를 밀어 넣고는 스티븐 아저씨가 내 짐 가방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나를 데리러 다시 내려왔다. 마치 내가 오리털보다 가벼운 듯이 금방 나를 들어 올렸다. 다락방 도달했을 때, 음침한 곳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적어도 탑 안에 방은 창문이라도 있지. 계단 쪽으로 나를 바빠 데리고 가서 기름 등을 짚어 계단 실로 내려가는데 비추었다. 계단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바닥에 도달해서 문을 열 때, 너무나도 어지러웠다.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먼저 반겨줬다. 두 번째로, 바닥에 발을 닿으려

는 순간, 마녀가 있었다! 우리를 아직 눈치 채지는 못했지만, 들키는건 시간 문제다.

“뛰어요!” 그를 밀쳐서 짐 가방을 그의 손에서 뺏어 들고, 스티븐 아저씨에게 말했다.

“혼자 남겨두지 않을 거야.” 그가 강력히 말했다.

“우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해. 우리를 둘 다 잡지는 못할 거야! 네 가족은 네가 필요해. 어서 그들에게 가서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나도 나의 길을 찾아볼게.”

그가 망설였다. 그러는 동안에, 마녀가 우리를 발견했고 탑 쪽으로 사납게 달리기 시작했다.

“제발요, 아저씨!” 애원했다. “지금 가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절대 너를 잊지 않을게, 숙녀 라퐁젤.” 라고 말하며, 집으로 향해 숲으로 먼지를 푹푹 날리며 뛰었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바람에다 대고 대답했다.

나는 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구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녀는 머지않아 내 앞에 서있었다. 내 머리를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갔다. 저항하기에는 너무 지쳤다. 다행히도 키티 아가씨는 조용히 내 주머니 속에 숨어 있었다. 만약 이 녀석이 화가 나있기라도 했다면 마녀가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락방에 열려진 작은 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내 짐 가방을 그곳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내가 던져질 차례라고 해도 별로 놀라울 것 같지 않다. 내 머리카락을 더욱 짝 쥐고는, “이런 멍청이, 멍청이 같은 것. 이 문들을 다 잠가 놔야 했는데, 계단에 있던 녀석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제 누가 너에게 밥을 주겠니?” 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주겠거니 생각했지. 또 다시 마녀의 문간에 갇혀 있으리라고는 전혀 몰랐다. 그녀의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다.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것 같다.

“저리 꺼져,” 나는 눈에 불을 키고 말했다. 그녀는 작은 문 쪽으로 나를 밀치고 밧줄을 가지고 와 스티븐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내 발목을 묶었다.

바닥에 발이 닿는데 까지 무지, 무진장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려 오면 끈에 휘감고 내려오는 바람에 손이 다 까져있었다. 내 짐 가방 쪽으로 가자, 획 하더니 쿵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마녀가 밧줄을 잘라버렸다.

“이제 이걸 창문 밖으로 던져,” 그녀가 명령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니, 어쩔 수 없이 밧줄을 창문 쪽으로 끌고 가 던졌다.

이제 진짜 갇혀버린 것이다.

제27장

8월1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앤드류가 숨겨놓은 토마토를 찾으러 말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 좀 미심쩍다. 내가 알던 엘킨이 아니다. 이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들었던 날 밤 어릿광대가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일이 이렇게 돼서 물론 기쁘지만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서 유심히 살펴야겠다. 뒤를 힐끗 보니 그가 화살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등에서 빼서 그의 안장에 묶었다. 나도 그의 행동을 따라서, 모자를 챙겨 안장주머니에 넣었다. 아, 훨씬 낫네.

“여기 있네,” 엘킨이 오른쪽에서 몇 피트 내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크게 소리 질렀다. 앤드류는 내가 말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낮은 나뭇가지에 가방을 걸어 두었다. 아주 센스 있는 아이 군. 나중에 엘킨이 자기 몫을 가지고 가면 내가 가진 나머지에서 그녀석에게 한 몫 떼어줄 계획이다. 나에겐 필요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엘킨은 필요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너무 빨리 써서 없애버릴 것이다.

나뭇가지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놀랐다. 안에 손을 넣어 코딱지만 한 토마토 네 개를 꺼냈다. 원래는 3배 정도 있었어야 했는데. 다시 손을 넣어 안에서 앤드류의 쪽지를 꺼냈다. 엘킨에게서 등을 돌려, 쪽지를 읽었다:

왕자, 정원에 토마토들이 별로 없었어. 주방장님한테 이것들이라도 달라고 빌었어. 너와 엘킨이 사냥 나가기 전에 목표물로 연습할 때 쓸 거라고. 더 이상은 구할 수는 없었어. 행운을 빌어! 너의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기사, 앤드류가

이 계획을 취소할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책에서는 거인에게 토마토 하나를 겨냥해 던지면 쓰러지기에 충분 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두렵다.

“빨리 해,” 엘킨이 말했다. “사냥꾼들이 숲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잖아.”

맞는 말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토마토들을 안장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빈 가방을 나뭇가지에 다시 걸어두었다. 빈 가방은 앤드류에게 계획이 실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줄, 그가 생각해 낸 신호다.

“에헴,” 엘킨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응?”

“그거 나한테는 몇 개라도 안줄 거야?”

“너 그럼 진짜 내가 거인과 싸우는 걸 도와주려고?” 가방에서 두 개를 꺼내면서 물었다.

“그렇지,” 잘 익은 토마토를 받아들고 그의 안장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면돼?”

잠시 나침판을 꺼냈다, 그런 다음 왼쪽으로 손짓했다.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사냥꾼들이 전력질주하며 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렇게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진짜 식탁에서 고기를 구경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28장

8월15일

-라퐁젤의 이야기-

내 짐 가방이 엉망이다. 깨진 잉크병과 산산 조각난 등에서 세어 나온 기름으로 인해, 모든 게 찌든찌든한 검정으로 물들었다. 그 와중에도 무사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스티븐 아저씨가 준 은수저. 내가 안보는 사이에 가방에 쑤셔 넣었나 보다. 이렇게 엉큼한 짓을 잘한다니까. 벌써 보고 싶어진다. 물론, 우리 아빠보다는 키도 작고 더 젊지만, 이 곳에서는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유일하게 가까이 지냈다. 비록 나는 여기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저씨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기쁘다.

제29장

8월1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몇 분 뒤, 분명 우리가 말을 타고 지나갔던 길 같은데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려웠다. 말들은 넝쿨이나 나뭇가지들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히 걷고 있었다. 꾸준히 말을 타고 몇 마일을 더 가서 딱갈나무가 있는데 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동굴에서 몇 마일 밖에 안 남았다는 신호다. 나머지 여정은 더 위험할 거라서, 이 길에서 돌아 서야한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은 이 나무들 밖에 없을 테니. 숲에서 이렇게나 깊숙이 들어오면 좀 쌀쌀하다, 그러나 내 두꺼운 옷 덕에 마음이 좀 놓인다.

“음, 이 길이 맞는 게 확실한 거야?” 엘킨이 내 뒤에서 물었다. 작은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 길로 말이 한 마리씩 밖에 지나 갈 수 없었다.

“그런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를 인도해 줄 표시들을 내가 잘 외워뒀어. 여기 있는 나무 보이지? 나무줄기에 붉은 황토색 물감자국이 있어. 그 말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된다는 표시야.”

“누가 해놓은 표시야?” 그가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무늬를 따라 그리면서, 물었다.

어깨를 으쓱했다. “내 생각에는, 강도들인 것 같아. 숲에서 아버지가 이 표시들을 다 없애기 전까지는 있었어.”

“확실히 강도들은 없겠지, 그렇지?”

“앤드류가 그렇다고 했어.”

“어, 음, 만약 앤드류가 그게 말했다면 틀림없이 사실이겠지.”

“그런데, 뭇 때문에 앤드류를 그리도 싫어하는 거야?”

“별거 아냐-계속 그 표시들을 찾아봐. 만약 여기서 길을 잃으면, 며칠 동안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어.”

하마터면 그의 머리카락이 구조대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등불라고 말할 뻔 했다. 그렇지만 꼭 참았다. 좋은 나쁜든, 이제 우리는 동지다. 계속 표시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조용히 말을 탔다. 하나는 못 찾았다, 파랑새가 표시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들이 물도 마시고 좀 쉴 수 있도록 작은 개울을 찾아 도착했다. 머리 위, 해의 위치를 보니 벌써 정오가 더 지난 것 같다. 서둘러야 한다.

지금이라도 갈 준비만 하면, 머지않아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 것이다. 눈송이를 멈춰 세웠고 엘킨은 우리 옆으로 바짝 따라 붙었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속삭였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내려 말들을 묶어 놔야겠어. 그래야 거인에게 몰래 다가 갈 수 있지.”

엘킨과 말다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끄덕거리더니 조용히 더스티 로즈에게서 획 하고 내렸다. 나도 따라 내리고 말들을 나무에 묶어뒀다. 조심스럽게 토마토들을 주머니에 옮겨 넣었다.

“거기에 도착하면,” 엘킨에게 가르쳤다. “나를 따라와, 가능하면 뒤에서부터 다가가야 그들을 놀래 킬 수 있어. 토마토가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 했는데, 신중하게 겨냥하도록 해.”

엘킨이 끄덕였다. 그리고 동굴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갔다. 잘 숨겨져 있어서 하마터면 지나칠 뻔 했다. 엘킨이 내 웃옷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으로 무언가 가리켜 보였다. 동굴이 고작 산비탈에 작은 암벽구멍 정도 크기 밖에 되지 않았다. 앞에 동굴 입구 구멍이 화덕에 검게 그을려져 있었다. 거인이 방금 점심을 먹었나 보다. 열매와 말들 사이에 어떠한 것을 먹는지 궁금했다.

나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고, 우리 둘은 토마토를 들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앞으로 갔다. 내 귀에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밟는 떨어진 낙엽의 아작아작 소리가 사냥꾼 대장이 불던 나팔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오른쪽에 서있었고, 엘킨에게 입구 왼편에 서있으라고 몸짓을 했다. 딱딱한 바위에 등을 기대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어둠속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둘 중 아무도 선뜻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둘러보았다. 내 심장이 너무도 빠르게 큰 소리를 내며 뛰어, 심지어 엘킨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기나 긴 시간이 지나고, (아마도 한 십분 정도밖에 안 지났을 것이다) 동굴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본능적으로 우리 둘 다 뒷걸음질을 쳤다.

“준비해,” 부담스럽게 양손에 토마토를 쥐며 속삭였다.

“어...그...그래,” 엘킨이 더듬거렸다. 또다시 얼굴이 창백해 졌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거인이 곧 나올 모양이다.

“셋을 세고 하는 거야,” 속삭였다.

거인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다. 그림자가 엄청 커 보인다. 그리고 털도 많다!

“하나...둘....셋. 지금이야!”

바로 그때 거인이 동굴에서 나타나 햇빛에 비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같이 함성을 지르며, 함께 토마토를 던졌다. 놀랍게도, 셋이서 부딪쳤다. 이제 거인은 쓰러져 죽어있겠지. 만약 진짜 거인이라면.

우리는 방금 나이든 은둔자를 친 것이다!

제30장

8월15일

-라퐁젤의 이야기-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어찌면 다시 일월이 될 수 있었던 바깥세상을 바라 보았다. 너무나 안타깝게 실패해서 허무했다. 까마귀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배에서 아주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노란 부리를 가진 갈 까마귀가 빨간 수리부엉이와 같이 나뭇가지에 앉으려 했다 그러자 부엉이가 날개 짓으로 경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탑 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보였다.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득 그게 스티븐 아저씨 일까봐, 갑자기 심장이 뛰었다. 물론, 마녀였다, 그리고 손에 그릇을 들고 있었다.

“배고프니, 귀여운 딸아? 나를 사랑스럽고 기쁜 말투로 불렀다.

그녀가 나에게 귀여운 딸이라고 할 때마다 완전히 오글거렸다. 아직도 그녀와 참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아주 배가 고프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네 머리를 내려주렴 그래야 밥을 주지.” 안에 있는 동그랗고 빨간 것이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릇을 기울여 보였다. 지금 시점에서 는 나무껍질이라도 먹겠다. 내 배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갑자기 말이 튀어 나왔다.

창문 밖으로 몸을 기대어 소리를 질렀다, “지금 내 머리카락을 내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 온 다구요?”

“그럼, 귀여운 딸아.”

“그렇지만 그 정도 까지 길지도 않고, 그러다 창문에서 떨어 질 수도 있어요.” 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제 머리카락이 견디기에는 당신이 너무 무겁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귀여운 아가. 머리를 풀면, 머지않아 네 머리카락이 나를 들어올리기에 충분히 길고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는 그녀라면 지금 분명 화가 나 있을 것 같아, 땀은 머리를 풀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머리를 풀고 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땀은 머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진짜로 바닥까지 닿았다. 마녀는 머리를 꼭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주 빨리 움직였고, 거의 밧줄을 타고 다락방에 올라가던 스티븐 아저씨처럼 빨랐다. 물론 그녀의 무게가 느껴지기는

했지만, 키티 아가씨가 위에서 흔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마녀가 창문
틀에 도달하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고 무거운 납덩어리 그릇을 건 내 주었다. 놀랍게도, 빨간
열매가 아닌, 나뭇가지들 뿐 이었다. 내가 올려다보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
렸다.

내가 싫어하는 그 웃음소리를 냈다. 내가 속은 것이다.

“네가 그렇게 껄스민 짓을 했는데 뭔가 보상이라도 있을 줄 알았던 게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굶어야 해.”

머리를 툭 가슴까지 떨어뜨렸다. 마녀는 내 손에서 그릇을 낚아채고 창가
난간에 올라갔다. 내 머리카락은 아직도 창 밖에 걸려있다. 그녀는 내 머리카
락을 잡고 내려갔다. 또다시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땅으로 내려가자 나
에게 손을 흔들었다. “짜잔, 내 딸아. 내일 아침에 보자꾸나.”

이건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여기에 지내면서 겪은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제31장

8월1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너무 멍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동그랗게 뜬 눈으로 토마토
덩어리들이 그의 긴 수영과 누더기 옷에서 걸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쳐다보
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더 잘 보기 위해 긴 머리를 잡고 반으로 갈랐다. 엘
킨과 나는 장화를 신은채로 그대로 얼어있었다.

“음,” 거인이 아닌 은둔자가 오랫동안 말을 안했었는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사랑스러운 인사법이로구나.”

역지로 입을 움직여서 말을 했다. “저...저희는 진짜 죄송합니다, 아저씨.
진짜로, 아저씨가 거인인줄 알았어요.”

엘킨은 그의 고개를 격렬히 흔들었다. “우리가 듣기로는-음, 아니 얘가 듣
기로는- 거인이 보물이 가득한 동굴을 지키고 있다고 했거든요.”

노인은 얼굴에 묻은 토마토 즙을 소매로 닦고 수염도 짤다. 그다음, 그 누구보다 싱긋 웃었다, 그리고 입에 약간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 그래 그 오래된 소문이 아직도 엄청나게 돌고 있나보지,” 그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말했다. “지금까지라니. 놀랍군.”

엘킨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문이라 구요?” 가라앉은 기분으로 물었다. “그럼 거인은 없어요? 강도들의 보물도요?”

은둔자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동굴 안에 토마토 씨들이 날라 다니고 바닥도 더러워 졌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다른 벤자민과 그의 아빠를 위했던 나의 큰 계획이 내 눈 앞에 획 스쳤다. 내가 노래에서 불멸의 존재가 될 마지막 기회도 스쳐간다. “그렇지만 이 지도, 이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리 와,” 은둔자 아저씨가 말했다. “나와 같이 앉아 그러면 설명해 줄게.” 동굴로 다시 고개를 들어밀고 우리보고 따라 들어오라는 표정을 지었다.

엘킨이 내 팔을 붙잡았다. “만약 함정이면 어떻게 해? 방금 그에게 토파토를 던졌잖아, 알지!”

“우리에게겐 선택에 여지가 없어,” 대답했다.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오히려 거절하는 게 더 무례할 것 같은데.”

엘킨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속으로 같이 들어갔다. 한 발자국 두발자국씩 안으로 들어가니, 양초가 동굴을 아주 잘 밝히고 있었다. 동그란 과일더미, 물 한 그릇, 울 담요로 덮어진 지푸라기와 깃털로 만든 침대를 볼 수 있었다. 벽에 짐승 털가죽들이 줄지어 있었다. 사실 상당히 아늑했다. 그렇지만 방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우리 세 명만 있을 뿐인데, 돌아 볼만큼 여유 있는 공간이 없었다. 곰 가죽이 놓여있는 바닥 중앙에 은둔자 아저씨가 앉고, 우리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뭇 좀 줄까?” 그가 물었다. “맥주? 와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쳐다보았다. “아니, 아직 술을 먹을 만한 나이가 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물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엘킨은, “네, 주세요.”했다.

그 은둔자 아저씨가 뒤에서 손을 뻗어 물 그릇 안에 작은 쇠 컵을 집어넣

었다. 엘킨은 물을 건 내 받아 단번에 마셨다. 사실 물이 맛있어 보이긴 했다. 그러나 목이 너무 막혀서 뭔가를 먹거나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엘킨이 물었다.

“이제는 셀 수도 없어,” 아저씨가 말했다. “아마 너희 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살았을걸.” 그가 말을 하면서 뭔가 옆에 있는 것을 쓰다듬고 있었다. 쥐인가? 아니, 산토끼인가보다. 아마도 촛불이 내 눈에 장난을 치나보다, 그러나 엉덩이에 갈색 점이 있다!

“그렇다면 거인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이 아저씨예요?” 엘킨이 물었다. 내 머리는 너무나 빙빙 돌아서 질문을 할 수 없었다—생각에 엘킨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 아저씨가 답했다. “약탈자나 강도들 심지어 왕실 기사들이 내 문에서 얼쩡거리지 않을 방법이 필요했다. 보시다시피, 나는 너무나 은밀하게 사는 사람이거든.”

“네 그래 보이네요,” 엘킨이 말했다.

“고양이가 혀라도 물었니? 벤자민 왕자?” 은둔자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엄청나게 조용하구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죠?” 물었다. 목구멍이 막혀서, 짹짹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엘킨이 웃었고 나는 재빨리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아저씨가 아리송하게 대답했다. “몇 가지 기술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이 숲에서 혼자 살아 갈 수 없어.”

“왜 여기서 사세요?” 엘킨이 물었다. “은둔자들을 다 내쫓긴 했지만 동시에 강도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은둔자들은 아주 많이 고집스럽지,” 이상하게도 노인이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숨는 방법을 알아. 이리와, 보여줄게 있어.” 일어나, 벽 틈새에서 양초를 집어 들고, 벽에 걸린 털가죽들 중 한 개에 가까이 갔다. 놀랍게도, 또 다른 동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동굴이 있었다. 결국 아주 큰 동굴에 이르렀고 내 망토를 가져올 걸 했다, 왜냐하면 이곳은 엄청 추웠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초를 들고 방안에 다른 것들을 비춰 보여줬다.

집중을 해서 보니, 내 눈앞에 펼쳐진 게 뭔가 믿을 수 없었다. 동굴의 벽이 완전히 장관을 이루는 예술품으로 덮여있었다. 누군가가 놓고 있는 동물들, 남자와 여자들이 춤을 추는 모습, 산과 호수, 그리고 해 아래 모든 것을 그렸다. 원을 그리며 쪽 돌아봤다. 단 1인치도 빈 공간이 없었다.

“와!” 엘킨이 소리쳤다, 내 생각을 대신 말하는 듯이. “아저씨가 다 그린 거예요?”

아저씨가 끄덕였다.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 없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보라고 말하고는 물러섰다. 엘킨과 나는 방안을 둘러보고, 서로 아름답게 표현된 것들을 살짝 만지고 가리키며 보았다.

“제가 본 곳 중에 가장 멋진 곳 이에요,” 엘킨이 눈가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예의상 나는 눈길을 피했다. 그 누가 짐승 같은 내 사촌이 예술작품에 감동했을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 공감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우린 이만 가봐야 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둘의 발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제32장

8월15일

-라폰젤의 이야기-

마녀가 탑 뒤쪽으로 사라지고 나는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그 다음 머리를 끌어올려 뒤에 바닥에 쌓아 놓았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젠 글을 쓸 송아지 가죽도 없고, 같이 위로 받을 스티븐 아저씨도, 음식도 없다. 또 다시, 키티 아가씨가 벽에서 이슬을 훔아 먹고 있었다. 할머니가 안 좋은 상황에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다. 음,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지.

목소리를 약간 가다듬은 다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가씨”, “늑대인간들의 왕”, “사기꾼,” 그리고 “멋진

개, 미시” 사이에서 가사를 바꿔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새들과 키티 아가씨 뿐 인데도 바보 같고 부끄러웠다. 그런데 내 목소리를 나무꼭대기 넘어 산들바람에 실어 내보내는 것이 뭔가 나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33장

8월1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불구덩이 옆에서, 이끼로 가득한 통나무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은둔자 아저씨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물론 누더기지만, 토마토를 뒤집어쓴 누더기는 아니니까. “내 작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다.

엘킨이 먼저 대답했다. “당신의 능력을 세상과 공유하면 꽤 많은金を 벌 수 있겠어요. 집을 살수도, 진짜 옷다운 옷도 입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숨어 있나요?”

“이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방식이야,” 은둔자 아저씨가 담배를 입에서 빼 무릎위에 두고 설명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거야. 여기가 내 자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왔다. 노인이 쳐다보았다. “뭐야, 왕자님? 뭐가 불편하신가?”

발아래로 고개를 떨 구고 그냥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아마 그도 알고 있을 거니까. “원래는 강도들의 보물로 마을 사람 하나를 도와 그가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음...제 생각엔 언젠가, 누군가가 어디서든 내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부를 거라 생각했죠.”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 할 때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엘킨이 나를 비웃을 거라 생각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마침내 아저씨의 눈을 쳐다보았다. 골똘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불편해서 눈을 피했다. 그래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친구를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눈만 사용하면 되, 누군가가 네 노래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잘 들어 봐야지.”

“내가 네 노래를 불러줄게, 벤자민,” 엘킨이 장난쳤다. “그렇지만, 네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저씨가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다시 입에 갖다 댔다. “오로지 벤자민을 위한 노래, 친애하는 젊은 왕자 엘킨이, 이렇게 쉬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동굴로 다시 들어갔다. 우리는 뭘 어찌할 바를 몰라, 화덕 옆에 잠시 더 서있었다.

“눈을 사용하라니, 무슨 뜻인가요?” 동굴 쪽으로 소리 질렀다. “누군가는 내 노래를 하고 있다니, 그건 또 무슨 말 이에요?”

그러나 동굴에서 돌아오는 건 고요함 뿐이었다.

“음. 이제 이게 끝 인가봐 그럼,” 엘킨이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가봐야 해.” 내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가 내 팔을 잡고 말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큰 길로 다시 말을 타고 나오면서, 애나벨의 동요처럼, 아저씨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계속, 맴돌았다. 내가 듣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노래가 들린다는 거지? 귀 기울이지 않아도 들을 수 있나? 너무 동굴에서 오래 살아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건가?

“어, 벤자민?” 엘킨이 뒤에서 불렀다. “붉은 표시를 찾고 있긴 한 거야? 이 풀밭은 보지 못했던 곳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눈송이를 돌렸다. 이런, 어디야? 나에게도 익숙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가봤는데도 결국 같은 곳에 되돌아 왔다. 눈을 감고 표시된 나무들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게 좀 도움이 되겠지. 눈을 감으니 눈송이의 숨소리가 들린다. 나뭇잎의 바스락 소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눈을 뜨고 엘킨에게 가망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꺼풀을 바르르 떨며 눈을 떴다. “이 소리 들려?”

“무슨 소리?” 엘킨이 빠르게 지고 있는 해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물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안장에서 몸을 틀어 말했다.

“잠깐- 또 소리가 들려! 어떤 여자애가...그 애가 노래를 하고 있어!”

“미안, 사촌동생, 난 아무것도 안 들려,” 엘킨이 말했다. “상상이 아닌 게 확실해?”

고개를 돌렸다...그런데 또 소리가 들렸다.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렇지만 가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의 왕국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이걸 상상이 아니야.”

엘킨은 눈을 꼭 감고 귀를 쫓긋 세웠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이게 바로 그 아저씨가 말한 귀를 기우리면 누군가 노래하는 것이 들린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너도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왜 너는 안 들려?”

엘킨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내가 들을 게 아니었나보지. 아저씨가 네 이야기라고 했지, 내 거라고 하진 않았잖아. 어떤 노랫소리였는데?”

눈송이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게 하니, 노랫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내가 조금 뒤로 가면 안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잘 모르겠어- 슬픈 것 같아. 내가 찾아봐야겠어, 그런데 노랫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자 큰 나팔소리가 공중에 퍼지듯 들렸고 우리는 안장에서 움찔했다. 말들이 코를 쳐들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지 알 것 같아,” 엘킨이 말했다. “사냥꾼 대장이 사냥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야. 노래하는 여자아이는 내일 다시 와서 찾아야해.”

“잠깐- 그럼 이 장소를 어떻게 다시 찾아?”

엘킨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나무에 화살을 쏘면서 돌아 가면 되. 어쨌든, 화살이 가득한 채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면 왕이 우리가 사냥을 안 한 걸 눈치 챌 거야.”

“어...내가 활 쏘는 것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 내 화살은 지 맘대로 날아가거든.”

“그럼 내가 할게,” 그가 안장에서 활을 때내며 말했다. “너는 내가 처음 노래를 들었던 곳에 가서 네 화살들을 내려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 옆에 화살들을 다 내려놓았다. 엘킨의 첫 발은 획 소리를 내며 쉽게 가장 가까운 나무에 꽂혔다. 음, 물론, 움직이지 않고서 쏘면 나도 할 수 있었겠다. 뭐, 아마 나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더스티 로즈에 올라타, 가는 길에 화살을 쏘며 가기 시작했다.

내가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우리 아직 길을 잃은 거야, 알지?”

엘킨이 고개를 흔들었다. “말들이 돌아가는 길을 아는 거 같아. 그냥 내버려 둬보자.”

“그렇지만 어떻게- “

“내 말만 믿어봐,” 그가 고삐를 내려놓고 말했다.

엘킨을 믿어봤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더 나은 방법이 없기에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몇 분 뒤 나무에서 붉은 표시된 나무들이 하나, 또 하나, 또 다른 하나가 보였다. 길을 다시 찾았다! 엘킨은 나머지 화살을 두터운 나무 덤불 틈에 던져 버렸다. 옆에서 서로 말을 탈 수가 있었다, 엘킨에게 사냥하는 동안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해야 좋을지 물어보았다.

“나한테 말겨,” 엘킨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그 여자애를 찾으려 숲에 다시 오지?”

“그것도 나에게 말겨둬. 이제 모자를 다시 쓰고 사냥꾼들과 다시 함께 가자. 앞에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린다! 천둥같이 몰아치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깝게 느껴진다.

“내가 지시하면,” 엘킨이 고삐를 들고 말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하나... 둘... 셋!” 준비하고 더스티 로즈가 달렸다. 나도 뒤따랐다. 기적적으로, 오른 쪽으로 가서 사냥꾼 대열 끝에 줄을 섰다, 주위를 쪽 둘러보며 마치 내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제34장

8월15일

-라퐁젤의 이야기-

내 기름 등이 이제 쓸모없어졌다, 남은 거라고는 쏟아진 잉크와 기름의 참화에서 벗어날 성냥 몇 개뿐이다. 하나를 켜서 작은 거울을 얼굴에 앞에 가지고 왔다. 비록 거울 유리는 깨졌지만, 그 틈 사이로 볼 수는 있다. 내 물결이 엉망이고 그늘져 있다. 지금 이 여자아이는 누구지? 라폰젤은 누구지? 풀밭 같은 초록 눈동자 사이로 뻗히 쳐다보았다, 거울에는 내 모습이 조각나 보이지만 다시 질문을 해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큰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나야. 노래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의 유일한 딸이고. 반 아이들의 친구이자 스티븐 아저씨의 친구야. 키티 아가씨의 엄마이자 보호자고. 난 더 이상 어린 애가 아니야.” 배가 고파도 뜨거운 바람 같은 강한 투지가 생겼다, 힘이 다시 생기는 것 같다. 마녀가 내 정신도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야. 나에게 남은 거라곤 그것뿐이다.

제35장

8월15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숲에서 벗어나와 이제는 왕국의 땅을 밟았다, 남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속도를 낮췄다. 아버지는 뒤에 남아 우리 옆에 멈춰 섰다.

“얘들아, 어땠니?” 사냥의 흥분 감으로 상기된 채로 물었다. 그의 말 등에는 수사슴이 묶여 있었다. “너희들의 화살을 다 썼구나. 훌륭해!”

“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신 없이 말했다. “우리는 어,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엘킨이 덧붙였다, “벤자민은 아주 잘 했어요, 이모부. 한발 차이로 여우를 놓쳤어요!”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했다, 잘했어.”

나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어, 감사합니다?” 내 볼이 빨게 졌다, 그렇

지만 아버지는 눈치 채지 못하였다.

“사실,” 엘킨이 계속 말했다, “우리 둘이 함께 죽이 너무 잘 맞아서 내일 다시 한 번 가서 시도해 보려구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이번엔 엘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드디어 운동에 관심이 생긴 걸 알면 벤자민의 엄마가 아주 기뻐할게야.”

아버지가 사냥꾼 무리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남겨두셨고, 엘킨에게 말했다, “노래하는 여자아이를 혼자 찾으러 가려 했는데. 나와 같이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 같이 가지 않을 거니까. 마부보고 안장만 올려놓으라고 하고 숲에 가면 내버려 둘게. 아마도 은둔자 아저씨를 다치 찾아 갈 거야. 아저씨가 좀 좋아졌거든.”

“나도 좋았어,” 라고 말했다.

엘킨은 “그렇지만 좀 목욕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덧붙였다.

마구간에 말들을 데리고 가서 내리면서 웃었다. 앤드류가 빈 가방을 들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그를 마당에 몰래 끌고 와 무슨 일이 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흔들며 계속 말했다, “믿을 수 없어! 그냥 믿지 못하겠어!” 토마토로 은둔자 아저씨에게 토마토를 던진 이야기를 하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그는 “만약에 우리가 찾은 동굴은 다른 곳이고, 보물과 거인이 있는 진짜 동굴이 있다면 어떻게 해?”

“뭐,” 엘킨과 내가 동시에 말했다. 그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다음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은둔자 아저씨가 거인과 보물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데.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전설은 거짓이었어.”

앤드류가 고개를 푹 숙여 손으로 감쌌다. “진짜 미안해, 왕자. 헛된 수고였다니 나를 용서해줘.”

“아니, 아니야, 앤드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어.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나도,” 엘킨이 말했다.

“게다가,” 머뭇거리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모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래하는 여자 아이를 찾아야해!”

제36장

8월16일

-라퐁젤의 이야기-

비가 올 때, 신들이 우는 거라고 아빠가 말했다. 그들의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곤 했다. “한명은 발가락을 찢었을 거야!” 또는 “다른 신을 구름에서 밀쳤을 거야!” 또는 “다른 여신한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나봐!” 이유가 어쨌든, 위에서는 올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늘이 돌린 듯이 비가 엄청나게 내렸기 때문이다.

내가 갇힌 이후로 처음으로 내린 비다. 어떤 면에서는, 나무 꼭대기와 탑벽의 쿵쿵 거리는 소리가 누그러들었다. 게다가, 물이 끊임없이 생긴다. 난 그냥 등을 기대어, 입을 열고 머리만 내밀면 된다.

비 때문에 마녀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 그녀가 갖다 주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게 싫다. 스티븐 아저씨의 부엌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릇에 진짜 빨간 열매들이 있었다, 견과와 건포도도. 내가 그것들을 움켜쥐자 나를 짜러왔다. 그래도 나와 키티 아가씨가 맘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다 먹었을 때 쯤 (마치 음식 맛을 본 적이 없는 애들처럼 허겁지겁 먹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가끔 자유를 꿈꾸는 여자아이에 대한 가사를 새로 만들어 부르곤 했다. 내 이야기니까 하는 말이지만, 난 꽤 괜찮은 작사가 인 것 같다. 아마도 여기서 떠나게 되거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말이다.

제37장

8월16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거의 동이 틀 무렵, 엘킨과 나는 말에 안장을 올려놓았다. 엄마는 내가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하셨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아버지가 잡아오신 수사슴 고기도 첫 번째로 먹게 해 주었다. 아직도 우리들끼리 숲에 다시 갈 수 있게 재빨리 허락해 주신 것이 놀라웠지만, 괜한 말을 해서 엄마의 맘을 바꾸고 싶지 않다.

활과 화살을 챙기는 척을 해야 한다. 물론 숲에 들어가자마자 버릴 것이지만 말이다. 앤드류는 우리를 따라와서 아무도 그것들을 괜히 발견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다시 가져가기로 했다. 또한 왕실 화가에게 황토색 물감이 든 병을 얻어서 내가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 표시를 남길 수 있도록 주었다.

마부가 대문을 활짝 열어 주자, 물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재빠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울이 떨어졌다. 엘킨과 내가 말을 타고 한 걸음을 내미는 순간, 엄청나게 비가 내렸다. 우르릉 광광 하는 큰 천둥소리가 하늘에서 들리자 말들이 히힃 하고 울었다. 심장이 쿵 가라앉았다. 마부가 다가와 이야기를 했다. “죄송합니다, 왕자님. 마구간으로 말들을 다시 데려가야겠어요. 폭풍 속에서는 타시면 안돼요.”

말에서 내려 눈송이 몸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가 약간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괜찮을 거야.”하고 힘없이 말했다.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다.

“진짜로, 왕자님, 죄송합니다.” 마부가 고삐를 찾으며 말했다. 한숨을 쉬며 그에게 고삐를 건네주었다. 엘킨도 똑같이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내려서 빛속에서 어깨를 움츠린 채로 성으로 다시 달려갔다.

“그 애는 내일도 거기 있을 거야.” 엘킨이 마당을 가로 질러 가면서 나를 안심시켰다.

“그렇지만 확실히는 모르는 거잖아.” 대답했다. 번개가 하늘에서 치는 틈에 우리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건 네 운에 맡겨야지,” 뒤에서 소리 질렀다. 그의 짧은 다리 때문에 나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못했다 그래서 그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속도를 늦췄다. 나무토막들이 머리위에 비를 막아주는 안뜰로 함께 달려갔다.

“힘을 내,” 엘킨이 머리에서 비를 털며 말했다. “걱정거리를 떨쳐버릴 수 있게 내가 체스에서 널 이겨주겠어.”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엄마가 집에 모신 손님에게 계속 이기는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해서 한 번은 저준 거 말고는 연속 세 번 엘킨을 이긴 것은 참 재미있었다.

다음 날, 8월 17일

다행히도, 오늘 아침은 맑고 화창해서 일찍 준비할 수 있었다. 내 옷옷에 심장이 쿵 하고 부딪히는 것 같았다. 다시 노랫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지? 아마 가족들 끼리 하루 소풍 나왔다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으면 어쩌나 싶었다. 괜한 짓인가?

“확실히 괜찮겠어?” 엘킨이 길이 갈라지기 전 숲에서 물었다. “혼자 이상하게 중얼거리고 있잖아.”

“걱정해주는 건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괜찮을 거야.” 위로하는 마음에 눈송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만약에 경우를 위해서,” “이 나팔을 가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불러.” 라고 그가 말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쇠에 가족을 씌운 나팔에 감탄하며 물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사냥꾼 대장한테서 빌렸어,” 엘킨이 윙크를 하며 은둔자 아저씨의 동굴로 향하는 길 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네가 빌렸다고?” 뒤에서 소리쳤다.

“그래, 사실 훔쳤어,” 어깨 넘어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 이게 필요 없을 거고 꼭 돌려줄 거니까.”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면서 웃었다. 아마도 엘킨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더스티 로즈의 안장 뒤에 옷이 가득 든 가방이 보였다. 곧 은둔자 아저씨가 훨씬 더 나은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행히도 거센 비에도 떨어지지 않은 엘킨의 화살을 쫓아 가니, 노랫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깊이 숨을 몰아쉬고 눈을 감았다.

내 심장소리와 간혹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 바람에 조금씩 흐르는 노랫소리가 너무나도 희미하게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전력질주해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은둔자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귀를 기우렸다. 눈송이가 히힝 울었다, 마치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이. 너도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고삐를 내리고 이 녀석이 그 애를 찾게 뒤 볼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 보다는 놀랍지 않겠지. 고삐를 내렸다.

“그래, 눈송이야, 어서 그 여자아이를 찾아보자!”

그리고는 그가 움직였다! 나무들 틈 사이로 지그재그로 갔다, 그리고는 사람이 다니지 않을 법한 길로 갔다, 가끔 통나무를 오르기도 하고 낮은 다리 밑을 지나가기도 했다. 얇은 작은 가지를 부러뜨려 지나가면서 그 끝자락에 황토색 물감을 묻혀 나무줄기에 표시하면서 갔다. 음악소리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노래가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오, 깊은 바다와 건초더미 그리고 건초더미와 수영해,
아가씨가 모자 끈을 떨어뜨렸고 그 위로 그가 미끄러져,
그러나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녀도 결혼을 약속해,
오, 깊은 바다와 건초더미 그리고 건초더미와 -

마지막 모퉁이에 들어서자, 갑자기 노래 소리가 끊겼다. 눈송이가 멈춰서 나는 안장 앞에 당겨 앉았다. 귀를 기우리려고 안간 힘을 썼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가 되는 건가? 눈송이를 앞으로 더 이끌고 나무들을 지나 공터에 이르렀다. 여기서 상상도 못했던 것이 보였다- 우리 성의 감시탑처럼 생긴 큰 탑! 지금껏, 나무꼭대기들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탑에 밑에는 작은 창문이 보였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창문에서 한 여자애가 서있는 것이 보였다. 노래하는 여자아이다! 이 성에 사는 건가? 이상하군. 앞으로 다가가 보려는 순간 구부정한 늙은 여자가 탑의 아래로 다가왔다. 킁킁거리는 목소리로, “라퐁젤, 라퐁젤, 네 머리를 내려주렴.” 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에서 딸은 금발머리가 저 밑에 풀밭 아래로 떨어졌다. 입이 떡 벌어졌다. 어떻게 여자애 머리가 저렇게 길수가 있지? 왜 저 이상한 아줌마는 저 머리카락을 창문 밖으로 넣어 뜨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더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 아줌마 저 여자애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간다!!! 손을 번갈아 가며, 계속 일정한 속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창문틀에 도착하니 여자애가 뒤로 물러서고 저 아줌마가 안으로 올라갔다. 눈을 비볐다. 지금 내가 본 게 진짜야? 눈송이가 말발굽으로 바닥을 치며 히힝 울었다. 저 아줌마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싫어할까봐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송이 등에서 내려 먹을 만한 건초를 줌 주고, 근처 나무 그루터기에서 앉아 기다렸다.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오로지 저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 10분정도 지났을까, 창가 쪽으로 다시 나와서 내가 풀쩍 뛰었다. 저 늙은 아줌마가 창틀에서 딸은 머리를 타고 내려오면 난 곧장 탑으로 달려 갈 생각이다.

그 여자애는 머리카락을 안으로 들여놓고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마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확실 할 때까지, 눈송이 옆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는 탑 아래에서 서성이며 걸어 다녔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창문에 돌이라도 던져서 관심을 끌어볼까?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 내가 겨냥해서 맞춘 것들에 대한 흑 역사를 생각하면 말이야. 잘못해서 머리라도 맞출지도 모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탑의 주변을 빙빙 돌았다. 창문 반대편으로 문이 보였다, 그렇지만 시멘트로 막혀 있었다. 그럼 저 여자애는 탑에서 나올 수 없는 건가? 저기에 갇힌 거야?

그 늙은 아줌마가 올라간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창문 밑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라퐁젤, 라퐁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고 소리 질렀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직 변성기를 거치지 못해서 그 늙은 아줌마 목소리랑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게 통하다니! 그 아이가 머리카락을 내려줬다! 머리 끝자락을 잡고 올라가며 내가 너무 무겁다고 저 여자애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아줌마처럼 올라가는 것은 나에겐

그다지 순조롭지는 않았다, 계속 딱딱한 돌 벽에 무릎과 팔꿈치를 부딪쳤다. 마침내 창틀에 도착해서, 다리로 넘어 안으로 뛰었다. 그게 내가 나중에 딱딱한 돌바닥에서 일어나기 전 까지 기억하고 있는 전부이다. 머리가 육신육신한다 그리고-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고양이 한 마리가 내 귀를 핥고 있었다.

제38장

8월17일

-라폰젤의 이야기-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보다. 이 남자애를 쓰러뜨리기 전에 편히 말하게 뒀어야 했나 싶었다. 마녀인 척 하면서 나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하느라 그렇게 됐다. 지금은 그 옆에 서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릇으로 때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키티 아가씨는 잘 모르는 내 눈으로 봐도 아주 멋들어지고 잘 만들어진 저 남자애의 옷 냄새를 맡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귀를 핥고 있다. 그는 그릇으로 맞아 쓰러져 있다가 깨고 나니, 손으로 내가 때린 부위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안경다리가 하나가 분질러져서 얼굴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다.

“왜 그랬어?”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는 천천히 똑바로 앉아 탁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하긴 남자애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알고 있었나 보다. “네가 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왔잖아! 구지 말하자면, 넌 불청객이라고.”

“여기 들어올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가 말했다. “이 곳은 감옥보다도 더 꽁꽁 잠겨 있던데.”

“주위를 둘러봐.” 내가 말했다. “여기가 바로 감옥이야.”

그는 안경을 찾다가 부러진 다리를 발견했다.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망토에

있는 다른 주머니 안에서 다른 안경을 꺼냈다. “이게 내 마지막 안경이야,” 그가 안경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넌 감옥수인 거로군. 그렇지만 위험한 범죄자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가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물론 샐러드용 그릇을 아주 잘 휘두르긴 하지만! 이제 내려봐도 돼. 널 해치려고 오지 않았어, 안심해.”

내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마녀에 비하면, 그는 날 해칠 것 같지는 않았다. 난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키티 아가씨가 먹을 우유가 있는지 확인했다. 가엾게도 남자에 무릎에 앉아 웅크려 자고 있었다.

“뭐, 내 고양이가 널 좋아하나봐. 이제 네가 왜 여기 왔는지 말해 줄래?”

“숙녀 먼저,” 그가 말했다. “너는 왜 여기 있는지 말해줘.”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버릴까 싶어서 그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다. 진심으로 놀라 숨 막혀 하기도 하고 내가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신발이 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몇 번은 웃기도 했다.

“진짜 굉장한 이야기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마녀라든지 지하 동굴에 사는 작은 녹색 괴물 같은 것들이 진짜 존재한 다는 것도 몰랐어.”

내 얼굴이 어두워 졌다. “그럼 내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오, 아니야,” 재빨리 말했다. “물론, 믿지.”

“잘됐네.” 안도감에 말했다. “안 그랬다면 또 샐러드 그릇으로 다시 널 때렸을 거야.”

그가 활짝 웃었다. 그는 예쁜 미소를 갖고 있었다. 머리는 좀 잘랐으면 좋겠지만 내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네 차례야, 나는 네 이름도 몰라, 또 네가 왜 이 탑에 왔는지도.”

조심스럽게 키티 아가씨를 무릎에서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보기보다 키가 꽤 컸다. “라퐁젤 아가씨, 잘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왕자입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뭐! 내 인생에 참 흥미로운 변환점이군. 왕자가 나를 구조하다니! 그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다. 그를 올려다보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져서 나도 일어섰다. 나와 키 차이 별로 없다는 것이

기쁘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따라왔어.” 그가 말했다. “거인이 알고 보니 은둔자 아저씨였고 그가 귀를 우리라고 하더라고. 이 탑은 우리 아버지 성에서부터 멀지만 너를 찾아냈어. 내 말인 눈송이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뒤편 할 말이 없었다. “내 노랫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거인은 무슨 이야기야?”

왕자는 나처럼 모험 가득한 그의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다. 별을 받을 각오를 하고 몰래 빠져나와서는 나를 찾으러 왔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밑에서 내가 나를 받아 준다 해도 창문에서 뛰어 내릴 수는 없어.”

“내가 왕실 근위대에 알려져 숲을 가로질러 와 너를 구라하고 할 수도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다리를 가지고와서 너를 내려줄 거야.”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재빨리 말했다. “마녀는 아주 똑똑해.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치 채서 나와 우리 부모님에게 복수를 할 거야. 제발, 왕국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돼.”

그는 방안을 돌아다녔다. “그렇다고 사다리를 말 뒤에 실을 수는 없어- 크기가 맞지 않아. 그리고 바닥까지 닿을만한 길이의 밧줄도 없어.”

“나도 알아!” 흥분해 말했다. “사다리를 만들 수는 있지. 실크가 적당히 버틸만한 힘을 갖고 있어. 그리고 네가 쉽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성에 실크는 없어?”

“엄마가 많이 갖고 있지. 집에 다시 가서 내일 가져올게.”

기쁨에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긴 천들을 가지고 오면 같이 묶어서 매듭을 진 다음에 그걸 타고 내려갈 수 있어.”

“분부대로 대령 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번엔 내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 가는 게 낫겠어. 마녀가 널 여기서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창가 쪽으로 가서 내 땅은 머리카락을 내려주었다. 난간에 올라가 서는, “내가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내가 고개를 저었다. “내 머리카락은 뭔가 모르게 마법에 걸렸어. 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그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일 보자,” 그가 소리쳤다. “그 때까지 잘 있어.”

“오늘이랑 비슷한 때 와,” 내가 답했다. “마녀가 가는 걸 꼭 확인하고.”

그가 바닥에 닿았을 때, 나는 기대어 흰 말을 타고 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이 그에 비해 좀 작아 보였지만 말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아주 아끼는 것 같았다. 재빨리 머리카락을 올리고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왕자가 키도 크고,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귀엽다. 예전에는 남자애들이 귀엽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새들이 창문을 지나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곧 나도 저들처럼 자유로워지겠지. 약간 볼이 아픈 것 같아 만져보았다. 아, 아직도 웃고 있구나— 그래서 내 얼굴이 빠근한 거였어!

제39장

8월17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빨리 성으로 돌아가서 엘킨과 앤드류에게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들은 아마 믿지 않겠지. 황토색 표시가 있는 나무들로 다시 길을 찾기가 쉬웠다. 시내에서 눈송이에게 약간 물을 먹인 다음 엘킨을 기다렸다. 실크를 어떻게 모을지 좀 불안하다. 다행히도 엘킨이 머지않아 나타났다.

“노래하는 여자애를 찾았어?” 더스티 로즈를 데리고 와 눈송이와 시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물었다. “잠깐, 말하지 않아도 알거 같아! 네 얼굴에 다 써져있어!”

“무슨 말이야?”

“네 얼굴이 촉촉하고 감성에 젖어 있어.”

“아니거든!”

“그럼, 나한테 이야기해봐,” 말들을 길로 다시 데리고 오면서 말했다.

“빨리 집에 돌아 가야해. 앤드류랑 같이 있을 때 말해줄게.”

“알겠어,”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전속력을 다해 앞서 갔다.

마구간에 도착해도 아직 해가 떠 있을 것이다. 라폰젤과 같은 여자애를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다. 그 애가 있으니 내가 멍청이 같지 않았다. 그리고 눈송이에 대해 말했는데 그 이름 갖고 놀리지 않았다. 똑똑하고 재미있는 아이였다. 엘킨이라면 아마도 목욕이 필요하다고 말했겠지만,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녀의 녹색 빛 눈은 예리하고, 그녀의 금발은 실크처럼 반짝거렸다.

마부들에게 말들을 인도하고 성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아버지는 황제의 방에서 나왔고, 앤드류와 새로운 기사도 뒤따랐다, 둘 다 장부들과 지도들 더미를 짊어지고 있었다. 새로 온 기사는 키가 너무 작아서 손에 책들을 쌓아 놓으니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앤드류가 언젠가 대지주가 되면 견습 기사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 그리울 것이라고 했다. 물론 분명 그들도 그가 보고 싶을 것이다.

“애들아, 안녕 하느냐!” 아버지가 우리 둘의 어깨를 토닥이며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같이 산책하며 너희들의 공로에 대해서 말해 보거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몇몇 남작들과 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트 회장까지 긴 복도를 같이 걸었다. “어,” 내가 시작했다. “바쁘신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당치 않다,” 그가 말했다. “좋은 사냥 이야기를 들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자 이제 말해 보거라, 뭘 잡아왔니? 여우? 사슴 몇 마리?”

우리 둘 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자 그가 “산토끼? 다람쥐?”라고 말했다.

엘킨이 “거의 다람쥐를 잡을 뻔 했는데 도망갔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숲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 됐다, 그러나 그의 큰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웃으셨다. “내가 너희들만큼 할 때에는 네 번째 사냥을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걱정하지 말거라, 곧 잡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깨에 긴장을 풀고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부,” 엘킨이 말했다. “계속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고개를 돌리고 앤드류와 세 명의 기사들이 뒤를 따랐다. 내 옆을 지나가며, 앤드류가 속삭이었다, “내가 여기서 빠져 나면 바로 네 방으로 갈게.”

“빨리 와,” 나도 속삭였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엘킨에게 갔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다. 침실로 올라가는 모퉁이에서 그를 발견했다. 계단에서 그를 만났다. “내가 착각했나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한테서 도망가는 줄 알았어.”

“맞아,” 그의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투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왜?” 내가 물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앤드류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냥 두 번 말하기 싫어서 그랬어! 이야기가 길 단 말이야!”

계단 위까지 올라갔다. 여기서부터 우리 침실은 반대편에 있다. 주저하지 않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나도 따라갔다.

“이봐,” 무거운 참나무로 만든 문 앞에서 서서 그가 말했다, “매번 앤드류 다음이라는 거 이젠 지켜워.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그가 와서 이렇게 된 거지만. 너의 돌끼리 해도 잘 해결 할 거야.”

나는 멍했다. “그...그렇지만 너는 항상 나에게 지독하게 굴었잖아. 내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앤드류와 친구가 된 이유는 그가 날 좋아하기 때문이야!”

“내가 끔찍하게 굴었던 건 외로웠기 때문인 거 같아. 내가 올 때마다 네가 날 무시했잖아.”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달라.”

“뭐,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음, 나는 아니야.”

우리는 팔짱을 끼고 서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찌라고?” 내가 눈싸움을 피하고 물었다. “우린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같이 보물 사냥을 갔

고 대단한 일들을 같이 발견했어. 이러한 일들 짚은 이겨낼 수 있어.”

엘킨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도 모르지. 은둔자 아저씨도 그렇게 말했겠거야. 그 아저씨 상당히 현명해.”

손을 내밀었다. “악수할까?”

우리 모두 악수를 한번하고 같이 고개를 까닥였다. 나도 모르게 서로 꿀밤을 때렸다. “아야!” 동시에 소리쳤다, 그리고는 웃으며 끝이 났다.

“오늘로써 두 번째 머리를 맞은 거야.” 내가 말했다. “내 침실로 와 모든 이야기를 해줄 테니.”

서로의 머리를 맞대며,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라폰젤한테 맞은 머리에 혹이 아직도 느껴진다. 앤드류가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내가 더 기다렸어야 했다면 폭발했을지도 몰라!” 앤드류가 말했다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세 명이 우르르 들어갔다. 등 뒤에 문을 닫고 가능하면 문 앞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아무도 엿듣지 않았으면 했다.

내가 라폰젤을 찾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열정적으로 들었다. 그들은 그릇으로 맞은 부분에서는 웃고, 마녀가 그녀의 가족에게 한 짓과 그 작은 방에 그녀를 감옥수처럼 가둬 놓는 것을 이야기 할 때에는 암울해 보였다. 라폰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실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엘킨은 망을 봐주겠다고, 재봉사의 작업실 앞에서 보초를 서면서 자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앤드류의 훈련의 일부는 천 종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실크를 훔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앤드류에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 돌아온 이후로 엄마를 본적이 없었다. 기사들은 이 곳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저장용 창고에 몇 시간 전에 내려가시는 것이 다야,” 그가 말했다. “애나벨은 혼자 솜바꼭질을 하고 있어. 보아하니 아주 잘 솜더라고, 왜냐면 엄마가 거의 삼십분 동안 하인들과 함께 찾으려 다녔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 놀이를 하자고 나도 끌어들었었지. 근데 늘 항상 똑같은 곳에서 찾았어.”

“그게 어딘데?” 앤드류가 물었다.

“바로 여기,” 내 옷장 문을 열며 말했다. 당연히 내 겨울 여행용 망토위에 웅크린 채, 애나벨이 엄지를 빨면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밤

밤 보초를 서고 있는 경위 대와 몇 명의 하인들 빼고는 성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우리는 몰래 앤드류의 작은 기름 등의 안내로 복도를 걷고 있었다. 밤에는 성안의 이곳이 아주 조용하고 어둡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아무도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봉사의 작업실에 도달했다 그리고 엘킨은 보초를 태세를 하고 있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나무가 돌바닥에 긁혀 끼이익 소리가 날 때 눈살을 찌푸렸다. 앤드류가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선반으로 향했다. 선반에 두루마리 천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두워서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감으로 어떤 재질인지 골라내야해.” 앤드류가 속삭였다, 다음 천을 만져보기 전에 손을 뺀어 말려있는 천을 약간 풀었다.

나는 다른 선반에서 시작했다, 손가락 사이로 천들을 하나하나 비벼보면서 말이다. 좀 거친 느낌은 울이나 가죽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느낌이다.

“우리 이럴 시간이 없어,” 그에게 말했다. “그냥 강해 보이는 재질로 골라, 그리고 빨리 나가자.”

“그래, 그러자,” 재빨리 양쪽으로 두 세 개쯤 당겨보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는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선반에서 내려주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해 그래야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지,” 내가 말했다.

등불을 집어 들고 방 주변을 밝혔다. 자르는 도구를 가지고 식탁으로 그를 따라갔다. 양 끝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충분히 될 때까지 두껍고 긴 조각으로 천을 잘랐다. 나머지 두루마리는 두고 재빨리 밖에 문에 앉아있는, 엘킨에게 갔다, 곤히 잠들어있었다! 앤드류를 우리 뒤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엄마?” 라고 말하면서 엘킨이 잠에서 깬다, “이불을 덮어 주시려고 왔어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앤드류와 나는 입에 주먹을 물고 성에 모든 사람들을 깨울까봐 비명과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제40장

8월18일

-라퐁젤의 이야기-

아침에 마녀가 올 때가 되자, 나는 잊지 않고 풀이 죽어 낙담한 모습을 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보통 때 같으면 내 음식을 전달만 해주고 가는데, 오늘은 좀 더 있을 모양이다. 그녀는 항상 머리위에 빙빙 돌고 있는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있다, 아빠 텃밭에서 처음 봤다. 저걸 보니 스티븐 아저씨가 생각하는데 제발 은신처에 잘 숨었기를 바란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녀가 가져온 감자와 비트를 먹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내가 먹는 것을 보고는, 그녀는 냇을 놓고 나를 지켜보았다. 잠시 동안 쳐다보니, 맹세코 얼굴의 사마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었다. 먹은 것을 토할 것 같았다. 그 다음 바로 고개를 숙였다.

끝내 말을 꺼냈다. “너와 그...그.. 땅굴 속 괴물이 왜 도망치려 했는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네가 조금은 이해가 되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기 바깥세상에 삶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커가는 아이에게 뭐가 가장 좋을지는 내가 더 잘 알아. 너도 내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모든 의지를 다해 그녀에게서 배울 것은 전혀 절대로 없다고 소리치고 싶은 것을 참았다, 왜냐면, 어차피 다시는 눈에 안 뵈 거니까. 그녀가 드디어 갔다, 그리고 왕자가 오기 전에 서둘러 청소를 했다. 청소할 것이 별로 없긴 하다. 의자를 식탁 밑에 넣고 “침대”에 담요를 정리했다. 땀은 머리에서 빠져 나온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굵힌 상처가 다 아물었다, 그리고 여드름도 사라

졌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원피스와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짐 가방은 두고 갈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갈 것 몇 개만 챙겼다 - 숟가락과, 거의 망가졌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짜준 솔. 키티 아가씨도 물론, 같이 갈 것이다. 마녀를 뺀 나머지는 모두 환영이다.

마침내 밑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창문으로 서둘러갔다.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말해주려는 마녀가 아니기를 기도했다. 다행히 왕자님이다! 자주색 실크 더미가 담겨있는 가방을 들고 왔다.

그에게 씩 웃어보이고는 내 땅은 머리를 던졌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올라왔다, 그렇지만 마녀보다는 느렸다.

“실크 구하기 어려웠어?” 기어 들어오자 그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안에 사람들이 많거든.” 가방을 옆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끝부분을 묶어 긴 밧줄을 만들었다.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 그가 물었다, “한번 시험해 볼까?”

끄덕이며 창문 쪽으로 갔다. 왕자가 한쪽 끝을 창문을 고정하는 오래된 쇠덩이에 묶고 떨어뜨렸다. 둘 다 창틀에 가서 구경했다.

“뭘,” 그가 말했다.

“흠,” 내가 말했다.

“아직 길이가 충분하지는 않지, 그렇지?”

고개를 흔들었다. “내 생각에는 매듭을 다 묶으면 길이가 맞을 수도 있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보진 않았네. 오늘 밤에 좀 더 구해볼게, 그리고 내일은 꼭 나가자. 이걸 성에서 마무리 쳐 올게.”

끄덕이면서 그러면 참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울고 싶었다. “오늘 갈 때 키티 아가씨를 같이 데리고 가 줄래? 그러면 적어도 애는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물론이야,” 그가 말했다. 아마 그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바닥에서 햇별을 쬐고 있던 키티 아가씨를 들어 올려 코에 뽀뽀를 했다. “성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 키티 아가씨. 좋은 사람들이야.” 내 턱에 발바닥을 갖다 대니 울컥했다. 내가 더 창피해지기 전에 벤자민 왕자에게 고양이를 건네 주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빈 가방에 집어넣고 그의 가슴팍에 안전하게 넣어

두었다.

“걱정 하지 마,” 내가 밑으로 머리카락을 내려주자 그가 말했다.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더 이상 말을 하면 눈물이 폭발할지도 몰라서, 끄덕이기만 했다.

제41장

8월18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엘킨이 이 시간에 깨어있겠다고 약속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다리를 항상 들고 있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하면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다. 실크로 만든 사다리가 묶으면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게 너무 바보같이 느껴진다. 거의 바닥에 반도 못 갔다. 라퐁젤은 애써 용감한 척을 하지만, 실망한 여력이 가득해 보였다. 키티 아가씨를 왕실 애완동물들이 있는 방에 넣어두었다. 그 곳에서 낮과 밤 내내 돌봐주고 밥도 주는 곳이다. 왕실 애완동물 조련사에게 친구를 대신해서 맡은 거라 특별대우를 해 달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내 말로 표현하자면, 나도 그에게 목례를 했다.

앤드류가 천 두루마리를 중얼거리면서 찾고 있다, “어디 있지? 어젯밤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등불을 올려 그가 더 잘 볼 수 있게 했다. 자주색 두루마리는 내가 어제 넣어둔 선반에 없었다. “너 혼자서 찾아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거실에서 엄마를 만나야 하거든. 엄마가 나한테 할 말이 뭔지 알아?”

앤드류가 고개를 저었다. “넌 가봐- 내가 찾을게.”

엘킨에게 지나가면서 격례를 하고 서둘러 나갔다. 그에게 도움이 됐는지, 한 다리로 아주 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성에서 달려서 거실로 갔다. 엄마는 벽난로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 눈이 따라갈 수도 없이 아주 빠르게 뜨개질바늘이 움직였다. 애나벨은 그녀의 발 위에서 돌고 있었다. 저 아이

는 잠자는 시간도 없나?

“안거라, 벤자민,” 엄마가 팔꿈치로 옆에 앉으라는 표시를 보내며 말했다.

엄마가 탑에 갔다 온 것을 알아챈 건가? 그러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중하게 나에게 말씀을 하는 일은 흔치 않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매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다. “전혀 그 반대야. 좋은 소식이 있단다.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벤자민. 너의 미래 부인을 점찍어 뒀다, 세 왕국 건너 사는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야. 네가 17살이 되면 네 생일 날 결혼식이 거행될 거야.”

애나벨이 갑자기 머리를 숙 내밀며 꺾꺾 거렸다, “나, 벤지도, 약혼 했찌! 우리 둘 약혼 했따아!”

이 소식에 멍해야 하는 순간이다.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엄마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자주색 예복이 눈에 띄었다.

“저 실례 좀 해도 될까요?”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서 풀쩍 뛰어서 복도를 돌아 작업실로 뛰어갔다. 잠깐 까먹었는데, 엘킨이 다른 발로 바꿨다. 앤드류는 그 자리를 엉망으로 어지럽히고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실크가, 실크가 어디에도 없어!”

“그만 찾아도 돼,” 내가 말했다. “엄마가 입고 있어! 아, 그리고 나 이제 약혼했어.”

그러자, 엘킨이 작업실 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앤드류가 재봉사의 마네킹을 쓰러뜨리면서 나에게 서둘러 다가왔다,

“네가 약혼 했다고?” 엘킨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내가 약혼 했어,” 따라 말했다. 무릎을 꿇었다. “내가 어떻게 약혼을 하지?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이제야 만났는데 말이야.”

저녁 후

엄마의 발표에 집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내 고민만으로도 걱정거리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방해 받을 수 없다. 그 예복을 가져와야만 한다. 또 다

시 라폰젤을 실망 시킬 수는 없다. 엘킨와 앤드류에게 절대 나에게나 그들끼리라도 약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오늘 밤 우리의 목표는 그 예복을 가지고 오는 거야. 엄마는 곧 잠에 들 테니까 그다음 엄마 방에서 몰래 가지고 오는 거야.”

“그냥 다른 천으로 하면 안 돼?” 엘킨이 물었다.

앤드류가 고개를 저었다. “다른 것은 강하지 않아. 그리고 다음 물건들은 일주일 뒤에나 와.”

두 시간 뒤에, 엄마는 드디어 침대에서 코를 골고 계신다. 아버지는 황제의 방에서 관리인과 왕으로써 염소와 숨겨진 감자들에 대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엄마의 시녀, 카산드라가 엄마 방에 옆문에서 자리 잡고 있다. 그녀를 계속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소리가 들릴 거야. “네 차례야, 앤드류,” 그에게 그녀 뒤로 밀치며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에 카산드라가 나랑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너를 몇 년 동안 맘에 뒀었잖아,” 그에게 확신을 줬다. “그냥 5분 동안만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줘.”

“알았어,” 앤드류가 마지못해 이야기 했다. “너 나한테 빚 진거야.”

“결혼식 때 반지를 들고 있게 해줄게!” 엘킨이 그의 뒤서 조심스럽게 소리 질렀다.

그를 약간 밀쳤다. “너 약속했잖아!”

“미안,” 소심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그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눈동자를 돌리면서 문 옆에서 그의 자세를 취할 때 다리를 들고 있었다. 다행히도 엄마방의 문에 기름칠이 잘 되어있어서 조용히 열렸다. 벽에서 빛나고 있는 등불이 내가 가는 길을 충분히 비춰주고 있었다. 방안을 살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똑같이 생긴 예복들 한 20개가 나무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가장 새 거를 조용히 꺼내 옷걸이에서 빼내어 내 어깨에 걸쳐놓았다. 그다음 바로 가기 전에 옷걸이도 집었다. 빈 옷걸이를 보면 엄마가 뭔가 잃어버린 것을 눈치챌 것 같아서 이다. 옷을 꺼낼 때 다른 옷걸이들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엄마는 계속 코를 골고 계셔서 방에서 슬금슬금 빠져

나왔다. 앤드류의 말대로 무거운 장화를 벗어두고 오길 잘했다.

내일은 라퐁젤을 구조하는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리고 세 왕국 너머에 사는 공주와 결혼 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말할 것이다.

뭐, 일단 첫 번째 것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부분은 더 용기가 필요하겠지.

제42장

8월19일

-라퐁젤의 이야기-

새벽이 되기 전에 깬다. 밑에서 마녀가 나를 부를 때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다. 그녀가 빨리 올수록, 더 빨리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벤자민이 와서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내가 잘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검은 새들이 다른 때 보다 천천히 배회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침내 마녀가 불렀다, “라퐁젤, 라퐁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그래 이제 마지막 이니까. 이보다 더 빠르게 내릴 수는 없다.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다.

창문틀에 다리를 하나 걸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진짜, 왕자면 줄 알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올라오는 것을 멈추었다. 그 전에는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멈춰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렇게 크게 말했나?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마녀가 마저 올라와 식탁에 음식 그릇을 올려놓았다. 아직도 숨을 죽이고 있다. 아마도 못 들었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소리를 했나?

운이 없다. 눈 깜짝할 사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화가 난 것을 전에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끝이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이 얼굴에서 실질적으로 튀어 나올 것 같았다. 무서워하기에는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

“혼자서 세상이 어떤지 그렇게나 간절히 알고 싶니? 자, 너에게 기회를 줄게.”

잠시 동안 나를 보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가위를 급히 꺼냈다, 그걸 보니 긴 검정 코트 안에 뭐가 더 들었는지 궁금해 졌다. 내 뺨은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창문 안으로 던져 발에 감겼다. 그리고는 뒤돌아 내 바로 뒤로 갔다. 가위 날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단번에 내 뺨은 머리를 짝둑 잘라 버리고는 그것을 들고 창문으로 갔다. 먼저 멍한 기분이 들었고, 그다음에는 손이 절로 머리에 갔다. 애기 때 이후 처음으로 목이 썰렁했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느낌을 만끽할 시간이 없다. 마녀가 나를 창문으로 끌고 가더니 창문을 이은 쇠붙이에 내 뺨은 머리를 묶은 것이 보였다. 원래 집에서 나를 끌고 올 때처럼 그녀의 팔 아래에 나를 잡고 끌어 당겼다. 그 다음 나를 그대로 끌어당긴 채로 창문으로 올라갔다. 뺨은 머리 아래로 미끄러졌다. 만약 지금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나만 아니면, 지금 당장 때렸을 것이다.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냥 왕자에게 실크로 만든 밧줄을 만드는 것 말고, 가위를 가져오라고 했다면 지금쯤 집에 가 있었을 것이다. 살아가기에 너무 멍청하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맞바꾼 게 분명하다.

마녀가 마차에서 말을 때어냈다. 말 등에 타더니 앞에 나를 태웠다. 나를 너무 꽉 잡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무들 틈을 해 짚고, 개울을 건너, 통나무들이 있는 곳까지 이르러 길을 완전히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거의 떨어질 뻔 했다.

그녀는 나를 말에서 들어 던졌다 (나를 던졌어!) 큰 나무 덩불들이 원을 그리고 있는 사이에 말이다. “운 좋게 오늘 밤 잘 살아 남도록 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고 가버렸다.

내 무릎위에 습지가 있었다. 지금 어떤 느낌이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희망들은 다시 무너졌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덩불에 가시가 가득했다. 나무의

쑥 뻗어 나온 가지들이 아침 해를 잘 가려주는 보호막이다, 그러나 저녁에는 또한 아주 추울 것이다. 난 여기에 잘 숨겨져 있다. 왕자가 키티 아가씨를 데리고 간 것이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다. 여기서는 위험할 테니까.

큰소리로 혁 하는 소리를 냈다. 왕자! 탑에 올 텐데 내가 없잖아! 그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절대 모를 거야. 그의 친절을 거절하고 떠난 줄 알거야! 아마도 이게 다 꿈 이여서 애초에 왕자는 없던 걸지도 몰라. 아니 고양이. 아마도 마녀가 내게 마술을 걸어서 이런 것들을 다 믿게 했을 지도 모르지. 힘이 다 빠지고 배고픔만 밀려 들어왔다. 가장 가까운 덩불로 기어가서 열매 한줌을 따왔다. 무기력하게 씹어 먹었다, 그리고는 공처럼 웅크려서 오늘 일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정오

하루 종일 시도해봤다, 그러나 숲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없다. 이 밑에 세상은 탑 창문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먼저, 시끄럽다. 벌레들과 새들 그리고 동물들이 여러 가지 짹짹 소리, 부르는 소리, 캥캥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무 밑에 갇혀있던 이슬 때문에 축축하다. 물방울에 적어도 세 번 맞았고, 벌레에 적어도 한번은 물렸다. 일어나서 다리를 뻗으려 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일어나서 놀라웠다. 뭔가 다른데. 내 머리카락! 마녀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녀가 결국 생일날 잘랐어야 했던 머리카락을 잘라 줬네! 생일이 너무 오래 전처럼 느껴진다. 그때보다, 나는 더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잘린 머리카락이 아주 잘 어울린다.

지금 내 상황이 놀랍다. 열매 빼고는 먹을 것도 없고, 그저 단지 나뭇잎으로 이슬도 받아먹고 숲 바닥에 양탄자 역할도 한다. 만약 까끌까끌한 덩불들 사이였다면, 결국엔 피도 나고 상처 난 채, 다른 쪽으로 갔을 텐데. 심지어 학교를 조금밖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피가 동물들을 부른다는 것은 안다. 최소한 이 원 안에서는 어쨌든 보호받는 기분이니까.

오랫동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쉬었다. 계획하는 것은 끝났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어. 지금껏 스티븐아저씨의 말을 믿어야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 이다.

노래 할 수 있다.

제43장

8월19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눈송이를 타고 탑 아래도 단번에 가서 내렸다. 내 가방을 들고 소리쳤다, “라퐁젤, 라퐁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런 음 조금 더 재치 있게 덧붙였다, “그래야 거기에서 빼내어 줄 수 있어요!” 아, 항상 좋은 시는 구닥다리가 될 수 없어.

라퐁젤이 머리카락을 내려주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겠다. 이제 알겠다: 아주 못하지 않는 운동을 찾아서,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 될 거야. 창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어서 빨리 꼭두새벽까지 만든 이 사다리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끝부분에 여자아이는 없었다. 거기에는 오로지 못생기고 화나난 무서운 마녀가 있었다. 미친 듯이 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라퐁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따졌다. 똑바로 서서 가장 위풍당당한 눈빛을 했다. 전혀 움직임이 없다. 팔을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벽으로 나를 넘어뜨렸다. 타격 때문에 귀가 멍해졌다, 그리고 안경이 저쪽 반대편 방으로 떨어졌다.

“네가 왕자라서 뭐든 원하는 데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보지?”

그녀의 말들이 아리송했다. 내가 들은 거라고는 왕자와 뭐든 이라는 말 뿐이다. 고개를 끄덕여야 하나 아님 흔들어야 하나? 뭐가 그녀를 화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끄덕이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왜냐면 날아가서 턱이 벌써 내 가슴 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개를 약간 들어 한번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틀린 답 이었나보다, 왜냐면 그 다음은 내가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마녀가 나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넘어지면서 땅은 머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것을 잡

는 순간, 힘이 너무 강해서 창틀의 쇠붙이에서 머리카락도 나와 같이 떨어졌다. 죽을 때가되면 인생의 기억이 눈에 스쳐간다는데 그 말이 맞나보다. 내가 두 살 때, 그레이트 잔디에서 처음으로 걸었을 때가 보인다. (늦게 걸음마를 뒀다) 7살생일 때가 생각난다. 엘킨 대신, 앤드류 보고 내 옆에 앉으라고 했다. 재미있군. 아마 엘킨에게 잘 해주지 못했다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사과해야겠다. 그건, 다음 생에서. 저기 내가 열 살 때 산파가 처음으로 나에게 애나벨을 보여줬고 그 애가 내 엄지를 잡더니 놔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진 라퐁젤이 보인다. 내 마지막은 그녀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녀를 실망시켰던 것에 대한 것이었다.

바닥에 떨어지면 분명 허리가 부서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장에 바로 앉았다. 믿을 수 없어! 눈송이가 떨어지는 나를 받았다! 마녀가 뭔가 창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냥 나에게는 소음처럼 들린다. 눈송이의 목에 뽀뽀를 해주고 싶지만, 안경이 없이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오랜 친구, 다 너에게 달렸어, 집으로 데려가 주렴. 마녀가 우리에게 저주를 하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고삐를 내리고 그의 목을 꼭 잡았다. 눈을 감고 눈송이가 단번에 질주했다. 몇 시간이 지났다. 라퐁젤이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 자신을 실망시켰던 왕자에 대해 다 잊어버렸겠지 라는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숲은 아주 고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 귀가 안 들려서 이다. 개울에서 물을 마시려 눈송이가 멈췄고 나도 함께 했다. 내 얼굴과 목에 물을 끼얹었다. 아무것도 익숙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쨌든, 모든 게 흐릿하다. 그냥 눈송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믿을 뿐이다. 다른 선택권이 없잖아?

황혼

아직 해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숲에 빛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성에 돌아갔어야 하는데. 황소개구리의 개굴개굴 우는 소리와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들리는 걸로 보아 귀가 이제 상당히 잘 들리고 있다. 만약 떨어져서 죽기라도 한다면, 저 늑대들이 다가 올 것이다.

앞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다 보면 아버지가 숲으로 오실 것이다. 혹시나 개 굴개굴 소리나 늑대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거든, 말이 길을 안내하도록 내버려 뒤편 한다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까보다. 아버지가 남작들과 술집에 나를 데리고 갔을 때 부르셨던 노래 같은 것이 들린다. 가능한 최대한 귀를 기우렸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바로 그때의 그 노래다!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장미 빛, 통통한 동그란 당신 얼굴을 한 당신,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남자들이 뒤 따라 갔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말했지,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결혼은 도대체
왜 하나고?

라퐁젤! 저 목소리는 어디서든 알아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인적도 없는 곳인데?

“라퐁젤!” 소리쳤다. “내 목소리 들려?”

노래가 멈췄다. “벤자민 왕자? 진짜 너야?”

“너 어디 있어? 나 아무것도 안보여.”

“덤불로 월이 그려진 곳에 있어. 보여?”

“마녀가 내 안경 부러뜨렸어. 아무것도 안보여.”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보
였다. “그렇다면 너를 발견했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곤란하게 만들었어.”

계속 눈송이가 나를 안내하도록 내버려 뒀다. 여태까지 라퐁젤의 목소리
때문에 끌려 여기까지 왔나보다. 성 쪽으로는 전혀 가지도 않았던 거다. 내
생각보다 자신감 있게 선언했다. “걱정하지 마, 라퐁젤 아가씨, 다시 너를 구
하러 왔어. 이번엔 진짜야.”

그녀가 웃었다. 음악소리 같았다. 진짜 엘킨 말처럼 부드러워 졌군!

“네가 보여!”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덤불들 위로 네 머리가 보
여. 내가 너한테 갈수가 없어 왜냐면 덩굴에 가시가 가득해서 그리고 우리
둘 다 피가 나면 어떻게 해.”

“너한테 내 망토를 전달 해 줄게. 가장 낮은 덤불 밑에 두면, 그걸 받침삼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어?”

“그럴 거 같아!” 라퐼젤이 말했다. 눈송이보고 왼쪽으로 몇 발자국 더 가라고 해. “

그녀가 말한 대로 따르고는 망토를 덤불 위로 던졌다. 머리위에 망토가 떨어질 때 까지 여러 번 시도했다. “받았어?” 소리 질렀다.

“응!” 그녀가 대답했다. “끝자락으로 잡았어.”

“이제 올라와,” 그녀에게 말했다. “내 쪽에 있는 끝자락을 잡고 있을게. 그래야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 있어.” 쉽게 끝자락을 찾았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실패했다. 말에서 내려서 눈송이 옆에 섰다.

“덤불 꼭대기에 오르거든 망토에 미끄러져, 그러면 눈송이가 바로 여기 있을 거야.”

“위에 있어,” 신이 나서 말했다. “이제 너랑 눈송이가 보여.”

“조심해,” 주의를 주었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조금 뒤에 안장에 툭 하고 떨어졌다. 말을 껴안고는 깡충 뛰어 내려서 나를 안아줬다. 여자애가 나를 안다니! 남자라면 다시 안아주는 거 말고 뭘 해 줄 수 있을까?

그녀가 빠져나갔다. “너한테 줄게 있어,” 그녀가 말했다. “손을 내밀어 봐.”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한테 열매를 주려고 하나? 그것도 나름 좋고 신선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서둘러야 한다. 지금쯤이면 성에서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준건 열매가 아니었다. 안경을 내 손위에 올려놓았다. 내 안경이다! 안경을 다시 끼니, 세상이 모두 초점이 맞았다. 라퐼젤이 설명하던 모든 것들을 달빛에 보였다.

“어디? 어떻게? 언제?” 말을 더듬었다.

그녀가 웃었다. “네가 처음 탑에 왔을 때 두고 갔어, 어, 떨어져 부서졌지. 이걸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있었어. 그래야 마녀가 볼 수 없으니까. 안경다리를 너한테 맞게 구부렸어. 너처럼 자주 안경을 부서 먹을 정도라면, 그냥 항상 대기 하고 있는 안경사를 두는 게 낫겠어.”

이제 그녀를 안아줄 차례이다. “네 말이 맞아! 집에 돌아가자마자 안경사를 임명해야겠어. 딱 알맞은 사람을 알고 있어!” 단번에 다른 벤자민 아버지에게 연 중 내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랬다면 보물 사냥을 가지 않게 되었을 거고, 라푼젤을 구할 수 없었겠지.

아니 그녀가 나를 구해준 건가?

제44장

8월19일

-라푼젤의 이야기-

지친 눈송이가 드디어 숲 밖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멀리서 큰 성이 보인다.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새벽이 아니라 오히려 정오 같다.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풀밭을 지나야 한다. 말을 탄 남자들 무리가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중 한명이 우리를 보더니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왔다. 그가 더 가까이 오자, 머리위에 왕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왕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말 위에서도 하는 건가?

“벤자민!”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라푼젤! 너희 둘이 다 안전해서 다행이야!”

방금 내 이름을 부른 건가? 안장에서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다. “재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벤자민이 고개를 흔들었다. “맹세컨대, 나도 잘 몰라.”

왕이 말에서 내리고,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는 왕자에게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랫동안 포옹을 했다. 어떤 아줌마가 풀밭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치맛자락을 들며, 그리고 울면서 실질적으로 그에게 몸을 던졌다. 왕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마침내 빠져나왔다.

“엄마, 아버지, 이 아이는 제 친구 라푼젤이에요. 그녀는 거기 갇혀-”

“탑 안에,” 그의 엄마가 말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 그래,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요?” 왕자가 물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맞아, 너를 잘 알지. 엘킨!”

“아들, 그를 탓하지 말거라,”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가 널 찾으러 갔어. 네가 남겨 놓은 표시들을 보고 덩그러니 있는 탑에 갔다가 소리 지르는 마녀를 발견하고는 단걸음에 달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했어. 앤드류와 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엘킨은 왕실 근위대를 그곳에 다시 보내서 출구를 영원히 막아버렸어-마녀를 안에 가둬둔 채로.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법을 걸지 못할 거야.”

“탑에 마녀가 있는 채로 가뒀다고?” 놀라서 왕자를 쳐다보았다. “너 진짜 멋지다.”

또다시 얼굴이 붉어져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 “진짜, 우연이었어. 그냥 가끔 운이지.”

내 칭찬이 부끄러웠나보다, 그러나 그의 엄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더 가까이 봤다. “애야, 정말 지쳤겠구나. 우리와 같이 성으로 오거라,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마. 네 부모님 집에 안내자를 보냈어. 그가 아침이 되면 그 분들을 모시고 올 거야.”

그런 말을 듣다니 너무나 기뻐다. 그녀가 성 대문으로 가, 서둘러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레이트 회장 안까지 안내해 주었다. 우리가 돌아온 것에 대한 소식이 아주 빨리 퍼진 모양이다. 꿩 구이와 순무 그리고 꿀을 바른 돼지고기가 보였다. 군침이 돌았다.

왕자나이 또래의 두 남자애들이 회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그에게 포옹을 했다. 저 빨강머리가 엘킨이고, 다른 애는 아마 틀림없이 기사 앤드류인 것 같다. 그들이 기쁨 속에서 포옹과 뽀뽀를 나누고, 앤드류가 나에게 다가와서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당신 거예요, 라폰젤 아가씨.” 라며 옆으로 물러나니 뒤에서 신나게 쥐를 쫓아가는 키티 아가씨가 보였다. 나는 왕족이 아니라서 아가씨라는 말투가 안 어울린다고 그에게 말하려 했지만, 키티 아가씨를 보니 너무 기뻐다. 나는 팔에 꼭 껴안고는 빙빙 돌며 “사기

꾼”노래를 불렀다. (변명을 하자면, 정신 나간 날들에서 가장 정신 나간 날로 나도 이상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방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빙빙 돌며 노래를 하는 것을 멈추고 서툴게 인사를 했다. 왕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모두들 함께 했다. 왕자가 의자를 나에게 빼주었고 나는 기꺼이 앉았다.

하인이 식탁에서 모든 것을 계속 담아주어 더 이상 옥수수 알맹이를 더 이상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도와주었다. 키티 아가씨는 바닥에 깔려있는 조각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아지, 고양이, 쥐, 그리고 심지어 산토끼도 한두 마리 있는 것 같았다. 맹세컨대, 순간 그들 중 한 녀석에게 말을 걸면서 식탁 밑을 훑쳐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잘못 생각했나보다. 왜 산토끼랑 이야기를 하겠어?

제45장

8월20일

-벤자민 왕자의 이야기-

라퐁젤이 안전하게 성에 있다니 정말 좋다. 엄마는 그녀가 지내게 될 방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라퐁젤이 덮개가 있는 폭신평신했 침대를 보고는 짹짹 소리 지르는 소리가 회장까지 들렸다. 그녀의 부모님 집에 안내자를 보낸 것은 다 앤드류의 조사능력 덕분인 것을 알고 있다. 이들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니 난 정말 행운아다. 내 사기를 꺾은 유일한 일은 라퐁젤에게 내 약혼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베개에 머리를 댄 기억이 없다. 내가 그 다음 기억하는 것은, 노래하는 소리에 깰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가 “사랑스러운 아가씨,”아 아니고 목소리도 라퐁젤 목소리가 아니다. 사실, 여자 목소리도 아니다. 눈을 뜨니 해가 중천이었다. 이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소리를 따라가 창가로 갔다. 커튼을 젖히니 9살에서 12살 쯤 되어 보이는 오십 명의 남자아이들이 보였다. 그중에 다른 벤자민만 알아봤다. 무리의 대장이었다. 이들이 다른 벤자민 들이다! 내가 보이자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벤자민 왕자, 그는 정말 멋져
여자아이를 구했지, 마녀를 그녀의 운명에 맡겼지!
벤자민 왕자, 아무도 못 이겨
벤자민 왕자, 라라!

드디어 나에 대한 노래가 생겼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래는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자, 그들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 남자아이들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엄마를 보자 인사했고 들판에서 사라졌다.

“참 어여쁜 아이들구나,” 내가 활짝 웃자 엄마가 말했다. “아침식사 하기 전에 올라와서 너랑 이야기 하고 싶었어.”

“뭔데요? 뭐가 잘못 됐어요?” 손에 있는 반창고가 사라지고 약간 불그스름한 자국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라퐁젤을 구하려고 했던 너의 용기에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하고 싶구나. 우리 뒤에서 이런 일들을 꾸몄다는 것은 기쁘지만은 않지만 이해해. 이런 상황에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던 것은 옳지 않아. 전통을 깨는 일이긴 하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엄마에게 포옹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래, 알았어,” 웃으며 나를 빼내면서 말했다. “어서 옷 갈아입고 내려오렴. 라퐁젤의 부모님이 곧 오실 거야.”

신나게 세수를 하고 가장 편안한 옷을 입었다. 갑갑한 승마 옷이랑 사냥 옷만 며칠 동안 입었더니 원래 입던 옷을 입으니 맘이 놓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모두 즐거운 분위기였다. 엄마는 이웃나라의 많은 경들과 귀부인들을 초대했고 식탁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아니면 어젯밤 집에 가지 않았을 지도 모르지! 저글링 하는 곡예사들은 이번엔 빨간 사과로 저글링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 뒤에 끌려 다니는 띠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다. 라퐼젤에게 손을 흔들었다. 새로운 녹색 가운을 입었고, 새롭게 자른 머리가 단정하게 빗질이 되어 있었다. 전날 눈과 먼지 묻은 원피스를 입었던 아이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두 명의 귀부인들이 그녀 양 옆에 앉아있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아야 했다.

배를 채우기 전에, 집사에게 글을 쓸 송아지 가죽과 붓펜을 달라고 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위촉장을 써서 집사보고 안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을의 똥 무더기 청소부에게 확실히 전달해 달라고 했다. 집사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목례를 했다 그러나 벌써 가버려서 보지 못했다.

“훌륭하군,”엘킨이 식탁 건너편에서 감탄한 듯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덜 겁쟁이 같구먼.”

“하-하,” 산딸기 오트밀을 열심히 먹으며, 대답했다. 괴로워하는 도라지를 구조해 내면 식욕이 왕성해진다.

제46장

8월20일

-라퐼젤의 이야기-

벤자민 왕자가(아니면 벤,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라고 고집했으니까) 아침 식사를 열심히 먹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아주 잘 쉬고 행복해 보였다. 나도 그 래야 하는데. 어제 손님방에 있던 침대는 구름과 같았다. 맞다, 이곳은 마녀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나았다, 그곳에 있으면 수면제 없이도 그런 침대에서는 며칠 동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긴 정말이지 아름다운 곳이다, 곡예사들과 벤의 가족들의 세대를 보여주

는 화려한 태피스트리도. 그리고 끊임없는 음식! 밑에 층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음식 냄새가 났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내가 귀족혈통이 아닌걸 아는 것 같았지만 벤의 친구이어서 그런지 마치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해 주셨다. 꿀 케이크의 마지막 한입을 먹으려는데 그레이트 회장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안내자가 빨리 서둘러 들어왔고 우리 부모님이 보였다!

뛰어 오르며 차가 든 머그잔이 거의 나에게 관심을 두고 기다리면서 있던 귀부인 무릎에 쏟을 뻔 했다. 다행히도 때마침 치마를 치켜들어서 낭패를 모면했다.

“저기 있네!” 엄마가 신나 소리쳤다. 아빠를 끌어당기며 식탁 끝에 있던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여정으로 인해 옷이 헝클어진 채로 지쳐 보이고, 더 나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인사하러 달려가서 우리는 단체로 포옹을 하였다.

“오, 우리 아가,” 엄마가 말했다,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내가 옆에 없었어!” 눈에 눈물이 가득하며 엄마를 빨리 안심시키며 진짜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머리카락을 자른 일은 별로 특별한 느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빠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다, “라퐁젤,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네가 끌려간 이후로 너무나 비참했어.”

“엄마아빠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동안 엄마는 눈물을 더 흘렸다. “엄마도 마녀에게 속은 거 예요. 엄마는 도라지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맞아,” 엄마가 훌쩍이며 말했다. “안 좋아해.”

마침내 벤과 그의 부모님이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며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부모님을 모셔갔다. 인사를 하고 벤과 왕도 답례로 상냥하게 목례를 했다. 벤은 그럴 때마다 제왕 같다.

“이 남자아이가 나를 구해줬어요.” 부모님께 말했다. 다시 인사를 하던지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빠가 힘찬 포옹으로 감싸 안았다! 창피해서 얼굴이 다 빨게 졌다. 그러나 벤은 그냥 웃고 있었다.

기사 앤드류는 벤의 옆자리로 나타났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요,” 그가 말

했다, “그러나 왕자님과 라퐁젤에게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두 분도 있어요.”

뒤로 돌아 아마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든 사람이 보였다 너무나도 녹색인 사람과 나란히 걸어왔다. 스티븐 아저씨다! 우리 아저씨! 그의 등장에 모두들 숨을 죽이며 놀라는 분위기였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가까이 데리고 왔다. 그러나 나는 껍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벤과 엘킨은 늙은 아저씨에게 똑같이 했다. 물론 소리를 껍 지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라퐁젤,” 벤이 나와 스티븐 아저씨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이분이 처음에 널 찾으라고 해준 은둔자 아저씨야. 이 분이 운명을 향해 귀 기우리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 난 네 노랫소리를 들었지.”

“그리고 이분,” 그의 얼굴을 스티븐아저씨 쪽으로 돌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분은 탑에서 나에게 잘해 주셨어. 날 위해 목숨도 위험할 뻔 했어.”

우리는 모두 활짝 웃으며 원을 그리고 서서 악수를 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스티븐 아저씨에게 신나 물었고 벤과 엘킨도 은둔자 아저씨에게 똑같이 했다.

이들 둘은 서로 쳐다보며, 은둔자 아저씨가 스티븐 아저씨에게 물었다, “재들에게 말해줄까?”

“우리에게 뭘 말해요?” 벤이 은둔자 아저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명랑한 말투로 물었다.

“뭘,” 은둔자 아저씨가 말했다, “내 이야기는 이 두 왕자님들을 만난 날 시작되었어, 뭐랄까, 그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여기 스티븐은 그날 내 동굴 앞을 뛰어 지나갔지. 마녀에 대해, 그리고 탑에 갇힌 여자아이에 대해 외치고 있었어. 그 불쌍한 남자는 여자애를 혼자 두고 나왔다는 것에 겁먹고 비참해 했어. 내가 그녀를 위해 구조요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달려가서 그 탑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 난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갔지.”

엄마 아빠의 눈이 둥그레 지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 이야기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다. 손을 뺐어 엄마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아빠 손을 잡았다, 마치 내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스티븐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스티븐의 얼굴이 밝은 자주 빛이 되었고 이는 부끄럽다는 뜻이다.

은둔자 아저씨가 계속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 그레이트 숲에 어떻게 나처럼 늙은이가 갈 수 있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멋진 두 청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내 예술작품에 감탄하는 동안 노랫소리가 들렸지.”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너의 노랫소리 말이다. 그다음 왕자가 그의 인생에는 모험 따위는 없다며 한탄하고 있기에 그제야 답을 찾은 거지. 탑에 있는 여자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어제 왕실 근위대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러는지 물었지. 마녀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티븐에게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도 된다고 알려주러 찾아갔어.”

“그렇지만 어떻게 아저씨를 찾았어요?” 스티븐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느 동굴에 사는지 알고 있어. 나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스티븐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래서 우리의 탈출 작전이 결국 먹혔네요! 의도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긴 했지만.”

우리가 웃었다. 벤도 웃었다. 그리고 “어쩐지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더라! 이제 내 이름 옆에 아저씨 둘 모두의 이름을 넣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사실, 아니지,” 은둔자 아저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네 이야기 그리고 역사에도 그렇게 남아야해.”

“파티를 망치고 시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왕비가 우리 뒤에서 치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따뜻하게 먹어야 할 음식들이 다 식고 있고 반대로 차가운 음식들은 미지근해 지고 있어요. 막 오신 분들은 여정이 너무 길어서 배고프실 텐데.” 그녀는 새롭게 차려놓은 식탁에 우리를 안내했다. 스티븐 아저씨가 자리에 앉자, 어린 남자아이가 망설이며 손을 내밀어 스티븐의 팔을 문질렀다. 스티븐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 문지른다고 없어지지 않아.”

어린 남자애가 킁킁거렸고 그의 엄마는 그를 잡아 사과를 하고, 데리고 갔다.

“괜찮아요,” 스티븐이 말했다. “저도 당신 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 눈을 믿을 수가 없네요.”

“스티븐,” 우리 앞에 스프 그릇이 놓이자 진지하게 말했다, “아저씨 손가락은 건지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내 짐 가방이 아직 탑에 있어요.”

“반대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뒤에 앤드류를 쳐다보았다. “마녀가 화가 나서 밑에 근위대에게 네 짐 가방을 던졌어. 산산 조각나는 바람에 모든 게 잉크로 범벅이 됐지 뭐야. 그런데 근위대들이 그 와중에 은수저 하나를 건져냈지. 너한테 중요한 거 같았어. 네 방에 가져다 놓았어.

“고마워, 앤드류,” 그에게 말했다, 스티븐이 내 손을 다정하게 잡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앤드류가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스티븐이 속삭였다.

“나도 알아요,” 나도 속삭였다, 약간 벤을 훑쳐보니 나와 눈이 마주쳐서 얼굴이 발그레 졌다.

“우리가 여기에 다 모였으니,” 왕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무도 내 자주색 실크 예복 본사람 없니? 내 옷장에서 순간 사라졌어.”

앤드류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벤, 엘킨과 내가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다. 엘킨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어, 이모,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웃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작가에 대해서

웬디매스는 ‘망고모양 우주’와 곧 출판될 ‘제레미 핑크’, 그리고 ‘삶의 의미’의 저자이다. 그녀는 ‘옛날, 옛날, 더 옛날에’ 시리즈의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쓰였을지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에서다. 웬디는 남편, 마이크와 뉴저지에 살고 있다. 그녀와 연락하려면 www.wendymass.com 이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